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4-10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Strategies to Increase the Youth Population in Jeonbuk State: Focusing on Young Women

전희진 이주연 전아람

Jthink 전북연구원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전희진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주연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아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4-10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Strategies to Increase the Youth Population in Jeonbuk State: Focusing on Young Women

전희진 이주연 전아람

Jthink 전북연구원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전희진	책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4장, 5장
공 동 연 구	이주연	책임연구위원	제4장 2절
	전아람	전문연구원	제3장, 4장

자 문 위 원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황경란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조경미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팀장

연구관리 코드 : 24JU0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SUMMARY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 저출생 위기의 상황에서 고령인구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년인구의 급속한 유출로 동부권과 서남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

○ 청년여성의 지역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문헌조사로는 인구·청년정책 선행연구 검토,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 국내외 인구·청년정책 및 사업 분석을 진행

○ 청년 여성의 유출과 지속 정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 여성들의 정책 및 사업 방향 발굴을 목적으로 전북 출신 20-30대 청년 여성 FGI와 면접조사를 시행함

○ 전북에서 출생하여 전북으로 다시 되돌아온 경우, 전북 지속 거주의 경우, 타지역 출산으로 전북에 정착한 경우, 전북출신으로 타지역에 정착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농촌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의 사례로 포함하여, 이동의 경험과 이동 결심 사유, 지역 간의 장단점 비교, 정주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19명의 청년 여성 심층면접을 진행함

〈표 1〉 청년여성인구 관련 면접 질문 분야

심층면접 질문 분야	
- 출생 및 학업 가족관련	- 교육
- 지역이동의 경험	- 복지 및 문화
- 취업경험 및 현재 직업	- 지역 공동체 및 활동
- 정주여건	- 자신의 삶과 지역

자료: 저자작성

2. 결론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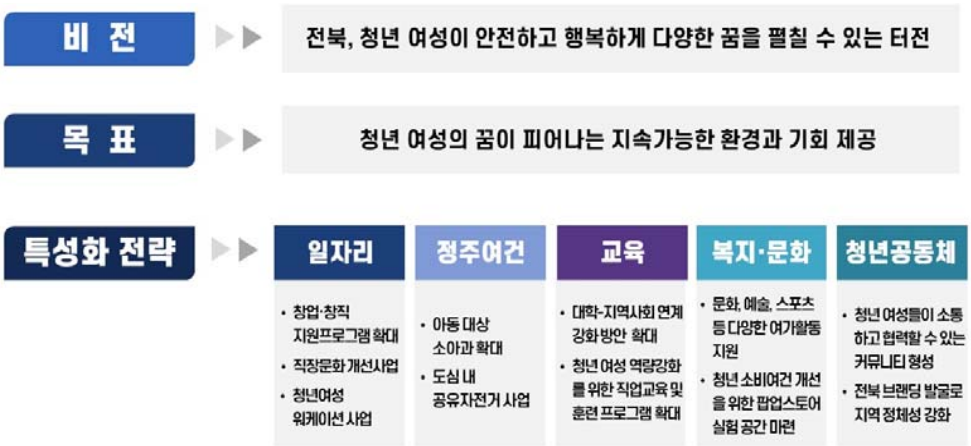
○ 청년 여성들이 전북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기 위한 비전은 “전북, 청년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며, 목표는 “청년여성의 꿈이 피어나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회 제공”으로 설정함

○ 특성화 전략으로 일자리 분야는 • 창업·창직 지원프로그램 확대, • 직장문화 개선 사업, • 청년여성 워케이션 사업을 제안하고, 정주여건 분야는 • 도심 내 공유자전거 사업과 • 아동대상 소아과 확대 사업을 제안

○ 교육 분야는 •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확대와 • 청년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사업 제안

○ 복지·문화 분야는 •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 청년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팝업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사업 제안

○ 청년공동체 분야는 • 청년여성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과 • 전북 브랜딩 발굴로 지역 정체성 강화 전략을 제안



자료: 저자작성

〈그림 1〉 전북 청년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를 위한 비전, 목표 및 특성화 전략

차 례
CONTENTS

요약 ····· i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 6
3. 연구 방법 ····· 9
4. 연구 기대효과 ····· 10

제2장 청년 관련 정책 및 연구

1. 중앙의 청년 관련 법률 ····· 13
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관련 조례 ····· 15
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19
   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19
   나. 중앙청년지원센터 ····· 23
   다.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 24
   라.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8
   마.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9
   바.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사업 ····· 32
4. 청년 및 인구 관련 선행연구 ····· 34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현황

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 43

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이동 현황 ····· 51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삶 : 청년삶실태조사 ····· 58

가. 주거 ····· 58
나. 노동 ····· 63
다. 사회인식 및 미래설계 ····· 65

제4장 전북 청년여성의 유출입 경험 분석

1. 심층면접조사 개요 ····· 73

2. 심층면접조사 결과 ····· 79

가. 지역 이동의 경험 ····· 79
나. 지역 간 비교 ····· 94
다. 일자리 경험 ····· 97
라. 창업 경험 ····· 100
마. 정주여건: 교통, 주거, 의료, 교육 ····· 101
바. 소비·문화활동 ····· 107
사. 청년공동체 활동 ····· 110
아. 지역정체성 ····· 112
자. 정부정책 ····· 117

3. 요약 및 시사점 ····· 127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 방안

1. 비전과 목표 ····· 133

2. 전략과 실행방안 ····· 136

가. 일자리 분야 ····· 136
나. 정주여건 분야 ····· 143
다. 교육 분야 ····· 148
라. 복지·문화 분야 ····· 152
마. 청년공동체 ····· 156

참고문헌 ····· 161

영문요약 (Summary) ····· 163

표 차 례
LIST OF TABLES

[표1-1] 17개 시도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수 ····· 4
[표1-2] 전북 14개 시군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수 ····· 4
[표1-3] 17개 시도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수 ····· 5
[표1-4] 전북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 7
[표1-5] 청년여성인구 관련 면접 질문 분야 ····· 9

[표 2-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관련 조례 ····· 15
[표 2-2]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청년 관련 조례 ····· 17
[표 2-3] 전북 청년의 계층별 정책 방향 ····· 26
[표 2-4] 전북 청년의 생애주기별 정책 방향 ····· 27

[표 3-1] 시도별 인구현황 및 전망 ····· 44
[표 3-2]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현황 및 전망 ····· 45
[표 3-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구조 변화 ····· 46
[표 3-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청년인구 성별 비중(2023) ····· 49
[표 3-5] 전북특별자치도 성별 청년인구(20~39세) 전입 전출 ····· 51
[표 3-6] 연령대별 성별 순이동 현황(2023) ····· 53
[표 3-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20~39세) 순이동자의 이동 지역 ····· 55
[표 3-8] 부모 동거 여부 및 독립계획, 비동거 이유 ····· 59
[표 3-9] 주거 명의 및 주택 점유 형태 ····· 60
[표 3-10] 거주지역 주거환경 만족도 ····· 60
[표 3-11]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순위) ····· 61
[표 3-12]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및 자기주택 필요성 여부 ····· 62
[표 3-13] 현재 거주지역 지속거주 의향 및 지역이동 하고자 하는 이유 ····· 63
[표 3-14] 근로 불안정성 인식 ····· 64
[표 3-15] 이직/구직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 64
[표 3-16]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 65
[표 3-17] 청년들이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 ····· 66
[표 3-18]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 ····· 66

[표 3-19]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요소 ····· 67
[표 3-20]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실현의 조건 ····· 68
[표 3-21] 향후 결혼 및 자녀 계획 ····· 69

[표 4-1] 청년여성 심층면접 대상자 ····· 74
[표 4-2] 청년여성인구 관련 심층면접 주요 질문 리스트 ····· 78

[표 5-1] 로컬라이즈 군산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 137
[표 5-2] 로컬라이즈 군산 3년간 사업 ····· 137
[표 5-3] 세종시 2024년 여성친화인증 기업 ····· 140
[표 5-4] 제주 2023년 디지털노마드 지원사업 ····· 141
[표 5-5]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鄕AII來)' 사업 ····· 142
[표 5-6]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鄕AII來)' 지원 계획 · 142
[표 5-7] 보건복지부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사업 ····· 144
[표 5-8] 전북자지도 반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안) ····· 145
[표 5-9] ICT 기반 원격 협진 기반 소아 의료 서비스 사업(안) ····· 146
[표 5-10]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 ····· 149
[표 5-11] 교육발전특구 내 여성 교육·취업·정주 경로 발굴 제언(안) ····· 150
[표 5-12]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전통문화 기관 연계 사업 ····· 153
[표 5-13] 팝업 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사업 계획 ····· 155
[표 5-1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156
[표 5-15] 전주 지향집 활동 프로그램 ····· 158

그 림 차 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20
[그림 2-2]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추진전략 ····· 23
[그림 2-3]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비전 및 전략 ····· 25
[그림 2-4] 2024년 전북 청년정책 시행계획 체계도 ····· 31
[그림 2-5]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의 청년의 삶의 질 비교 ····· 36

[그림 3-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 47
[그림 3-2] 시도별 연령대별 성비 ····· 48
[그림 3-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청년인구 성별 구성비 ····· 50
[그림 3-4] 전북특별자치도 성별 청년인구 전입 전출 추이 ····· 52
[그림 3-5] 전북특별자치도 성별 청년인구 순이동 추이 ····· 52
[그림 3-6] 시도별 청년인구 순이동률(2023) ····· 54
[그림 3-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권역별 유출 비중(2023) ····· 56
[그림 3-8] 1인 청년인구 전북특별자치도 전출/전입 사유(2023) ····· 57
[그림 3-9] 1인 청년인구 인구특성별 전북특별자치도 전출/전입 사유(2023) ·· 57

[그림 5-1] 전북 청년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를 위한 비전, 목표 및 특성화 전략 133
[그림 5-2] 로컬라이즈 군산 공간들 ····· 138
[그림 5-3]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 ····· 139
[그림 5-4] 서울지역 따릉이 대여소 현황 ····· 147
[그림 5-5]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특구 비전·목표 및 전략 ····· 149
[그림 5-6] 고등평생교육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인적자원 개발 방향 ····· 151
[그림 5-7] 전주 전통술박물관 홈술빚기 클래스 ····· 152
[그림 5-8] 전주전통문화연수원 2024년 교육 프로그램 ····· 154
[그림 5-9] 전주 지향집의 배치도와 내부 사진 ····· 157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인구 위기의 심화 및 청년인구 유출

○ 인구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 고령인구층 증가는 지속되는데 비해, 청년인구의 급속한 유출로 동부권과 서남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세대 성별 구성은 20대는 남성이 54.2%, 여성이 45.8%이며, 30대의 경우 남성이 52.1%, 여성이 47.9%로 여성의 비중이 전국 대비 적음

○ 전국적으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출생아의 여성 비율은 46~48% 수준으로 남성보다 적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연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전북 청년 여성의 비중이 특히 낮은 것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3가지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위험지역, 초고령사회진입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의 경우는 청년 여성인구수와 연계되어 있음

○ 소멸위험지역 측정을 시작한 2016년 이후, 매년 소멸위험지역은 증가하고 있음.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를 통해 측정 (이상호 2024)

-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단계로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402이나, 14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면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소멸위험지역이 6곳, 지방소멸고위험지역이 7곳으로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위험지역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시군의 92.9%가 소멸위험지역인 것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중임

[표1-1] 17개 시도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수

	지방소멸위험지역
전국	0.628
서울특별시	0.823
부산광역시	0.500
대구광역시	0.567
인천광역시	0.750
광주광역시	0.750
대전광역시	0.750
울산광역시	0.657
세종특별자치시	1.144
경기도	0.799
강원특별자치도	0.398
충청북도	0.500
충청남도	0.473
전북특별자치도	0.402
전라남도	0.336
경상북도	0.356
경상남도	0.457
제주특별자치도	0.604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표1-2] 전북 14개 시군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수

	지방소멸위험지역
전북	0.402
전주시	0.698
군산시	0.424
익산시	0.433
정읍시	0.243
남원시	0.228
김제시	0.215
완주군	0.374
진안군	0.149
무주군	0.157
장수군	0.143
임실군	0.142
순창군	0.172
고창군	0.152
부안군	0.164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표1-3] 17개 시도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수

	총 시군구	지방소멸위험 시군구 위험/고위험	%
전국			
서울특별시	25	0/0 = 0	0.0
부산광역시	16	9/0 = 9	56.3
대구광역시	9	3/1 = 4	44.4
인천광역시	8	1/0 = 1	12.5
광주광역시	5	0/0 = 0	0.0
대전광역시	5	1/0 = 1	20.0
울산광역시	5	0/0 = 0	0.0
세종특별자치시	1	0/0 = 0	0.0
경기도	31	6/0 = 6	19.4
강원특별자치도	18	11/5 = 16	88.9
충청북도	11	4/5 = 9	81.8
충청남도	15	7/5 = 12	80.0
전북특별자치도	14	6/7 = 13	92.9
전라남도	22	8/11 = 19	86.4
경상북도	22	11/9 = 20	90.9
경상남도	18	5/8 = 13	72.2
제주특별자치도	2	1/0 = 1	5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나. 연구 목적

▌청년인구 확대 방안 제언

○ 청년 여성의 지역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방안을 제안

- 안심 생활공간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 여성고용률 확대 등의 일자리 발굴 및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청년 여성 인구 증대 정책 마련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가. 연구 범위

▌ 청년의 정의

○ 이 연구에서 청년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정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청년인구 통계 등에 있어서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는 유연하게 통계 자료를 검토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의 청년 기본 조례 등에서는 청년의 인구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포괄하고 있음

나. 주요 연구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구성 및 인구유출입 현황

○ 전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을 확인해보면, 성별 구성비가 가장 큰 폭으로 차이 나는 연령대는 80세 이상 초고령층이며 여성의 구성비가 약 30~60% 더 높음

○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성보다 남성의 구성비가 더 높은 연령대는 20~39세의 청년층으로 2023년 기준 전국 청년세대는 20대의 경우 남성이 52.2%, 여성이 47.8%로 나타났으며 30대는 남성이 52.0%, 여성이 48.0%로 나타남

○ 그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세대 성별 구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더 큰 차이로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20대는 남성이 54.2%, 여성이 45.8%를 구성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약 8.4%p(16,123명) 적었으며, 30대의 경우 남성이 52.1%, 여성이 47.9%를 구성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약 4.2%p(7,113명) 적었음

○ 특히 20대 여성의 인구 비중이 낮은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청년 여성 유출

방지 및 유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표1-4] 전북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단위: 명, %)

	전국			전북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51,325,329 (100.0)	25,565,736 (49.8)	25,759,593 (50.2)	1,754,757 (100.0)	873,419 (49.8)	881,338 (50.2)
0-9세	3,332,892 (100.0)	1,708,010 (51.2)	1,624,882 (48.8)	102,482 (100.0)	52,352 (51.1)	50,130 (48.9)
10-19세	4,651,460 (100.0)	2,393,339 (51.5)	2,258,121 (48.5)	164,304 (100.0)	84,960 (51.7)	79,344 (48.3)
20-29세	6,197,486 (100.0)	3,236,838 (52.2)	2,960,648 (47.8)	190,813 (100.0)	103,468 (54.2)	87,345 (45.8)
30-39세	6,575,548 (100.0)	3,420,991 (52.0)	3,154,557 (48.0)	172,999 (100.0)	90,056 (52.1)	82,943 (47.9)
40-49세	7,922,134 (100.0)	4,028,250 (50.8)	3,893,884 (49.2)	245,114 (100.0)	125,613 (51.2)	119,501 (48.8)
50-59세	8,695,699 (100.0)	4,385,550 (50.4)	4,310,149 (49.6)	300,818 (100.0)	156,268 (51.9)	144,550 (48.1)
60-69세	7,630,708 (100.0)	3,755,827 (49.2)	3,874,881 (50.8)	284,897 (100.0)	142,143 (49.9)	142,754 (50.1)
70-79세	3,966,203 (100.0)	1,818,730 (45.9)	2,147,473 (54.1)	171,805 (100.0)	78,851 (45.9)	92,954 (54.1)
80-89세	2,045,024 (100.0)	748,225 (36.6)	1,296,799 (63.4)	104,131 (100.0)	35,933 (34.5)	68,198 (65.5)
90-99세	299,638 (100.0)	68,553 (22.9)	231,085 (77.1)	16,920 (100.0)	3,714 (22.0)	13,206 (78.0)
100세 이상	8,537 (100.0)	1,423 (16.7)	7,114 (83.3)	474 (100.0)	61 (12.9)	413 (87.1)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청년인구 증대를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사례 검토

○ 청년 관련 법령인 「청년기본법」을 비롯,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관련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전북자치도의 14개 시군에도 청년 기본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및 사업 등이 시행 중임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관련 조례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사업들도 연관하여 검토

○ 또한, 해외에서 청년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지역의 청년 유입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여 다양한 사례를 발굴

▌청년 여성 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제언

○ 전북자치도 청년 여성들의 정주 경험 및 이동 경험을 통해 그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제언

○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 주거, 교통, 안전 등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요구와 문화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한 조건 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

3.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문헌조사

○ 인구·청년정책 선행연구 검토,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

○ 국내외 인구·청년정책 및 사업 분석

○ 전북지역 대학의 졸업생 취업 현황 분석

▌조사 방법

○ 전북 출신 20-30대 청년 여성 FGI 및 면접조사 시행

- (목적) 청년 여성 유출과 지속 정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 여성들의 정책 및 사업 방향 발굴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현재 거주하거나, 혹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혹은 다른 지역을 경험하고 전북자치도로 이주해 온 청년 여성 30여명
  결혼여부, 자녀 유무에 따른 상황적 차이를 위해 최대한 다양하게 면접 진행
- (내용)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삶의 경험, 이주 혹은 정주의 원인, 전북자치도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경제·사회·공동체·문화적 조건 등
- (사전조사) 심층면접 문항 조사를 위해 사전 조사 및 FGI 실시

[표1-5] 청년여성인구 관련 면접 질문 분야

심층면접 질문 분야	
- 출생 및 학업 가족관련	- 교육
- 지역이동의 경험	- 복지 및 문화
- 취업경험 및 현재 직업	- 지역 공동체 및 활동
- 정주여건	- 자신의 삶과 지역

자료: 저자작성

2) 전문가 자문

○ 연구 추진 방향의 적절성, 면접 설계 및 질의 내용 검토

○ 타지역 사례의 성과와 한계,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는 시사점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년여성 유입 및 인구 확대 방안에 대한 자문

4. 연구 기대효과

▌기대효과

○ 청년 여성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년 대상 사업 발굴 가능

○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를 통한 청년 여성 인구 확대 방안 마련 기대

▌연구성과 활용방안

○ 지역 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 지역 할당 고용제 확대 등을 통한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 취업 방안 제언

○ 정주환경 개선 및 청년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방안 사업 제언

제 2 장

청년 관련 정책 및 연구

1. 중앙의 청년 관련 법률
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관련 조례
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청년 및 인구 관련 선행연구

제2장 청년 관련 정책 및 연구

1.중앙의 청년 관련 법률

○ 청년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그리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위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

▌청년기본법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의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기본이념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청년의 권익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이 시행되어야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의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됨

○ 주요 내용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공,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공표 등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이 법에서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 · 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나이는 50세 미만인 사람이고,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 총 영농기간 또는 총 영어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교육 지원, 고용 지원 등을 포함함

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관련 조례

○ 전북자치도의 청년 관련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비롯,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군복무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주거 지원 및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를 살펴볼 수 있음

○ 조례는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이때 청년의 정의는 대부분 18세부터 39세 사이이나, 청년 농업인의 경우는 45세까지를 청년으로 포함하고 있음

[표 2-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관련 조례

조례	제정 목적	청년의 정의	주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보험계약 체결 가입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그 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주택 지원범위 지원절차 재원 관리 입주자의 의무

[표 계속]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관련 조례

조례	제정 목적	청년의 정의	주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연구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청년정책포럼단 청년의 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의 고용촉진 청년의 창업 기반조성 청년의 주거안정 청년의 복지증진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청년의 날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청년센터 설치·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도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를 말함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4.2.27 검색)

○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에도 청년 관련 지원 조례가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음

- 청년 기본 조례는 법에 의해 모든 시군에 제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주택지원, 창업지원,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 시군에 2가지에서 6가지의 청년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음

○ 청년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각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18세부터 39세 이하로 정의되나, 지역에 따라 45세, 49세까지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도 함

- 지역 거주가 기본적인 조건이나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청년 활동 및 지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음

[표 2-2]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청년 관련 조례

시·군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의 정의
전주시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군산시	군산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청년"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익산시	익산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청년"이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정읍시	정읍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정읍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	"청년"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남원시	남원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김제시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청년"이란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표 계속]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청년 관련 조례

시·군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의 정의
완주군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순창군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군민을 원칙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진안군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이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무주군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임실군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름
장수군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청년” 이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5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고창군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름
부안군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청년”이란 부안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4.2.27 검색)

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수립·추진 중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철학 반영과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의 청년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 2023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이 발표됨

○ 1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는 청년 문제가 국가정책 영역에서 독립적 영역으로 제도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여건 약화에 적극 대응한 점,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한 점을 들 수 있음

○ 청년문제가 더 이상 '일자리 중심'의 접근이 아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확대하여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청년정책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지원 방안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적극 대책 마련
- 청년 참여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협의회 정례화 수행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청년 참여 미흡, 정책에서의 청년들의 인식과 요구 반영 미흡, 실제 정책 체감도 부족 등의 한계가 보임

○ 그에 따라 국정 전반에 청년인식 반영 통로를 실질화하고, 정책의 효능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 및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수정안 발표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그림 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일자리 분야: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학생, NEET청년, 여성청년 등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과 인턴 등을 통한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 청년 재직자 지속 지원 등의 사업 시행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및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 환경 등 분야별 창업지원

○ 공정채용을 통한 청년 기회 확대 및 직장문화 개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조성

○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및 표준계약서 확대 보급을 통한 청년 사회보장 강화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절을 통한 청년 노동권 보장

▌주거 분야: 청년의 주거부담 감소

○ 공공분양, 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 보급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대학 기숙사 확충을 통한 직장과 학교에 가까운 주택 보급

○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및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경감

○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 청년 지원 및 취약 주거지 근본 개선 사업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 및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

○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및 지방시대에 맞는 지역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주거 환경 구축

▌교육 분야: 청년 스스로 그리는 삶

○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반 구축 및 대학 간 공유·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양성 허브역할 강화

○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및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한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지역인재 양성 지원을 통한 고른 교육기회 보장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과 청년 진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교육과 일자리 연계 강화

○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의 원격 교육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기반 구축으로 배움의 기회 확대

▌복지·문화 분야: 나아지는 청년의 생활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병사지원 등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청년 부대 부담 경감을 통한 청년재기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청년 장애인 지원과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취약계층 청년 지원 확대

○ 청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과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를 통한 건강 증진

○ 청년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 및 산업 육성,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청년 예술가 및 창작자 지원을 통한 문화강국 기반 마련

▌참여·권리 분야: 직접 결정하는 청년의 삶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확대 및 청년 친화적 거버넌스 운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견 반영

○ 청년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운영, 청년통계 체계화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 기반 내실화

○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센터를 통한 통합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활동 청년 공동체 조성

○ 노동·금융·주거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통해 피해예방 및 청년권익을 보호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교류에서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을 벗어나, 청년이 대상국가와 주제를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국제교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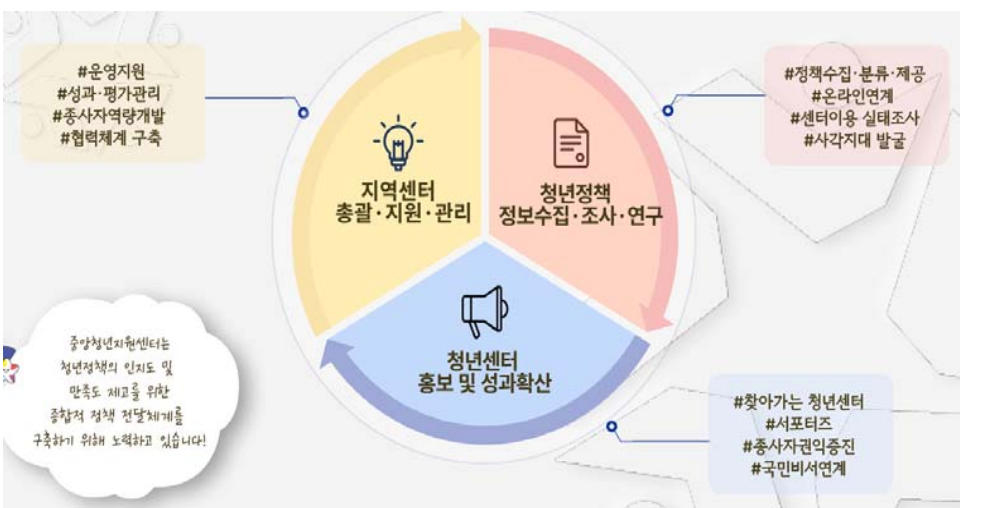
나. 중앙청년지원센터

○ 청년정책 지원의 효율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청년 지원센터 업무 총괄과 청년센터 사업을 조정·관리 및 지원하는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정((재)청년재단, 3년간, '24~'26년) 운영

-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중앙 단위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담 기관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청년들이 양과 질적으로 균등한 청년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청년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청년기본법 개정 시행('23. 9. 22)에 따라, 지역센터를 총괄·관리하고, 청년 관련 사업 및 정책에 관해 체계적 정보수집·조사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역센터의 총괄·지원·관리,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 정보수집·조사·연구, 청년센터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추진전략으로 제시



자료: 중앙청년지원센터. 2024. 2024년 중앙청년지원센터 사업소개

[그림 2-2]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추진전략

○ 지역센터 총괄·지원·관리사업은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지역 특화 청년사업 운영지원, 청년지원센터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 수립, 종사자 자격관리, 종사자 교육, 청년정책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구분되어 수행됨

○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조사·연구는 청년 관련 정책·지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여 제공하고, 청년지원센터 이용 실태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결과 분석, 청년 지원·발전 및 정책 사각지대 발굴하여 해소방안 마련, 온라인 통합 청년지원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수립 등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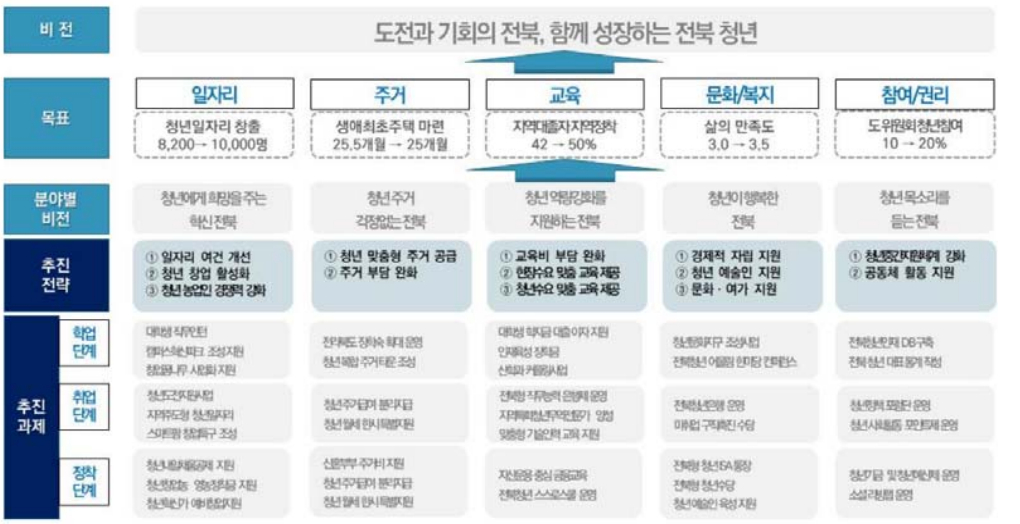
○ 청년센터 홍보 및 성과 확산은 찾아가는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청년지원센터 서포터즈 운영 및 센터의 홍보 활성화, 청년지원센터 종사자 권익증진 사업, 국민비서와 청년정책(지원) 통합시스템 연계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다.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3~'27)

○ 제1차 전북 청년정책기본계획은 2017년 「전북특별자치도(당시,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1차 전라북도청년정책기본계획('18~'22)을 수립함

- 1차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수립되어, 대도시 대상이 아닌 도농복합형 지자체의 기본계획으로 구성된 의의를 가짐
- 이 계획에서의 5대 부문은 취업 및 고용, 창업, 문화 및 여가, 복지, 거버넌스로 구분되었고, 일자리 중심의 계획으로 볼 수 있음

○ 2차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조응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개 부문으로 개편하고, 청년정책의 정착을 넘어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 구상됨



자료: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그림 2-3]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비전 및 전략

[표 2-3] 전북 청년의 계층별 정책 방향

분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 계층
	남성	여성	20대	30대	도시	농촌	
일자리		일·가정양립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진로탐색 일경험 지원 구직활동 지원 예비창업 지원	근로환경 개선 인건비 지원 창업지원 보육 스타트업 지원	지역대학 연계 창업거리 조성 창업중심대학 지원	영농정착지원 스마트팜 보급	직접일자리 지원 창업 보육
주거		1인 여성가구 주거안전 지원	쉐어하우스 장학숙 운영 주거급여분리지급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청년주거단지 조성	장학숙 운영 귀농인 주거지원	민관협력임대주택 공급
교육			장학금지원 역량강화 특성화고 지원	일학습 병행 기술 교육			생활교육
문화·복지	1인 가구 지원	1인 가구 지원	단기금융상품	자산형성 지원 육아지원			신체·정신건강 지원 청년 예술인 지원 청년축제
참여·권리		동호회 활동 지원				공동체 형성 지원 동호회 활동지원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동호회 활동지원

자료: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표 2-4] 전북 청년의 생애주기별 정책 방향

분야	교육 단계		사회 진입 단계		사회 정착 단계		전주기
	고등학교	대학교	구직활동	취·창업	결혼	육아	
일자리	진로탐색 특성화고 지원	진로·일자리 탐색 일경험 지원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매칭 일자리맵 제공	근로환경개선 인건비 지원 창업지원보육		일·가정 양립 지원	직접 일자리 지원
주거		장학숙 운영 청년주거단지 조성	주거급여분리지급	귀농귀촌 거주공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거공간 확보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주거환경 개선
교육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지원	역량강화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장학금 지원 신산업 학과 지원	청년 역량강화 기술교육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일학습 병행	평생교육 생활교육	평생교육 생활교육	청년수요 맞춤 교육
문화·복지	정신건강지원 자립수당	건강검진 정신건강 지원 1인가구 지원	건강검진 정신건장 지원 1인가구 지원 단기금융상품 개발	자산형성 지원 정착지원금 1인가구 지원	자산형성 지원 신혼부부 결혼 비용 지원	자산형성 지원 육아 지원	청년축제
참여·권리	청년인재DB등록	청년인재DB등록 창의학교 청년대학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포럼단		청년정책포럼단 지역청년 네트워크 구축 생생 아이디어 지원 소셜 리빙랩 운영	청년정책포럼단 지역청년 네트워크 구축 생생 아이디어 지원 소셜 리빙랩 운영	청년정책포럼단 지역청년 네트워크 구축 생생 아이디어 지원 소셜 리빙랩 운영	청년통계 구축

자료: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라.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2020년 12월에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2024년은 역대정부 최고 청년고용률과 최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취업, 자산형성, 일상 전반 등 청년 삶의 제약이 되는 요소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

- 일자리 분야에서 기업은 경력·수시 채용을 선호하여 체계적인 진로탐색·실무경험의 기회 부족하여,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 약 40만 명에 이름

- 자산형성의 욕구는 높은 반면, 기회가 제한되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생활고 차원의 부채 증가

- 일상에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필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청년 우울증, 번아웃 등 마음 건강이 악화

○ 35개 중앙행정기관, 총 356개 과제, 약 27조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과제수로는 일자리 분야 과제가 124건으로 가장 많고, 예산은 주거분야가 11.5조원으로 최다 예산임

○ **(일자리 분야)** 청년고용지원제도의 다각화와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 지원을 목표로 맞춤형 구직지원 강화와 일경험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공정채용, 합리적 직장 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고자 함

○ **(주거분야)** 청년 공공임대·공공분양을 지속 확대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자산 형성을 동시 지원

- 연합기숙사, 기숙사비 카드결제, 분할납부 등을 통해 대학생 주거 지원 사업 시행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주거비 지원프로그램,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등의 시행으로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수행

○ **(교육 분야)**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모든 청년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와 경력개발·진로탐색까지 지원 영역 확대

-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산업 연계 프로그램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추진체계 구축 및 5개년 계획 수립 지원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직장인 청년의 경력 개발 및 후학습 지원

○ **(복지·문화 분야)**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

-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한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가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자립준비청년 맞춤 지원 및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체계 구축
- 청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서비스 강화 및 지원 인프라 확대

○ **(참여·권리)**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주도성 확대 및 지역 거점 청년센터를 통한 지역 청년정책 기반 확대

마.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청년기본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전북자치도는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발표

○ 2023년 전북자치도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체감도가 낮고, 다양한 부서, 기관, 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에 따라 정책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

○ 이에 2024년 청년정책은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원정착을 위한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청됨

○ 청년정책 추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지역 특성 및 청년 생애주기에 맞는 청년지원사업 발굴 필요

○ 5대 분야 85개 과제(신규 11건, 계속 74건)를 발굴 추진하여, 청년공동체 활성화, 전북만들기 사업, 청년도약 프로젝트로 청년에게 기회 제공을, 전북형 청년수당, 전북형

활력수당, 전북청년 두배 적금으로 도전의 가능성을 확대

○ **(일자리)** 전북청년인턴, 예비창업지원, 청년창업농 지원, 임대스마트팜 건립 등으로 생애주기별 일자리 지원 및 청년 농업인 육성에 집중

○ **(주거)**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귀농귀촌 거주시설 지원,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등을 통해 청년 주거 상향 지원

○ **(교육)**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맞춤형 기술 인력교육, 대학 산학간 커플링 사업, 지역특성화 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청년 역량 강화 노력

○ **(복지·문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두배 적금, 내일저축계좌,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생활안정기반 마련 및 창작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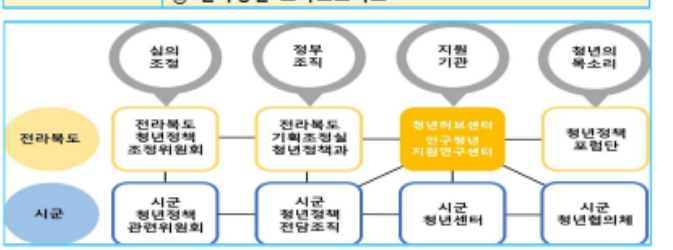
○ **(참여·권리)**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청년정책포럼단, 전북청년 도약 프로젝트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 확대 및 청년 활동 생태계 조성

비 전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

목 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청년 일자리 창출	행복주택 공급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전북형 청년수당 지급	청년 정책제안 실행 · 반영
	9,000명	600호	1,200명	3,000명	5건

추진전략	핵 심 과 제	
1 생애주기별 지원 · 청년농업 육성	일자리	① (확대) 전북 청년 직무인턴 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③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④ (확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⑤ (신규)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스마트팜 건립
2 주거부담 완화로 주거 상향 지원	주 거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② (확대)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④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⑤ (확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3 교육기회 보장 · 미래 역량강화	교 육	①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육성 장학금 ② 맞춤형 기술 인력교육지원 ③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④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⑤ 지역특성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생활안정기반 · 창작활동 지원	복지 · 문화	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② 전북형 청년수당(지역정착 지원사업) ③ (확대)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④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⑤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
5 참여 거버넌스 · 활동 생태계 조성	참여 · 권리	①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② (확대) 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③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④ (확대)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⑤ 전북청년 도약프로젝트

추진 체계



자료: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그림 2-4] 2024년 전북 청년정책 시행계획 체계도

바.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사업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 1조원(기초 75%, 광역 25%) 규모로 10년간('22~'31년) 지원하는데,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

○ 이 중 청년유입 및 정주확대를 위한 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 여가활동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마련, 보육·돌봄에 대한 기반 확대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김제의 스마트팜혁신벨리 연계 '청년농 스타트UP 정착, 스마트팜 Value Chain' 구축 사업이나, 남원의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 사업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김제 '청년농 스타트UP 정착, 스마트팜 Value Chain' 구축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들이 교육 수료 후 지식을 시험해볼 수 있는, 특히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과 귀농인을 위한 창농지원 사업임

- 남원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 사업은 남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남원 미꾸리 양식사업'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미꾸리 수요 공급을 위한 스마트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확대, 그에 연계된 스마트 양식장 입주희망자 유입, 미꾸리 체험 및 관광콘텐츠 연계 등의 계획을 추진 중임

○ 여가활동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및 청년 활동 지원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는 장수군의 '한국의 샤모니, 장수트레일빌리지'사업이 있음

- 장수군의 완만한 산악지형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트레일러닝 사업을 시작하여, 장수군을 국제 산악관광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임

- 트레일레이스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이 장수를 방문하고, 생활인구로 체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이 장수러닝크루라는 청년 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청년층 유입을 위한 노력으로 보육·돌봄기반 마련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정읍의 전북자치도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을 들 수 있음

- 전국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로 높은 편이지만, 전북 서북권의 산후조리원의 부재로 원정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타지역 이동이 많은 상황을 극복하여, 모자보건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계획

4. 청년 및 인구 관련 선행연구

▌청년세대 담론

○ 1980년대 지속 성장이 보장되는 시기였던 발전주의 국가의 낭만적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사랑-결혼-출산-육아의 모델과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기의 가족 모델이 붕괴됨

○ 외환위기 이후,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핵가족 모델이 붕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노력해도 성공은커녕,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노력과 그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3포, 5포, N포, 흙수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지옥비(지하방, 옥탑방, 비주택)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됨(최종렬, 2018)

○ 이러한 '청년세대'를 규정하는 담론의 생성은 다른 측면에서는 청년층을 '비주체'로 타자화시키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차이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지며, 청년세대라는 사회적 실제가 구성되고 효과를 보이기도 함(김선기 2016, 정성조 2019)

▌수도권 vs 지방 담론

○ 청년세대의 이슈에 대한 계급, 젠더 등을 고려한 다층성의 고민과는 달리, 지역을 고려하면 다시 경직된 상황으로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의 교차성 관점이 지역 청년 연구에서 논의될 필요가 존재(권수빈 2020)

○ 가족의 형성과 출생의 이슈를 수량적인 측면으로만 분석한 한계가 있으나, '서울 일극체제'가 비수도권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하며, 비수도권의 출생아 감소와 지역 성장 동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연구도 있음(서울신문 2023. 11. 2)

○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이 확대되면서 이동경로(이전 거주지 → 현재 거주지)에 따른 4개의 집단을 분류하여, 수도권으로 떠난 집단(비수도권 → 수도권)과 지방에 남은

청년(비수도권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인구·사회, 주거·교통, 노동, 소득·부채·재산, 신체적·정신적 웰빙, 가족형성 등에서 우위지표가 다르게 나타남(동남지방통계청 2023)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경우가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남은 경우에 비해, 30~34세 미혼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대학교 졸업비율은 떠난 경우에서 8.4% 높게 나타남
- 주거와 교통의 경우는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남은 청년이 주거 점유형태, 거주주택유형, 1인당 거주면적, 통근시간에 있어 더 좋은 환경에 거주하고 있음
- 취업자 비율은 떠난 청년의 경우가 더 높은 반면, 장시간 근로 경험 역시 떠난 청년이 높아서 노동의 기회가 많지만, 노동 강도도 높음을 볼 수 있음
- 연간 총소득이나 금융재산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경우가 높은데, 총부채 역시 높은 경향을 보임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영역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그룹이 남은 청년 그룹에 비해 주관적 건강평가, 번아웃 경험, 삶의 행복감이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남
- 가족형성 영역에서 향후 결혼 계획은 떠난 그룹이 남은 청년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난데 비해,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은 남은 그룹이 높게 나타남
- 평균 초혼 연령은 남은 그룹이 더 낮았고, 평균 총 출생아 수도 남은 그룹이 더 높은 결과가 나옴

자료: 동남지방통계청. (2023).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의 청년의 삶의 질 비교

[그림 2-5]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의 청년의 삶의 질 비교

▌지역 청년 인구 관련 연구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관한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청년들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 소멸 위험은 저출산과 연관이 있지만, 실제 출산율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대비 비수도권이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이 아닌 청년층의 인구 이동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됨(이대응 2023)

○ 이동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수준을 비롯하여, 문화시설, 교육 등의 생활여건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됨

○ 김유현(2021)은 16개 시·도간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청년 인구 이동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과 임금수준으로 나타나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기회, 문화시설 접근성 등의 생활여건이 중요한 요인임을 분석함

○ 그러나 지방 청년들의 다차원적 빈곤도가 높은 반면, 주관적 행복도는 높다는 연구에서, 이러한 높은 행복이 실제 삶의 만족보다는 현재의 빈곤과 지역 삶에 대한 체념적 수용에 기반한다는 연구(이순미 2018)는 정서적 만족도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함을 보임

○ 유사하게, 김민석·강민규(2023)의 비수도권 청년 유출 영향요인 분석 연구에서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떠나고 있음을 보임

○ 인구이동에 관련되어 지역을 특정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일자리 상황에 따른 분석 결과와 제언을 볼 수 있음

○ 광주·전남 지역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한 연구는 이 지역의 인구 유출은 주로 20대에서 발생하고,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의 질과 고용여건에 따라 인구 유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임(이찬영·문제철 2016)

○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청년의 유출입 특성 및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대학진학을 위한 1차 유출과 취업을 위한 2차 유출로 분석하였는데, 1차 유출 청년의 특성은 여학생, 연령이 많을수록, 특목고 졸업생인 경우,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유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차 유출의 결정요인은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4년제 대학, 국·공립대, 성적이 높을수록, 기업 규모가 크고 임금이 높을 때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확률이 높아짐(문영만·류장수 2020)

○ 이영석·송선혜(2020)의 연구는 고졸 취업자의 경우에 집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의 청년 인구 전출 억제 효과와 지역산업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함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높은 지역 인재가 유출되는 경향이 높고, 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청년 노동력 유출이 높게 나타남. 또한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지역이동 가능성이 달라져,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 지역 정착 가능성이 높음을 밝힘

○ 청년여성들의 유출에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자리 외에도 지역 정주를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 교육, 문화, 자치활동 등에 대해서 면접조사 등이 수행되고 그에 대한 분석이 제시됨

○ 충북지역 청년여성들의 유출현황에 대한 연구에서는 충북 정주 경험을 가진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타지로 이주했다가 충북으로 귀환한 경우를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지역이동의 경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 제언이 이루어짐(황경란·정의솔 2023)

○ 경남 및 울산지역 청년 여성 유출관련 연구에서, 이들은 직업, 교육의 이유로 경남을 떠나고, 경남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가족 관련 이유로 돌아오는 경향을 보이며, 청년정책의 5대 영역과 여성 생애주기를 고려한 문항으로 설문과 초점면접을 실시하여, 분야별 사업 방안을 제언함(박지영 외. 2022, 김혜정 외. 2022)

○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기존의 취업과 창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영역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을 복지의 대상으로 설정한 점이나, 일자리, 복지, 주거 등에 있어 젠더적 차이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점은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는 연

구(김수아 2021)도 있어, 청년, 지역의 청년, 지역의 청년 여성을 바라보는 교차적 관점이 어떤 식으로 재구성되어 주체를 구성하고, 그 주체의 요구와 필요성을 만들지에 대한 중첩적인 접근이 필요

○ 지방 여성청년의 지방에서 살아가기로 한 선택을 연구한 논문(여수연 2021)에서 수도권에 대한 공간 재구성, 지역 정착을 위한 기회 발굴,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 개인의 능동적 선택으로서의 가족과의 관계 구성을 통해 지방 여성청년의 적극적 행위자성을 보여줌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현황

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이동 현황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삶 : 청년삶실태조사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현황

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인구 현황 및 전망

○ 2023년 기준 전국 총인구는 51,325,329명이며 성비는 99.2로 남성인구보다 여성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50년의 인구 전망을 확인한 결과 총인구는 47,358,532명으로 2023년 대비 약 7.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0.3%였으나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감률 전망은 -0.3%로 한국 사회의 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 17개 시도 중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연평균 2.1%의 인구가 증가한 경기도로 나타남. 반면 동기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0.7%)였음.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인구증감률 전망을 예측할 때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연평균 2.7%)와 경기도(연평균 0.2%), 제주특별자치도(연평균 0.1%)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3년 기준 총인구는 1,754,757명이며 성비는 99.1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2050년의 인구 전망을 살펴볼 때 총인구는 1,493,464명으로 예측되며 2023년 대비 약 14.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감소세가 높을 것으로 보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평균 인구 증감률을 확인한 결과 -0.5%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에 이어 17개 시도 중 3번째로 인구감소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감률 전망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연평균 0.6%의 인구감소가 예측되는데 울산광역시(연평균 -0.9%), 부산·대구광역시(연평균 -0.8%)에 이어 서울·광주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4번째로 높은 감소세가 예상됨

- 전국 총인구 중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이며 장래인구추계를 통한 2050년 인구구성비는 약 3.2%로 감소할 것이 예상됨

[표 3-1] 시도별 인구현황 및 전망

(단위 : 명, %)

구분	인구 (2023)	성비	인구 전망 (2050)	성비	인구증감률 ('00~'23)	2050년 인구증감률 전망 ('20~'50)	2023년 인구구성비	2050년 인구구성비 전망
전국	51,325,329	99.2	47,358,532	98.5	0.3	-0.3	100.0	100.0
서울	9,386,034	93.7	7,918,861	91.2	-0.4	-0.6	18.3	16.7
부산	3,293,362	95.1	2,512,270	92.3	-0.6	-0.8	6.4	5.3
대구	2,374,960	96.6	1,807,068	94.5	-0.3	-0.8	4.6	3.8
인천	2,997,410	100.0	2,813,782	98.2	0.8	-0.2	5.8	5.9
광주	1,419,237	97.6	1,213,098	98.2	0.1	-0.6	2.8	2.6
대전	1,442,216	99.5	1,246,836	98.2	0.2	-0.5	2.8	2.6
울산	1,103,661	105.7	844,246	105.1	0.3	-0.9	2.2	1.8
세종	386,525	99.2	630,780	101.5	22.0	2.7	0.8	1.3
경기	13,630,821	101.2	14,353,146	99.8	2.1	0.2	26.6	30.3
강원	1,527,807	101.2	1,481,582	100.2	-0.1	-0.1	3.0	3.1
충북	1,593,469	103.5	1,604,743	105.1	0.3	-0.1	3.1	3.4
충남	2,130,119	105.1	2,191,231	106.9	0.5	0.0	4.2	4.6
전북	1,754,757	99.1	1,493,464	99.6	-0.5	-0.6	3.4	3.2
전남	1,804,217	101.7	1,522,919	104.4	-0.7	-0.5	3.5	3.2
경북	2,554,324	102.1	2,256,705	102.8	-0.4	-0.5	5.0	4.8
경남	3,251,158	101.4	2,769,334	101.3	0.2	-0.6	6.3	5.8
제주	675,252	100.2	698,467	97.5	1.1	0.1	1.3	1.5

주: 1) 인구증감률은 기간 중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장래인구추계」,KOSIS 국가통계포털

○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의 인구현황 및 향후 전망을 확인한 결과,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 시군의 총인구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남원시 순으로 많은 반면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순으로 인구가 적었음

- 2023년 기준 성비는 남원시가 96.3, 전주시가 96.5, 순창군이 96.8로 낮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임실군이 106.0, 완주군이 105.4, 진안군이 104.4로 높아 남성인구가 더 많았음

○ 전북자치도 시군 장래인구추계를 통하여 2040년 인구 전망을 확인한 결과, 2020년

대비 2040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익산시(-14.4%)였으며, 김제시(-12.5%), 부안군(-12.2%), 정읍시(-12.0%)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인구 구성비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가 36.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자치도 총인구의 81.8%가 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시지역 집중도가 매우 높았음. 2040년의 전망으로는 81.3%가 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됨

[표 3-2]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현황 및 전망

(단위 : 명, %)

구분	인구 (2023)	성비	인구 전망 (2040)	성비	인구증감률 ('00~'23)	2040년 인구증감률 전망 ('20~'40)	2023년 인구구성비	2040년 인구구성비 전망
전북	1,754,757	99.1	1,604,940	100.0	-0.5	-0.6	100.0	100.0
전주시	642,727	96.5	605,391	96.1	0.2	-0.4	36.6	37.7
군산시	259,980	102.7	236,549	102.3	-0.3	-0.6	14.8	14.7
익산시	270,036	99.1	231,037	100.0	-0.8	-1.0	15.4	14.4
정읍시	103,620	99.3	91,157	102.9	-1.4	-0.8	5.9	5.7
남원시	76,781	96.3	70,851	99.3	-1.1	-0.5	4.4	4.4
김제시	81,430	99.6	71,272	102.3	-1.3	-0.6	4.6	4.4
완주군	97,827	105.4	88,062	107.5	0.7	-0.4	5.6	5.5
진안군	24,465	104.4	24,878	110.3	-0.9	0.3	1.4	1.6
무주군	23,251	100.1	23,088	106.3	-0.9	0.1	1.3	1.4
장수군	20,983	100.8	19,973	105.2	-1.3	-0.2	1.2	1.2
임실군	25,956	106.0	26,885	108.0	-1.3	0.1	1.5	1.7
순창군	26,764	96.8	24,574	99.6	-1.0	-0.4	1.5	1.5
고창군	51,750	99.6	48,047	103.3	-1.3	-0.5	2.9	3.0
부안군	49,187	99.2	43,176	101.7	-1.5	-0.6	2.8	2.7

주: 1) 인구증감률은 기간 중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2020~2040년 전라북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구조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00년대에 전체 인구의 20.0%를 구성하던 유소년인구(0~14세)는 2023년 10.4%로 약 9.5%가 감소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69.7%에서 2023년 65.4%로 약 4.3% 감소하였음. 반면 65

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2000년에는 인구 3계층 중 가장 낮은 10.3%의 구성비를 보였으나 2023년 24.1%로 약 13.8%가 증가하였음

- 유소년인구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익산시로 2000년에 총인구의 약 21.8%를 구성하던 유소년인구는 2023년에 10.0%로 약 11.9%p가 감소하였으며 정읍시(-10.9%p), 전주시(-10.6%p) 등의 지역에서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짐

- 생산가능인구는 동기간 전주시에서는 단 0.5%p만이 감소한 반면, 임실군은 14.4%p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고창군 -13.7%p, 진안군 -13.4%p 등 군지역에서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시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고령인구는 2000년 대비 2023년 구성비가 모든 시군에서 적게는 10%p 이상, 많게는 20%p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고창군(21.7%p), 장수군(21.5%p), 부안군(21.4%p), 임실군(21.3%p)의 증가율이 높았음

[표 3-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구조 변화

(단위 : %, %p)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2000	2023	증감	2000	2023	증감	2000	2023	증감
전북	20.0	10.4	-9.5	69.7	65.4	-4.3	10.3	24.1	13.8
전주시	22.7	12.1	-10.6	71.1	70.5	-0.5	6.2	17.4	11.2
군산시	20.5	11.3	-9.1	71.4	66.7	-4.7	8.1	21.9	13.9
익산시	21.8	10.0	-11.9	69.6	67.1	-2.6	8.6	23.0	14.4
정읍시	19.7	8.8	-10.9	67.1	60.4	-6.7	13.2	30.8	17.6
남원시	18.3	9.0	-9.4	68.1	59.6	-8.5	13.6	31.4	17.9
김제시	15.8	7.8	-8.0	69.0	57.8	-11.1	15.2	34.3	19.1
완주군	16.7	10.9	-5.8	70.2	64.4	-5.8	13.1	24.7	11.6
진안군	13.8	6.7	-7.0	68.1	54.7	-13.4	18.2	38.6	20.4
무주군	15.7	7.1	-8.6	67.0	56.1	-10.9	17.3	36.8	19.5
장수군	17.0	7.4	-9.6	66.2	54.3	-11.8	16.8	38.3	21.5
임실군	13.8	6.9	-6.9	67.6	53.2	-14.4	18.6	39.9	21.3
순창군	13.9	7.5	-6.4	66.9	55.9	-11.0	19.1	36.5	17.4
고창군	15.4	7.4	-8.0	67.9	54.2	-13.7	16.7	38.3	21.7
부안군	15.7	7.2	-8.5	68.5	55.7	-12.9	15.8	37.1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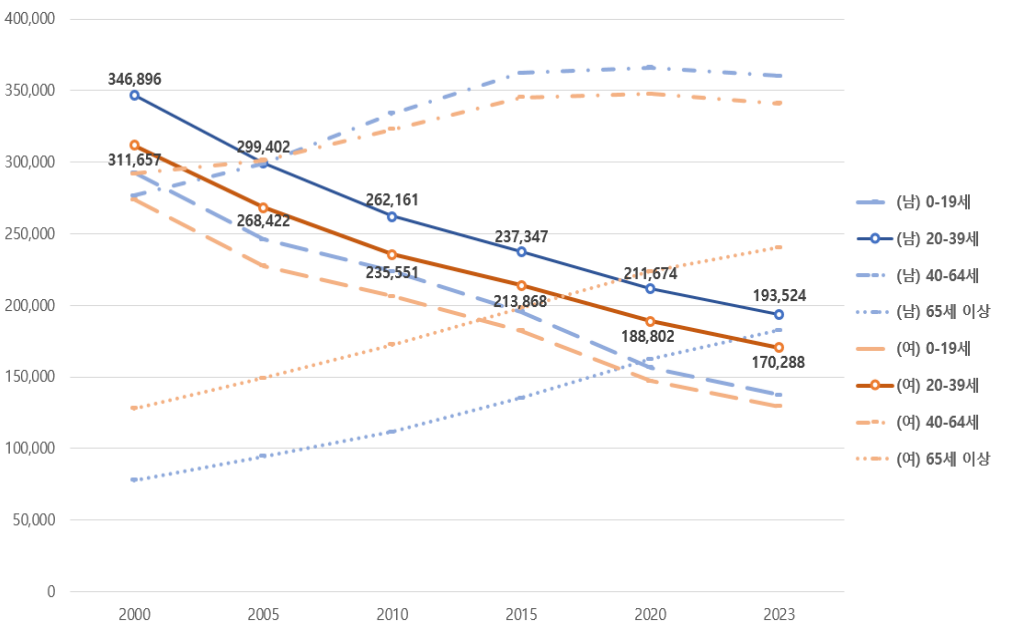
주: 1) 인구증감률은 기간 중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2020~2040년 전라북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현황

○ 2000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단위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의 증감추세를 확인한 결과, 20~39세 청년인구의 뚜렷한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연령대별 인구증감 추이는 0~19세 유·청소년, 20~39세 청년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40~64세의 중장년인구는 2015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정체 및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20~39세 청년인구의 감소를 성별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2000년 대비 2023년의 감소율은 남성 44.2% 감소, 여성 45.4% 감소로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폭이 더 크며,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의 감소폭을 확인 해봐도 남성(-8.6%)보다 여성(-9.8%)의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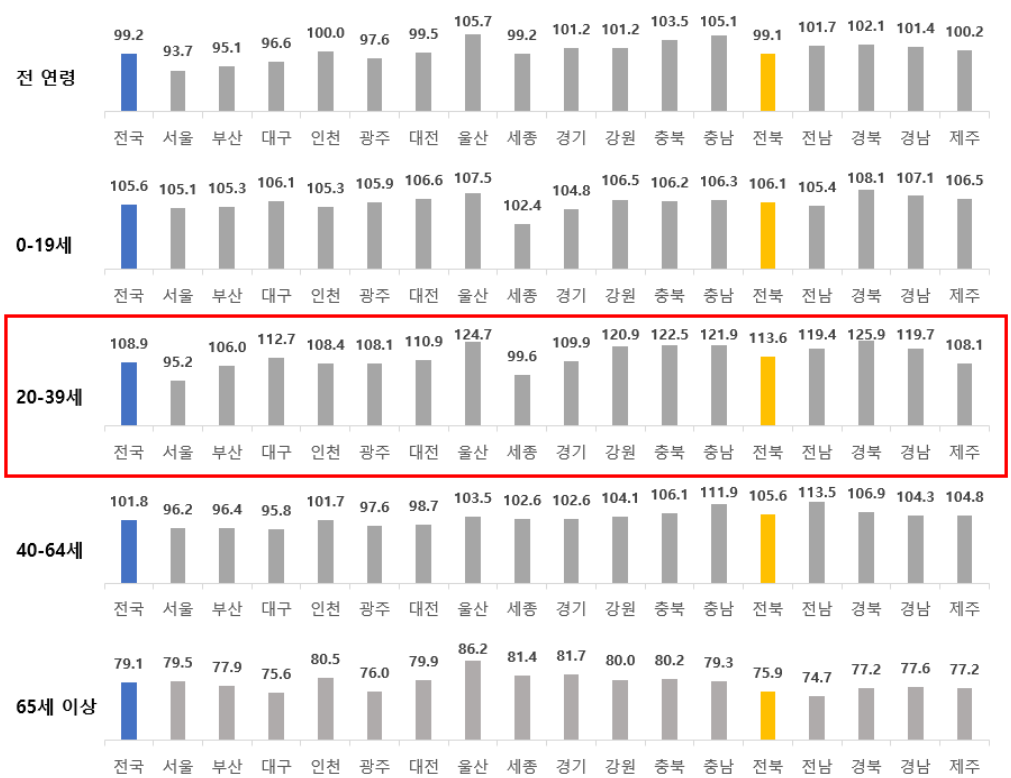
[그림 3-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 전국 17개 시도의 연령대별 성비를 비교한 결과, 전체 인구에 대한 성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국 평균이 비슷한 수준이나 특히 청년인구(20~39세)의 경우 전북자치도의 성비가 113.6으로 전북자치도 내 전 연령대와 비교해도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108.9)보다도 약 4.7이 높아 남성 대비 여성인구가 적음을 알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0~19세 유·청소년 인구의 성비는 106.1로 전국 평균인 105.6보다 약간 높았으며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높아 중간 정도의 수준에 위치함

- 중장년층인 40~64세 인구의 성비는 105.6으로 전국 평균인 101.8보다 약 3.8 정도 높았으며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음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성비는 75.9로 전국 평균보다 약 3.2 정도 낮으며 전남,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노인인구의 성비가 낮음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2] 시도별 연령대별 성비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 성별 비중을 확인한 결과 20~39세 청년인구 중 남성인구는 52.1%, 여성인구는 47.9%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약 4.2%p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도내 14개 시군 중 청년인구의 성별 비중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지역은 임실군으로 전체 청년인구 중 남성 청년이 56.3%, 여성 청년이 43.7%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약 12.6%p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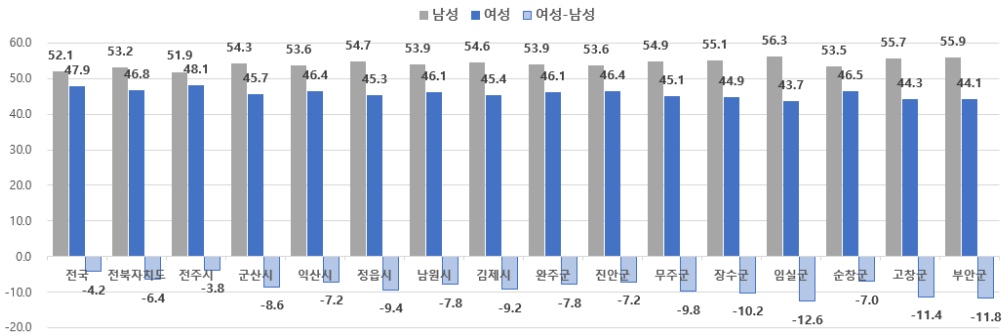
- 임실군과 더불어 부안군(-11.8%p), 고창군(-11.4%p), 장수군(-10.2%p)의 여성 청년인구 비중이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전체 청년인구 중 남성이 51.9%, 여성이 48.1%로 여성과 남성 인구비중의 차이는 -3.8%p에 불과함

[표 3-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청년인구 성별 비중(2023)

(단위 : 명, %, %p)

	인구수			비중		
	총인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남성
전국	12,773,034	6,657,829	6,115,205	52.1	47.9	-4.2
전북	363,812	193,524	170,288	53.2	46.8	-6.4
전주시	162,057	84,139	77,918	51.9	48.1	-3.8
군산시	52,856	28,679	24,177	54.3	45.7	-8.6
익산시	57,892	31,051	26,841	53.6	46.4	-7.2
정읍시	17,097	9,352	7,745	54.7	45.3	-9.4
남원시	11,944	6,439	5,505	53.9	46.1	-7.8
김제시	13,217	7,213	6,004	54.6	45.4	-9.2
완주군	19,619	10,571	9,048	53.9	46.1	-7.8
진안군	3,018	1,617	1,401	53.6	46.4	-7.2
무주군	2,982	1,638	1,344	54.9	45.1	-9.8
장수군	2,565	1,413	1,152	55.1	44.9	-10.2
임실군	3,379	1,904	1,475	56.3	43.7	-12.6
순창군	3,609	1,930	1,679	53.5	46.5	-7.0
고창군	6,788	3,780	3,008	55.7	44.3	-11.4
부안군	6,789	3,798	2,991	55.9	44.1	-11.8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청년인구 성별 구성비

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이동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유입 및 전출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20~39세 청년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인구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는 전입 24,236명, 전출 31,351명으로 7,115명이 유출되었음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전입 전출 현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부분 성별 유출 수준이 비슷하거나 남성의 유출이 조금 더 많았음

- 2000년은 여성(7,780명)보다 남성(9,950명)의 유출이 2,170명 많았으며 2005년은 남성(8,600명)보다 여성(8,686)의 유출이 86명 많았음. 2010년. 2015년, 각각 여성보다 남성의 유출이 44명, 863명 많았으며, 2020년에는 남성(4,919명)보다 여성(5,249명)의 유출이 330명 더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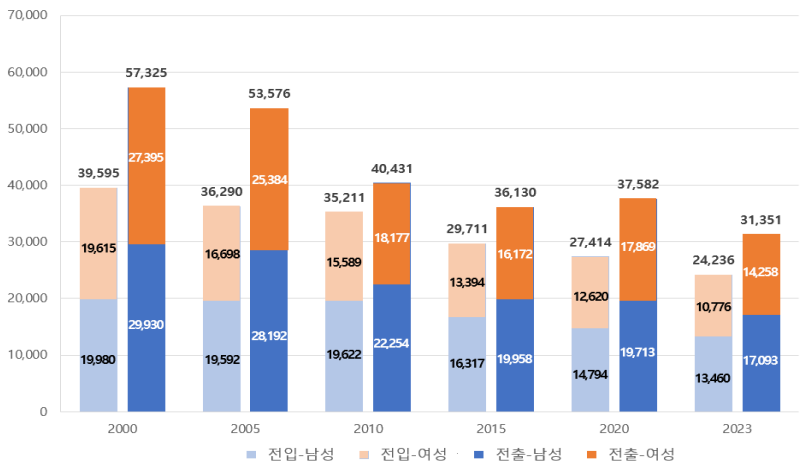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는 남성이 3,633명, 여성이 3,482명 유출되었음

[표 3-5] 전북특별자치도 성별 청년인구(20~39세)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순이동
2000	계	39,595	57,325	-17,730
	남성	19,980	29,930	-9,950
	여성	19,615	27,395	-7,780
2005	계	36,290	53,576	-17,286
	남성	19,592	28,192	-8,600
	여성	16,698	25,384	-8,686
2010	계	35,211	40,431	-5,220
	남성	19,622	22,254	-2,632
	여성	15,589	18,177	-2,588
2015	계	29,711	36,130	-6,419
	남성	16,317	19,958	-3,641
	여성	13,394	16,172	-2,778
2020	계	27,414	37,582	-10,168
	남성	14,794	19,713	-4,919
	여성	12,620	17,869	-5,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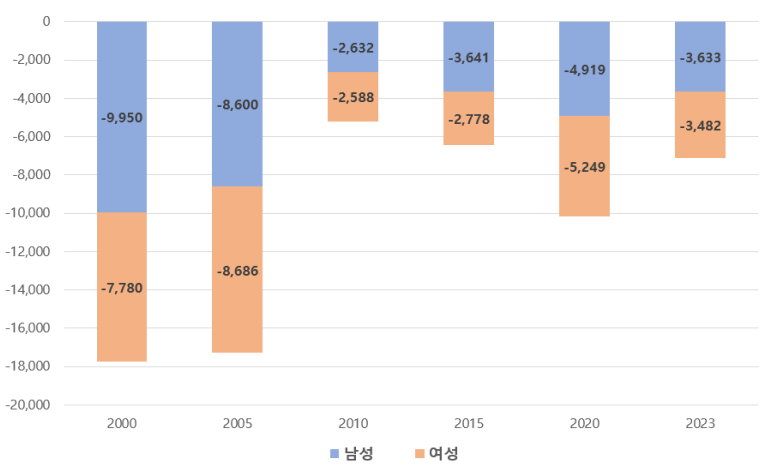
		전입	전출	순이동
2023	계	24,236	31,351	-7,115
	남성	13,460	17,093	-3,633
	여성	10,776	14,258	-3,482

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4] 전북특별자치도 성별 청년인구 전입 전출 추이



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5] 전북특별자치도 성별 청년인구 순이동 추이

○ 청년인구의 인구 순이동 현황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20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입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0대의 경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로의 인구 유입 규모가 크게 나타남

○ 전북자치도 청년인구 순이동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20~24세 3,850명 유출, 25~29세 2,546명 유출, 30~34세 658명 유출, 35~39세 61명 유출로 나타나 청년세대의 유출은 특히 대학 졸업 후 입직이 이루어지는 20대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20~24세 인구의 유출이 2,754명으로 전체 청년인구 유출의 과반이 넘는 69.2%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25~29세 인구가 2,013명으로 가장 많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군 입대로 인해 남성의 대학 졸업 및 입직이 여성보다 늦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표 3-6] 연령대별 성별 순이동 현황(2023)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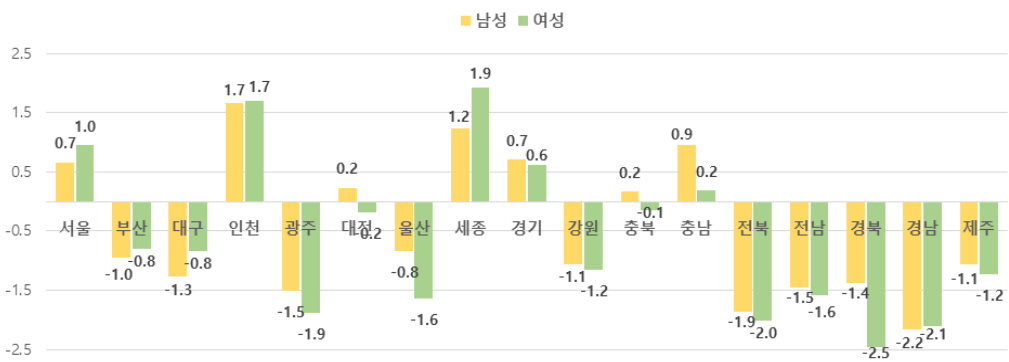
	남성				여성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서울	9,980	9,963	-4,311	-6,590	19,260	7,002	-6,833	-5,755
부산	985	-3,348	-1,020	-425	562	-2,097	-1,158	-301
대구	-1,600	-2,598	-94	453	-1,488	-1,402	62	596
인천	456	1,201	2,165	2,907	822	1,178	2,068	2,294
광주	-729	-1,317	-595	-247	-1,134	-1,186	-761	-267
대전	1,202	-123	-230	-371	326	-232	-247	-171
울산	-1,021	-79	-28	-86	-1,378	-399	-31	-124
세종	-217	229	466	131	-44	534	307	149
경기	1,999	3,326	4,405	3,448	1,145	579	5,772	3,123
강원	-466	-1,280	-224	96	-1,636	-166	71	17
충북	-91	61	237	141	-995	146	369	237
충남	-307	1,089	869	843	-1,436	384	826	629
전북	-1,654	-1,586	-315	-78	-2,196	-960	-343	17
전남	-1,945	-1,197	15	337	-2,485	-610	356	186
경북	-1,447	-1,427	-630	-418	-3,661	-1,214	-330	-452
경남	-4,529	-2,567	-665	-296	-4,881	-1,299	-206	-225
제주	-616	-347	-45	155	-781	-258	78	47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 시도별 청년인구 순이동률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순이동률이 1 이상이었으며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경우 세종과 충남의 순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도권에서 청년인구 순이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약 1.7%의 순유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의 경우 여성 청년인구 중 1.9%의 순유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남성의 순이동률은 -1.9%로 남성 청년인구의 1.9%가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순이동률은 -2.0%로 여성 청년인구의 2.0%가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의 유출률이 조금 더 높았음



주 : 인구 순이동률(%) : 인구 백 명당 순이동자수 = 순이동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6] 시도별 청년인구 순이동률(2023)

○ 전북특별자치도 순이동자의 이동 지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가 3,42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723명, 대전광역시 849명 순으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전체 순이동의 63.3%를 차지함

-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은 서울특별시가 40.2%(1,669명), 경기도가 25.1%(1,042명), 대전광역시 8.9%(371명), 충청남도 7.5%(311명)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서울특별시가 44.1%(1,756명)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경기도 17.1%(681명), 대전광역시 12.0%(478명), 광주광역시 7.1%(282명) 순으로 나타남

[표 3-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20~39세) 순이동자의 이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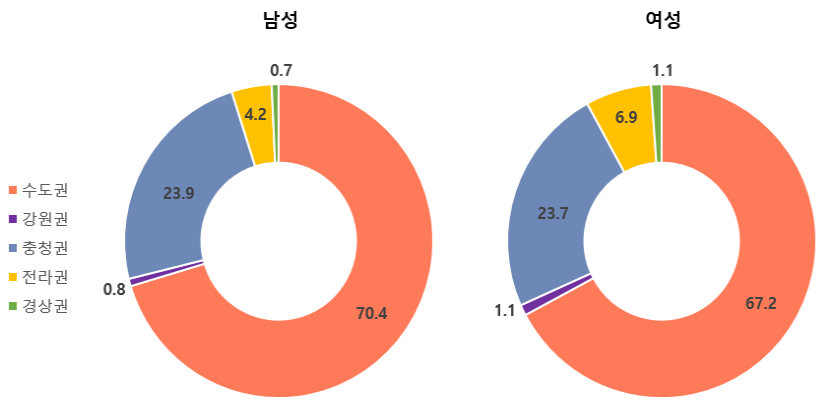
	계	남성	여성
전국	8,127	4,147	3,980
서울특별시	3,425	1,669	1,756
부산광역시	67	36	31
대구광역시	-6	-5	-1
인천광역시	445	207	238
광주광역시	419	137	282
대전광역시	849	371	478
울산광역시	7	-15	22
세종특별자치시	257	113	144
경기도	1,723	1,042	681
강원특별자치도	74	32	42
충청북도	316	198	118
충청남도	516	311	205
전라남도	28	24	4
경상북도	48	34	14
경상남도	-41	-20	-21
제주특별자치도	0	13	-13

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권역별 유출 비중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충청권과 전라권이 그 뒤를 이음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순이동자 중 수도권으로 유출 비중이 70.4%에 달하였으며, 충청권은 23.9%, 전라권 4.2%, 강원권 0.8%, 경상권 0.7%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는 수도권으로의 유출 비중이 67.2%로 남성보다 다소 낮았으며, 충청권 23.7%, 전라권 6.9%, 강원권과 경상권이 각각 1.1% 순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수도권보다 전북자치도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권역별 유출 비중(2023)

○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1]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2]의 전입사유를 확인한 결과 직업 사유가 38.5%로 가장 높았고, 가족 33.8%, 교육 12.2%, 주택 6.6% 순으로 전입 사유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직업 35.8%, 가족 33.7%, 교육 17.1%, 기타 5.6%, 주택 5.4% 순으로 전입 사유를 선택하였으며 30대의 경우 직업 44.3%, 가족 34.1%, 주택 9.1%, 기타 7.2% 순으로 전입 사유를 선택하여 20대가 30대보다 교육으로 인한 전입 비중이 높았고, 30대가 20대에 비해 직업과 가족, 주택에 의한 전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입사유 중 직업의 비중이 42.4%로 가장 높았고, 가족 29.5%, 교육 12.2%, 주택 6.9% 순으로 비중이 나타난 반면 여성은 가족의 비중이 39.6%로 가장 높았고, 직업 33.3%, 교육 12.1%, 주택 6.2% 순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청년 1인가구의 전출사유를 확인한 결과 직업 사유가 54.1%로 과반 이상이었고, 가족 19.%, 교육 13.3%, 주택 6.3% 순으로 전출 사유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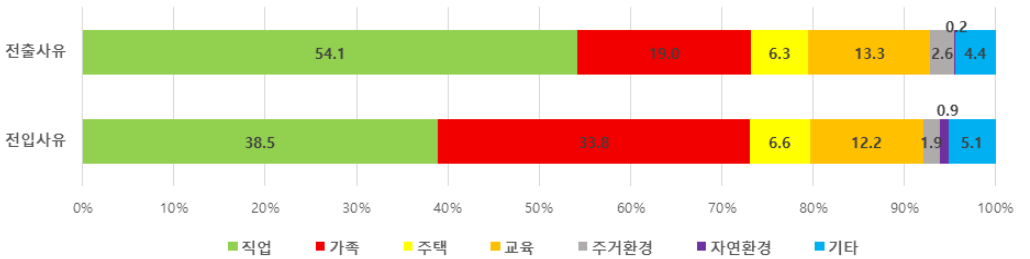
1) 전북특별자치도 내 이동은 제외함

2)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전입사유는 가구별로 이동할 경우 가구대표자가 선택한 이동사유가 전체 가구원의 이동사유가 됨으로 청년인구의 실질적인 전입/전출 사유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년세대의 실질적인 전입/전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 1인가구의 전입/전출 사유에 대해 확인함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직업 53.3%, 교육 17.7%, 가족 17.1%, 주택 5.3% 순으로 전출 사유를 선택하였으며 30대의 경우 직업 56.3%, 가족 24.2%, 주택 9.3%, 기타 5.5% 순으로 전출 사유를 선택하여 20대가 30대보다 교육으로 인한 전출 비중이 높았고, 30대가 20대에 비해 직업과 가족, 주택에 의한 전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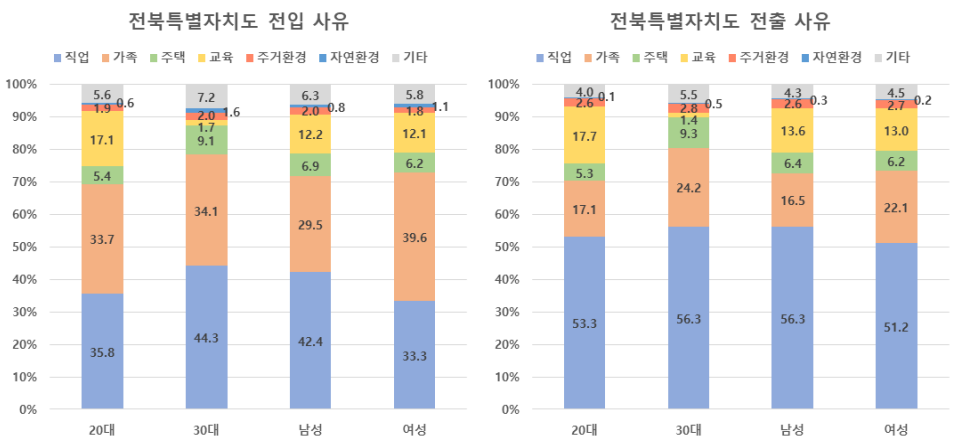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출사유 중 직업의 비중이 56.3%로 가장 높았고, 가족 16.5%, 교육 13.6%, 주택 6.4% 순으로 비중이 났고 여성 역시 직업의 비중이 51.2%로 가장 높았고, 가족 22.1%, 교육 13.0%, 주택 6.2% 순으로 나타남

○ 20대 청년들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전출 사유 비중을 비교해보면, 직업에 의한 전출 비중은 과반인 54.1%인데 반해 직업으로 인한 전입은 38.5%에 불과하여 큰 차이가 나타남



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그림 3-8] 1인 청년인구 전북특별자치도 전출/전입 사유(2023)



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그림 3-9] 1인 청년인구 인구특성별 전북특별자치도 전출/전입 사유(2023)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삶 : 청년삶실태조사

○ 청년삶실태조사는 청년 삶의 실태와 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2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통계자료이며 공표주기는 2년임

○ 2022년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일반가구 내 만 19~34세 가구원과 가구원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후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14,966케이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720케이스가 조사됨

- 원자료 분석 시 설계가중치 적용

○ 전북특별자치도 응답 표본은 남성 응답자가 43.9%(316명), 여성 응답자가 56.1%(404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19~24세 50.6%(364명), 25~29세 27.1%(195명), 30~34세 22.4%(161명)로 나타남

가. 주거

○ 청년의 부모와 동거 여부는 동거가 59.6%, 비동거가 40.4%로 부모와 동거상태인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전북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59.0%, 동거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1.0%로 비수도권 평균보다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약간 더 높았음

○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에게 향후 독립 계획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북 청년 중 독립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7.6%로 전국(31.5%), 수도권(31.1%), 비수도권(32.0%)의 응답률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독립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 대비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학교/직장 등과 가까워서' 응답 비중이 높았음

○ 현재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직장, 학교 등이 멀어서' 응답률이 과반 이상이었으며 '결혼/동거 중이어서', '경제적 여건을 갖춰서'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남

[표 3-8] 부모 동거 여부 및 독립계획, 비동거 이유

(단위 : %)

	부모 동거 여부		(동거시) 독립 계획		(비동거시) 비동거 이유				
	동거	비동거	있음	없음	직장,학교 등이 멀어서	결혼/동거 중이어서	경제적 여건을 갖춰서	가족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타
전국	59.6	40.4	31.5	68.5	55.4	23.9	15.5	2.3	2.8
수도권	60.9	39.1	31.1	68.9	58.6	20.6	15.2	2.6	3.0
비수도권	58.1	41.9	32.0	68.0	52.0	27.5	16.0	2.0	2.6
전북	59.0	41.0	37.6	62.4	51.8	24.8	15.4	1.8	6.2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현재 청년이 살고 있는 주택의 주거 명의는 부모가 64.3%로 가장 높았고, 본인 혹은 배우자 32.1%, 기타 3.6%로 나타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아니나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부모님 명의 비율이 높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본인 혹은 배우자의 명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남. 전북의 경우 부모의 명의라는 응답률이 65.4%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주거 명의를 청년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했을 때 주택 점유 형태는 전국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가 45.2%로 가장 높았고, 전세 31.9%, 자가 17.1%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주택 점유형태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가 비율의 경우 수도권은 3.6%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은 21.0%로 자가 보유 비율이 약 6배 높게 나타남. 전북의 경우 자가가 24.4%, 전세 18.9%, 보증금 있는 월세 48.4%로 자가 비율이 비수도권 평균보다도 약 3.4%p 높게 나타남

- 주거명의가 부모 혹은 기타인 경우 자가와 전세의 비율이 85%에 육박하는 반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경우 자가와 전세 비중이 49% 수준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해 청년의 주택 점유 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9] 주거 명의 및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

	주거 명의				(명의 본인&배우자 한정) 주택 점유 형태					
	부모	본인	배우자	기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무상거주
전국	64.3	26.7	5.4	3.6	17.1	31.9	45.2	2.9	2.0	0.9
수도권	64.7	27.2	4.1	4.0	3.6	38.2	44.1	3.4	0.2	0.5
비수도권	63.9	26.2	6.8	3.1	21.0	24.9	46.4	2.4	3.9	1.4
전북	65.4	25.8	5.8	3.0	24.4	18.9	48.4	1.7	6.2	0.5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거주지역 주거환경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대중교통, 생활인프라, 방범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수도권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생활인프라(3.96점)와 방범상태(3.92점), 녹지공간(3.89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전북의 경우 교육환경(3.79점)과 이웃간의 관계(3.59점)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높았음

[표 3-10] 거주지역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점)

	생활 인프라	대중교통	방범 상태	위생 환경	녹지 공간	문화/부대시설	교육환경	이웃과의 관계
전국	3.89	3.85	3.95	3.86	3.90	3.60	3.69	3.57
수도권	3.96	3.94	4.01	3.89	3.95	3.66	3.73	3.57
비수도권	3.81	3.74	3.87	3.82	3.85	3.52	3.64	3.57
전북	3.96	3.79	3.92	3.83	3.89	3.65	3.79	3.59

주 : 매우 불량(1점) ~ 매우 양호(5점) 5점 척도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자금대출 36.8%, 전세자금 대출 24.0%, 주거비 지원 20.3%, 공공임대 입주 13.4%,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3.8%, 임대차 분쟁발생 시 조정 지원 0.9%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전세자금 대출 응답률이 2.8%p 높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2.2%p 높았음.

○ 전북의 경우 주택자금 대출 32.1%, 주거비 지원 24.7%, 공공임대 입주 18.8%, 전세자금 대출 15.8%,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7.0%, 임대차 분쟁발생 시 조정 지원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고,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입주,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

[표 3-11]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순위)

(단위 : %)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	민감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기타
전국	24.0	36.8	20.3	13.4	3.8	0.9	0.8
수도권	25.3	35.8	19.7	14.4	3.1	0.8	0.9
비수도권	22.5	38.0	20.9	12.1	4.6	1.1	0.8
전북	15.8	32.1	24.7	18.8	7.0	1.1	0.5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4%가 거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4.6%는 거주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의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의사가 높았으며 전북 청년은 68.9%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수도권 지역 청년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자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가 주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자산증식 및 보전', '사회적 분위기',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압박이 없어서', '노후 보장을 위해'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3-12]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및 자기주택 필요성 여부

(단위 : %)

	공공임대주택		자가주택 필요성		자가 주택 소유 필요한 이유						
	거주의향 있음	거주의향 없음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임대료 상승압박이 없어서	이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자산증식 및 보전	사회적 분위기	내 마음대로사용하기위해	노후 보장을 위해	기타
전국	65.4	34.6	89.5	10.5	11.6	30.8	21.5	13.6	12.0	9.7	0.7
수도권	68.1	31.9	88.9	11.1	12.0	31.2	23.8	11.8	10.0	10.3	0.9
비수도권	62.2	37.8	90.2	9.8	11.1	30.4	18.9	15.7	14.3	9.1	0.5
전북	68.9	31.1	91.6	8.4	8.0	29.3	23.0	14.7	13.2	10.9	1.0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현재 거주지역에 계속 거주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1.2%는 계속 살고 싶다고 하였으며 28.8%는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함.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청년에게서 현재 거주지역에 지속거주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의 경우 청년의 56.6%만이 현재 거주지역의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43.4%는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하여 비수도권 평균보다도 지속거주하겠다는 응답률이 11.0%p 낮았음

○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은 일자리 기회, 구직을 위해' 응답률이 31.0%로 가장 높았고,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20.6%,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17.0%, '통학·통근 어려움 해결'이 13.6%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 청년들에게는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25.6%로 가장 높았으며, '통학·통근 어려움 해결'이 23.1%,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1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더 나은 일자리 기회, 구직을 위해' 타 시도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25.3%로 뒤를 이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더 나은 일자리기회, 구직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약 34.0%p, 3배 이상 높았으며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률은 약 9.8%p 높았음. 반면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통학·통근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18.7%p,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16.6%p 높게 나타남

○ 전북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 기회, 구직을 위해' 응답률이 49.0%로 비수도권 청년 평균보다도 더 높았으며,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응답률도 27.4%로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3-13] 현재 거주지역 지속거주 의향 및 지역이동 하고자 하는 이유

(단위 : %)

	지속거주 의사		타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						
	계속 살고 싶다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해	통학·통근 어려움 해결	더 나은 교육 보육, 의료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 기회 구직 위해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가족, 친척 친지가 사는 지역이라
전국	71.2	28.8	4.6	13.6	9.6	31.0	20.6	17.0	2.4
수도권	74.3	25.7	8.6	23.1	10.0	13.4	15.5	25.6	2.1
비수도권	67.6	32.4	1.0	4.7	9.1	47.4	25.3	9.0	2.7
전북	56.6	43.4	0.6	3.3	9.5	49.0	27.4	6.4	3.8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나. 노동

○ 청년의 근로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문항을 조사한 결과,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해도 비슷한 임금의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수도권 청년의 직업 이동에 대한 어려움 인식이 2.44점으로 가장 낮고, 비수도권 청년은 2.58점, 전북 청년은 2.61점으로 전북 청년의 직업 및 직장 이동에 대한 어려움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지 않을 일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수도권 청년들의 직업 지속 불안정성 인식이 2.35점으로 가장 높고, 비수도권 청년들의 인식이 2.28점으로 가장 낮았음. 전북 청년의 직업 지속 불안정성 인식은 2.31점으로 수도권 청년 평균보다는 낮고, 비수도권 청년 평균보다는 높았음

○ '내가 하는 일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일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북 청년들의 인식이 1.91점으로 가장 오염시키지 않는 일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수도권 청년들의 인식이 1.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14] 근로 불안정성 인식

(단위 : 점)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해도 비슷한 임금의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지 않을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일이다
전국	2.50	2.32	1.81
수도권	2.44	2.35	1.78
비수도권	2.58	2.28	1.84
전북	2.61	2.31	1.91

주 : 매우 그렇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5점) 5점 척도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이직/구직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이 48.2%로 가장 높았고, 고용 안정성 11.9%, 장기적 진로설계 9.9%, 근로시간 6.8%, 회사전망 및 정규직이 4.6% 순으로 높게 나타남.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응답률을 비교하면 수도권 청년은 52.0%로 과반이 넘게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수도권보다 8.3%p 낮은 43.7%가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나타남. 반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응답률은 비수도권 청년(14.3%)이 수도권 청년(9.9%)보다 4.4%p 높았음

○ 전북 청년은 임금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47.4%로 가장 높았고, 고용 안정성 13.4%, 장기적 진로설계 9.1%, 근로시간 8.0%, 정규직 5.6%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3-15] 이직/구직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단위 : %)

	임금	근로 시간	고용 안정성	승진 가능성	휴일	인간 관계	회사 전망	장기적 진로설계	스키유트 제의	복지 수준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기타
전국	48.2	6.8	11.9	0.5	3.2	1.8	4.6	9.9	0.2	3.6	2.0	2.3	4.6	0.5
수도권	52.0	5.8	9.9	0.5	2.7	2.0	4.8	11.3	0.2	2.7	1.8	1.6	4.2	0.6
비수도권	43.7	8.0	14.3	0.5	3.8	1.5	4.4	8.2	0.1	4.6	2.3	3.1	5.1	0.3
전북	47.4	8.0	13.4	0.1	3.5	0.8	4.9	9.1	0.2	3.5	0.7	2.2	5.6	0.5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청년들의 위험한 근로 환경에 대한 경험은 ‘감정을 숨기고 고객 응대’가 5점 만점에 2.24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중한 업무’ 2.10점, ‘성과/만족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1.74점,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1.43점,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1.41점, '안전 보호 장비 미비' 1.26점 순으로 나타남

○ 전북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근로 환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감정을 숨기고 고객 응대'는 5점 만점에 2.56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0.3점 이상 높았으며 그 외의 모든 항목에 대한 경험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들의 평균적인 경험보다 높았음

[표 3-16]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단위 : 점)

	과중한 업무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성과/만족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감정을 숨기고 고객 응대	안전 보호 장비 미비
전국	2.10	1.43	1.41	1.74	2.24	1.26
수도권	2.11	1.45	1.41	1.73	2.21	1.27
비수도권	2.07	1.40	1.40	1.74	2.27	1.26
전북	2.21	1.45	1.45	1.84	2.56	1.32

주 : 전혀 하지 않음(1점) ~ 거의 매일(5점) 5점 척도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다. 사회인식 및 미래설계

○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1점 중 6.72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수도권 청년의 만족도가 6.66점으로 가장 낮고, 비수도권 청년 평균과 전북 청년이 6.7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청년들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11점 중 6.87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청년의 행복감이 6.8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비수도권 청년은 6.91점으로 수도권 청년보다 행복감이 높았음. 전북 청년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6.87점으로 수도권 청년보다는 높았지만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서는 약간 낮게 나타남

○ 사회에 대한 신뢰는 11점 만점에 5.22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수도권 청년 평균은 5.18점으로 낮았고, 비수도권 청년 평균은 5.2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전북 청년의 경우 4.87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사회에 대한 신뢰인식이 0.35점 낮음. 한국에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역시 전북 청년의 인식은 7.26점으로 다른 모든 비교군보다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0.33점이 높게 나타남

[표 3-17] 청년들이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행복감	사회에 대한 신뢰	한국의 소득불평등
전국	6.72	6.87	5.22	6.93
수도권	6.66	6.84	5.18	6.96
비수도권	6.79	6.91	5.27	6.90
전북	6.79	6.87	4.87	7.26

주 : 전혀 그렇지 않다(0점) ~ 매우 그렇다(10점) 11점 척도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해서 저출생·고령화가 4점 만점에 3.49점으로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후 변화 3.40점, 기술·산업구조 변화 3.20점, 불평등 3.16점, 테러리즘 3.05점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인식 간에 큰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음

○ 전북 청년의 경우 모든 요소에 대한 중요도의 평가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저출생·고령화가 3.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후 변화 3.43점, 기술·산업구조 변화 3.31점, 불평등 3.26점, 테러리즘 3.16점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함

[표 3-18]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

(단위 : 점)

	불평등	저출생·고령화	기술·산업구조 변화	테러리즘 (국제분쟁, 통일·안보)	기후 변화
전국	3.16	3.49	3.20	3.05	3.40
수도권	3.18	3.50	3.20	3.03	3.43
비수도권	3.12	3.47	3.20	3.08	3.35
전북	3.26	3.58	3.31	3.16	3.43

주 :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4점) 4점 척도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청년들의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요소는 원하는 일자리·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3.44점,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애와 결혼이 각각 2.94점, 2.92점으로 뒤를 이음.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요소는 명예와 권력(2.66점), 높은 학력수준(2.71점) 등으로 나타남

○ 전북 청년의 경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원하는 일자리(3.47점),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3.38점), 연애(2.93점), 결혼(2.90점), 자녀출산과 양육·사회기여(2.85점), 명예와 권력(2.75점), 높은 학력수준(2.71점) 순으로 나타남

[표 3-19]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요소

(단위 : 점)

	연애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	높은 학력수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 많은 자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기여	명예와 권력
전국	2.94	2.92	2.82	2.71	3.44	3.32	3.44	2.84	2.66
수도권	2.96	2.91	2.80	2.73	3.44	3.33	3.46	2.86	2.67
비수도권	2.92	2.93	2.85	2.67	3.44	3.31	3.42	2.82	2.65
전북	2.93	2.90	2.85	2.71	3.47	3.38	3.50	2.85	2.75

주 :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4점) 4점 척도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전혀 실현할 수 없다 4.9%,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 87.5%,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7.6%로 나타남.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청년들에게서 바라는 미래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평가가 높았으며 전북 청년의 경우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이 7.1%로 비수도권 청년 평균과 비교해도 미래 실현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남

- 전북 청년의 바라는 미래 실현 가능성은 전혀 실현할 수 없다 7.1%,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 87.4%,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5.5%로 나타남

○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나의 노력이 4점 만점에 3.55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고,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3.35점, 나의 교육수준 3.13점, 정보의 정책지원 3.11점, 부모의 경제력 2.97점, 부모의 교육수준 2.58점 순으로 나타남

[표 3-20]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실현의 조건

(단위 : %, 점)

	바라는 미래의 실현가능성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					
	전혀 실현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교육수준	나의 교육수준	나의 노력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정부의 정책지원
전국	4.9	87.5	7.6	2.97	2.58	3.13	3.55	3.35	3.11
수도권	4.8	87.3	7.9	2.99	2.60	3.18	3.58	3.38	3.11
비수도권	5.1	87.7	7.2	2.95	2.56	3.07	3.52	3.32	3.12
전북	7.1	87.4	5.5	3.07	2.64	3.14	3.56	3.37	3.16

주 : (실현의 조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4점) 4점 척도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청년들의 향후 결혼 및 자녀계획에 대해 확인한 결과, 미혼자 89.7%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66.6%, 없다는 응답률은 23.1%로 나타남. 기혼자는 수도권 청년(8.7%)보다 비수도권 청년(12.1%)이 더 많았으며 수도권 미혼 청년 91.3%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67.0%, 비수도권 미혼 청년 87.9% 중 결혼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66.2%로 나타남. 전북의 경우 청년이 11.1%가 기혼자였으며 미혼자 88.9%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는 청년은 64.8%, 없다는 청년은 24.2%로 전북이 전국이나 비수도권보다 향후 결혼 계획이 없는 청년 비중이 높았으며 수도권도 비슷한 수준이었음

○ 향후 자녀계획에 대해서는 청년의 62.8%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7.2%는 없다고 응답함. 수도권(60.6%)보다는 비수도권(65.3%) 청년에게서 향후 자녀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청년의 경우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61.0%에 불과하여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남

[표 3-21] 향후 결혼 및 자녀 계획

(단위 : %)

	향후 결혼 계획			향후 자녀 계획	
	비해당(유배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국	10.3	66.6	23.1	62.8	37.2
수도권	8.7	67.0	24.3	60.6	39.4
비수도권	12.1	66.2	21.7	65.3	34.7
전북	11.1	64.8	24.2	61.0	39.0

자료 : 2022 청년삶실태조사, 원자료분석

제4장

전북 청년여성의 유출입 경험 분석

1. 심층면접조사 개요
2. 심층면접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전북 청년여성의 유출입 경험 분석

1. 심층면접조사 개요

○ 심층면접 조사는 2024년 5월 2일에서 2024년 6월 27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경험이 있는 20~40대의 미혼·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함

○ 조사방법은 주로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지만, 대상자에 따라 그룹 면접의 경우도 존재하였고, 각 면접 당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됨

○ 조사대상자는 전북지역에서 출생하여 일정기간 다른 지역에 살다가 전북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전북지역에서 출생하여서 전북지역에 정착한 경우, 타지역 출신으로 전북에 정착한 경우, 전북출신으로 타지역에 정착한 경우 등 전북 외 지역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동의 경험과 이동 결심 사유, 지역 간의 장단점 비교, 정주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이 진행됨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전북에 정주한 경우와 대비되는 이전기관 소속 직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이전기관을 통해 전북에 유입된 경우 전북지역 지속 정주를 위한 가능성과 기대 등에 대한 면담도 진행

○ 전북자치도가 1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군지역에 따른 청년 여성들의 요구와 정책기대 등의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대상자도 포함하여 면접 진행

○ 청년 정주 확대를 위해 일자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전북에 자리를 잡은 경우나 프리랜서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 전북 유입과 정주의 경험을 알기 위해 면접 대상자로 선발함

○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내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나 커뮤니티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함

[표 4-1] 청년여성 심층면접 대상자

연번	연령대	혼인	자녀	직업	지역 거주 경험	동거가족	거주형태	특이사항
1	30대 초반	비혼	무	연구직	고등학교: 전북 20대: 경남, 서울, 전북 30대: 전북	부모	자가	
2	30대 초반	결혼 예정	무	사무직	출생에서 대학: 전북 취업준비: 서울 취업: 전북	이성연인	월세	
3	20대 중반	비혼	무	농업	전북	부모	자가	농촌지역
4	30대 초반	비혼	무	대학원생	출생, 대학, 취업: 전북 대학원: 서울	자취	청년주택	현재 수도권
5	30대 중반	기혼	유	프리랜서	출생: 서울 고등학교: 전북 대학: 경남 취업: 서울, 수도권 현재: 전북	남편, 자녀	전세 (주택 보유)	
6	20대 중반	비혼	무	자영업	전북	이성연인	자가	
7	30대 후반	기혼	무	사무직	고등학교: 경남 대학: 서울 취업: 전북 현재: 서울		자가	이전 공공기관 근로 현재 휴직 중 주말부부

[표 계속] 청년여성 심층면접 대상자

연번	연령대	혼인	자녀	직업	지역 거주 경험	동거가족	거주형태	특이사항
8	30대 초반	비혼	무	자영업	출생, 중학교: 서울 고등학교 대학: 전북 취업: 서울 창업: 전북	자취	전세	청년창업지원 사례
9	30대 초반	비혼	무	구직 중	대학까지: 서울 취업: 수도권 여행: 해외 현재: 전북	자취	월세	정규직 선호 없음
10	30대 중반	기혼	유	자영업	전북	자녀	전세	주말부부 (남편 충남)
11	20대 후반	기혼	무	사무직	출생, 고등까지: 충북 대학 및 취업: 경북 프리랜서: 보은 결혼 및 취업: 전북	남편	전세	청년고용지원사업 배우자가 전북 출신이 아님에도 전북 거주 희망
12	30대 후반	기혼	무	자영업	고등학교까지: 전북 대학: 대전 취업: 서울 창업: 전북		주거공동체	

[표 계속] 청년여성 심층면접 대상자

연번	연령대	혼인	자녀	직업	지역 거주 경험	동거가족	거주형태	특이사항
13	30대 초반	비혼	무	사무직	고등학교까지: 전북 대학: 대전 취업: 서울	자매	전세 자취	전북 복귀 기대 없음
14	30대 초반	기혼	무	사무직	대학까지: 전북 취업: 전북 근무지 변경: 서울	남편	청년주택 최근 주택 매매 (경기도)	이전 공공기관 근로 서울 사무소 발령 후 현재 휴직 중
15	30대 중반	기혼	유	사무직	고등학교까지: 부산 대학에서 취업: 전북	남편, 자녀	자가	
16	30대 중반	비혼	무	청년농, 사업가	고등학교까지: 충남 대학교: 충북 취업: 서울 창업: 전북	부모	자가	농촌지역
17	30대 중반	비혼	무	사무직	대학원까지: 대구 취업: 세종 이직: 전북		월세	
18	30대 중반	비혼	무	사무직	취업까지: 수도권 이직: 전북		반전세	
19	40대 초반	비혼	무	프리랜서	취업까지: 서울 이직: 전북		자가 구입	타지역 발령 후 전북 지역 지속 거주 위해 사직

○ 면접 질문은 거주지 변동 원인 관련 질문과 지역이동의 경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청년기본계획의 주요 분야를 포함하여 구성함

○ 출생에서 고등학교, 대학 진학, 출생지와 부모나 가족들이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첫 자의적인 이동이 될 수 있는 대학 진학에서의 지역 선택 경험과 전북지역에 가족 등의 자원이 있는지를 질문함

○ 지역이동의 경험을 가진 대상자들에게는 각 지역의 장단점을 질문하여, 현재 전북지역 거주에서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으로 전북지역의 정주여건에 필요한 분야를 점검하고자 함

○ 전북지역에서의 취업 상황에 관한 질문으로 전북의 일자리 상황과 그에 대한 청년층의 대응 방안을 질문함

○ 의료, 주거, 교통, 안전 등 사회 인프라 관련 만족도 및 의견에 대한 질의를 통해 기본 정주 여건에 관한 질문을 진행함

○ 교육에 관한 질문으로 청년들의 대학 및 졸업 이후의 자기 계발의 가능성 등을 질의

○ 청년 자치활동에 대한 질의로 청년 공동체 활동의 경험, 정치 및 지역 활동 참여 여부 및 평가, 지역에 대한 자부심 개선 방안 등을 질의함

○ 마지막으로 지역에서의 자기 삶에 대한 평가와 지역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미래 전망 등에 대해 질문함

○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 구조에 더하여, 응답자의 상황에 따르는 다른 논의들이 추가되어, 청년공동체 활동, 청년 창업, 주거 실험 등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기도 함

[표 4-2] 청년여성인구 관련 심층면접 주요 질문 리스트

분류	구체적 질문
출생 및 학업 가족관련	· 출생지역 · 부모 및 가족의 전북 거주여부 · 학력 및 학교 소재지, 전공학과 · 현재 가족 및 부모 동거 여부
지역이동의 경험	· 지역 이동의 경험 · 각 지역에서의 장단점 및 거주 희망 · 전북 거주 혹은 유출에 대한 자신의 평가
취업경험 및 현재 직업	· 취업 경험 · 전북 지역과 타지역 비교 · 전북 지역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 및 개선 방향 · 현재 직업
정주여건	· 전북지역 의료, 주거, 교통, 안전 등 사회 인프라 관련 평가 및 제언 · 전북 정주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	· 진학 및 대학 선택 경험 · 졸업 후 교육 제공 기회 및 만족도
복지 및 문화	· 자산형성 지원제도 이용여부 및 평가 · 미래에 대한 계획 및 전망 · 문화활동 영역
지역 공동체 및 활동	· 청년 공동체 활동의 경험 · 정치 및 지역 활동 참여 여부 및 평가 · 지역에 대한 자부심 개선 방안
자신의 삶과 지역	· 지역 거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 지역에서의 자신의 역할 및 미래 전망

자료: 저자작성

2. 심층면접조사 결과

가. 지역 이동의 경험

1)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경험

○ 대학 진학은 청년들의 타지역 이주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청년들은 어떤 원인으로 거주지역을 떠나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는지, 혹은 전북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경우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함

○ 응답자의 대다수가 대학 진학의 경험이 있었고, 수도권을 비롯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진학한 경우와 본인의 거주지 근처에서 대학을 진학한 경우 등 다양한 응답이 나옴

○ 한국의 대학 진학 상황 상 대학 진학의 경우 단순히 지역 이동의 목적만이 아니고, 자신의 성적에 따른 결정 가능성이 크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는 달리 자신의 전공을 찾아 진학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역 이동 외에 다른 변수들의 고려가 필요함

▌학생들의 수도권 진학 의지와 불안

○ 성적이 좋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의 네임벨류가 좋은 곳에 진학하는 것이 입시의 성공 척도였고, 때문에 전북 지역을 벗어나 서울의 유명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우수한 학생들의 목표인 경우가 많음

>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간 거는 고등학교 시절에.. 모르겠어요. 이건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저와 비슷한 친구들의 어떤 큰 목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전주를 떠나는 것이 어떤 입시의 성공의 척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입시 성공이라고 하면 전주를 떠나서 사실 수도권인 거죠. 서울로 표상되는 곳에 대학을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저희 안에. 그러니까 저희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저랑 비슷한 친구들 사이에 어떤 팽배한 그런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심층면접 1)

○ 그러나, 수도권에 진학할 경우 학비에 더하여 비싼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의 국립대를 진학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음

>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건 너무 디테일하긴 한데 인서울해서 좀 메이저 대학을 가지 못할 바에는 그 돈이면 사실 저는 그냥 지역대학에 가서 비용을 세이브해서 더 취직을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케이스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던 대학교를 못 가고 지역 대학에 가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그 선택이 만족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비슷하게 결론은 비슷한 직군으로 간 친구들을 보더라도 중간에 드는 인풋이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되면 학비 말고도 자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생활비 이런 게 수준 차이가 너무 크게 나게 되잖아요.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학업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불리할 것 같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북에 있으면 뭔가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선택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심층면접 14)

○ 수도권 대학에 합격을 한 경우에도, 서울의 도시 규모에 압도되어 서울에 진학하기보다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한 경우도 있었음

>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합격을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울에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내가 여기에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혼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좀 확 겁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그러니까 당연히 대도시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심층면접 1)

○ 경제적 이유와 부모와의 접근 가능성 등에 따른 부모의 수도권 진학 반대로 인해 전북지역에서의 대학 진학을 한 경우도 종종 만날 수 있었음

> 그냥 약간 집에서의 분위기가 지역 국립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였어요… 서울 가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금전적으로. 그래가지고 전북에서 대학을 가라는 선택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과를 정한 건데 (심층면접 4)

2)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 대학 진학의 중요성은 전북지역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의 지역 정착 사례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음

○ 대학과 지역사회의 강력한 연계는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종교활동, 인맥 형성 또한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

○ 지역 내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학위 과정 중의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을 알 기회가 없을 경우,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를 지역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보다는 시험 준비나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 대학을 전북지역으로 진학한 뒤 지역사회와 연결망이 생기고,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지역에 남는 경우를 만날 수 있었음. 부산 출신이었던 응답자는 전북지역 대학에 졸업했고, 대학원 진학, 조교생활 이후 이전 공공기관으로 취업하기도 함

> 졸업하고는 조교 2년 하고 그리고 ○○ 들어갔어요… 여기는 어쨌든 근거리에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1시간 거리의 언제든지 가면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난 부산 내려가지 않아도 여기서.. 왜냐면 저는 대학교를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저의 그런 정말 컸을 때 그 생활하는 지인들이 다 여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은 고등학교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 가족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활하는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서 딱히 부산 너무 가고 싶어 부산이 더 좋아 그런 건 없었고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익숙하고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심층면접 15)

○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역 대학은 학과별로 그 기업에 맞는 방식으로 과를 운영하여, 졸업생들이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수행됨

> 제 후배들은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가고 측량 쪽으로 많이 갔고 저희 선배들은 이제 자산관리회사 쪽에 많이 갔어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쪽 많이 갔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직장 때문에 갔었고 하고 근데 후배들은 (공공기관)○○가 들어오면서 지역정착에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면 (공공기관)○○에 맞춰서 과를 또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그쪽으로 많이 하는 거 같아요.(심층면접 15)

○ 전북지역의 경험은 아니지만,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하게 가진 경험을 한 응답자의 경험은 전북지역 대학과 산업체 연계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제공함

> 거기 지역 대기업 OOO가 크게 스타트업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리고 연고도 다 거기 있고 보통 대학 나오는 곳에 좀 정착을 많이 하기도 하더구요 … 교수님이 이제 새로 오시면서 저희 전공에 되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 공기업이나 아니면 축

구팀 이런 데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학교랑 많이 학생들이랑 연결해 주시고 (심층면접 11)

○ 지역과 산업체의 연계만이 아닌 대학시절 동안 종교활동의 경험이 지역에 남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함

- 청년들은 직장에서의 가족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과 직장 문화의 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작은 공동체 문화에 대한 반감으로만은 해석할 수 없음. 작은 개척교회의 가족주의적 연결망 속에서의 지역 정착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공동체의 사이즈보다는 그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배려 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보임

근데 보면 이제 제가 졸업한 대학이 약간 그 특성이 엄청 강해요 기독교적인. 그래서 대부분 거의 한 90% 정도는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교회에 정착해서 그 교회를 못 떠나고 거기가 좋아서 그 공동체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 지역에서 자기가 다니게 된 근데 그런 교회들 특징이 대부분 이제 개척교회라고 해서 가정교회나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이제 작게 시작한 소규모 교회인데 그런 데는 이제 전도사님도 없고 목사님 한 분만 계시고 이런 데에서 이제 ○○대 친구들이 많이 그쪽으로 유입이 돼요. 애들 성격이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런 데 가 있어요?)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자기들이 뭔가를 이제 일구고 이제 같이 성장시키고 이런 거에 좀 매력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정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들고 이래가지고.(심층면접 11)

○ 비슷하게 대학시절 형성된 인맥 등으로 지역 정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저는 여기서 취직하는 게 제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 내가 취직을 하려면 여기나 지인들이 다 여기고 내 연고가 여기니까 부산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심층면접 15)

○ 대학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을 경험할 수 없던 학생들은 졸업 이후 그 지역에서의 진로를 고민하지 않거나 혹은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실제 전북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대학과 지역이 어떤 연결망과 활동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해 주고 있음

우선은 저는, (대학교가 있던 지역이) 뭐랄까 거주지가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학교를 졸업한 이상 이 지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역과의, 그 학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에도 지역과 이 학교 간의 커넥션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어쨌거나 대학이 있는데 그리고 종합대학이 지역사회에 있는데 이 지

역사회와 종합대학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학생들이 너무 그냥 이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로 나가지를, 이게 지역사회와 연결이 안 되고 너무 이 공간 안에만 있고 얘네들은 졸업하면 이 지역사회가 아닌 다 웬만하면 서울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다 가니까.(심층면접 1)

고등학교 때까지의 출신 지역보다는 대학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대학을 전북으로 온 친구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전북이 꽤 어쨌든 대학교 때 어느 정도 인맥이나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좀 지역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겠구나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서울로 왔을 때 전주 출신인 다른 애들을 만났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막상 걔네들은 이제 전북이 낯설다는 거예요. 대학 때 이미 서울로 와버린 친구들은 그래서 전북이라고 크게 그 친구들한테 1순위가 되지 않더라고요.(심층면접 4)

3) 서울로, 전북으로의 이동

▌서울과 수도권 이동의 이유들

○ 취업 준비나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서울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기도 함. 전북지역에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의 사업체가 부재하거나 혹은 전문직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에 있어 그에 대한 준비 학원이 부재하거나 다양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서울로 이동하고 있음

지금은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게 좀 많이 발달해서 지금은 저 졸업했을 때처럼 서울로 가는 비중이 좀 적은데 그때는 인터넷 강의보다는 가서 실제로 강의 듣고 그 노량진 수험가가 좀 많이 발달했을 때여서.(심층면접 2)

○ 대학 진학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외에도 학부를 지역에서 마친 뒤 석·박사학위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함. 전공 선택의 가능성이 넓고, 전북지역의 경우 과에 따라 대학원생의 수가 적은 경우도 있음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굳이 OO대에 갈 이유가 있을까?를 봤을 때 뭔가 딱히 가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공 내가 하고 싶은 연구라든가 그거를 할 수 있게 교수님이 좀 지도를 해주실 것 같다든가 이런 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어차피 박사 공부하는 거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도 또 다른 데에서 이렇게 다른 교수님한테 배워보는 것도 좋다고.(심층면접 4)

○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이전만이 아닌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험에서도 서울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서운함을 경험했다는 경험담도 존재함

- 일반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기준을 설정하여 접근하지만, 실제 서울에서 경기권으로의 이전은 수도권에서의 이전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함

> 그때 그래서 약간 사실 저희가 그때 남편이랑 집을 사서 간 거거든요. 용인으로 그러니까 뭔가 집을 사서 감에도 나는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 집을 못 샀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난 근데 그 당시에 솔직히 저희 주변에 집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괜히 서울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러면 나름 서울에서 몇 년 직장생활도 하고 했는데 약간 경기도로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자의적인 게 아니라 약간 타의적으로 뭔가 빠져나가게 됐다는.(심층면접 5)

▌서울 경험의 어려움

○ 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용과 열악한 생활환경은 전북으로 돌아오는 이유로 작동함. 서울 안의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만, 그 인프라를 누리려는 사람들 역시 많은 관계로 복잡하고, 복잡함 속에서 본인의 인간관계는 조밀하지 않아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함. 특히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외로움과 치열한 경쟁은 서울 생활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

○ 전북으로 다시 돌아온 뒤 경험한 서울에 대한 평가는 살던 당시의 상황을 더 날카롭게 평가할 수 있음. 높은 주거비용 대비 열악한 환경으로, 현재 지불하는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면서도 고시원에 살았던 기억은 서울로 다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높이기도 함

> 진짜 다시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때 고시원 살았었거든요. 고시원들도 좀 여러 개로 나뉘었었는데 생활 형태가 근데 저는 그 방 안에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는 데긴 했는데 … 좋은데 좁은 곳이었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 근데 그 환경이었기에 내려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심층면접 2)

○ 교통, 문화, 의료, 쇼핑 등의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서울은 그 인프라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가득함에 따라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아 복잡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

다는 응답도 들을 수 있었음

인구가 그래도 서울에 있을 때 사실 어딜 가도 사람이 치이는 느낌이고 문화생활을 하러 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그래도 전주는 좀 고르게 사람들이 분포돼 있는 것 같아서.(심층면접 2)

○ 특히 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에서 지내다보니,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서 사는 삶에 대한 외로움과 서울살이에 대한 부적응의 느낌을 경험하기도 함

서울에서 그래서 그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16년도에 서울에 올라갔었고 19년도까지는 서울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몇 년 나가서 살다 보니까 고향에서 이제 멀어져서 살다 보니까 좀 이제 향수병처럼 이제 여기 내려오면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다 있고 해서 좀 내려오고 싶더라고요.(심층면접 2)

○ 서울은 기회도 많았지만, 경쟁도 치열해서, 일·생활 균형을 이루기 쉽지 않고, 일을 어디서 잠시 멈추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지쳐가는 경험을 하기도 함. 고된 노동과 외로움 등으로 서울생활을 접고 지역으로 내려온 경우도 심층면접 과정에서 종종 볼 수 있음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또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처음으로 목이 막 쉬려고 해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구요 … 네 맞아요. 또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지쳐서 우선 좀 쉬어야겠다 하고 내려왔어요.(심층면접 8)

○ 서울이 가지고 있는 주거문제, 외로움, 높은 노동 강도 등의 문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남으려는 이유에 대해 한 면접자는 단순히 임금의 문제만이 아닌 자신이 갈 수 있는 직장의 부재와 발전 가능성 낮음으로 들고 있음. 현재를 비교할 것이 아닌 발전가능성의 미래를 비교할 때 지역은 성장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정체된 곳으로 보였던 것임

서울을 떠나고 싶은 적은.. 문득문득 들거든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치이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그냥 옆에서 살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서울보다 좀 더 조용한 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은 드는데.. 진지하게 서울 삶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임금을 포기하고 하면은 진짜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드는 비용이 전세 대출을 하고 있어서 전세 대출 이자 갚는 거랑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를 내야 되고, 생필품도 사야 되고 당연히. 외식도 하면 이제 외식 물가 같은 것도 좀 고려해야 하고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전북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엄마 아빠 집에서 산다고 하면 이 비용이 거의 많이 세이브 되긴 하거든요. 전세 대출 비용,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생필품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내가 미혼인 상태니까. 이거를 진짜 숫자로 계산했을 때 뭔가 드는 비용은 개인당 1년에 한 7~800만원은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받는 연봉에 마이너스 7~800을 해서 전북에 있는 회사가 있다면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저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회사는 전북에 없어요. 서울의 또 다른 장점이 마음만 먹으면 이직을 하면서 연봉 점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력을.. 어쨌든 내가 지금 3대 초반이니까 최소 20년 30년은 회사를 다닐 텐데.. 연봉 상승의 확률은 서울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심층면접 13)

▌전북에 남기, 전북으로의 이전

○ 다른 지역으로 이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북지역에 남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전북으로 이전해오는 것은 다양한 원인에 근거함

○ 양가부모님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기 위해 주말 부부를 선택하거나, 가족 사업을 이어받거나 돕기 위해 전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전북지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이미지로 새롭게 전북 정착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음

- 전북지역 내 일자리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아닌 지역에 끌려 거주를 먼저 선택하고 일자리를 찾는 경우나, 일자리로 전북지역에 이주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일자리를 그만두고 전북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는 청년 이주의 원인을 단순히 좋은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보여줌

○ 전북지역에 있는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혹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일자리가 전북지역에 생겨서 오는 경우도 볼 수 있음

○ 남편의 직장이 충남이지만, 전북에 남아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으로부터의 육아 도움 기대로 전북에 남은 경우를 볼 수 있음

왜 안 따라갔냐고요? 저희 둘 다 (시험 지역으로) 충남을 썼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니까. 근데 남편이 먼저 됐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임신을 했고 거기 가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아무도 없었고 여기 시댁 친정이 다 전주에 있어서 이쪽에 자리를 잡

았죠. 그리고 남편이 고생스럽지만 그냥. 그리고 오피스텔이 원래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왔죠.(심층면접 10)

○ 부모의 전북 거주로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이고, 본인은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 전북으로의 이사를 결심할 수 있어, 실제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들의 지역 이주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작동

엄마 아빠가 사업하고 계시고 그래서 남편은 지금 직장 다니거든요. (경기 남부권에 있는 직장) 다니는데 근데 지금 그 직장이 재택근무예요. 계속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집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서 일을 해서 저희가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그거는 이제 저 이제 남편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올 수 있었고 부모님이 이제 좀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이제 사업을 그냥 아예 처분하기는 좀 아까운 것 같으니 약간 이제 부모님 사업도 도울 겸 이제 육아도 도움 받을 겸 이제 그러면서 내려오게 됐어요.(심층면접 5)

○ 특히 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해 전북지역으로 옮겨오면서, 부모의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수도권에 자리한 부모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제가 항상 제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는 야 너 부모님이 수도권에 살아서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항상 그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친한 친구도 부모님이 경기도에 있고 자기도 이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데 너무 이제 부러운 거예요. 친해진 애기 친구네 엄마도 자기 엄마 자기 남편이랑 자기도 다 거기에서 자랐고 그냥 부모님이 가깝기도 하고 직장도 가깝고 해서 신혼집을 그냥 거기다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엄마 아빠도 애초에 그냥 저 옆 동 살고 그러니까 부럽고 굳이 이동을 안 해도 되는 근데 저는 애초에 부모님 곁으로 가려면 … 그러니까 뭔가 큰 결정을 해야지 부모님 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부모님이 있어서 저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적으로 그렇게 온 거지 만약에 아니었으면 굳이(심층면접 5)

○ 부모의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전북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는데, 서울에서의 지친 삶의 대안으로 가족 사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원래는 저는 직장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었는데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제가 충청도에서 서울로 가는 게 좀 어려웠듯이 미국을 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여기 전북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다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 저는 좀 가족도 너무 저한테는 중요했고 미국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게 아니니까.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보다 부모님

이 하시고 있는 이 사업을 좀 같이 제가 확장시키고자 해서 왔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막 그럴 듯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신 게 아니라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디자인 일을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서 어떻게 좀 살리고자 왔습니다. … 나름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냐면 경관 농업이거든요. 경관 농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 농사가 아니라 어떤 부가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입장료 수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굿즈를 만든다든지 그런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다들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청년이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하나가 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청년이 왔다 보니까 다들 반겨주십니다.(심층면접 16)

○ 전북지역에서의 연고가 없음에도, 전북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이 이주에 도움을 준 경우도 살펴볼 수 있음. 전주지역에서 있었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북지역에 친숙함을 느꼈고, 그래서 전주 지역 내 청년활동 공간과의 연락을 통해 전주에 집을 구해 정착함

네 그래서 우리 술 학교가 전주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 두 달 정도 동안 서울에서 주말마다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일 교육과정 이수하면서 전주라는 도시를 좀 자연스럽게 접한 거죠. (막걸리 학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주로 오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고 이제 전통 공예 관련해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알아보지 않아가지고 아마 놓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도 그 교육 시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타이밍도 맞아야 되니까 이거는 한 1~2년 지내면서 팔로우업하고 그리고 신청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심층면접 9)

(해외 1년 살기 후) 한국 생활 적응하면서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을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 대표도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인스타그램으로 알고 있었고 연락해가지고 전주에서 살아보고 살고 싶은데 ○○○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방문해서 얘기 나누고 싶다 해서 와서 그곳 대표가 또 되게 환영을 해줬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누구나 와도 되고 숙박도 된다고 해서 여기서 머물면서 집을 구했죠.(심층면접 9)

○ 역시, 전북지역에 연고는 없었지만,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느림과 목가적인 분위기에 끌려 이주한 경우도 있었음

전주가 좋대요. 약간 목가적이고 뭔가 자기가 좀 속도가 라이프 밸런스가 좀 느린 편인데 그런 분위기랑 자기랑 잘 맞고 자기가 여기서 정착해서 나이 들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있을 건 다 있으면서도 약간 시골적인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본가가 광주니까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가랑 멀지 않고.(심층면접 11)

○ 지역이 우선이라기보다는 일자리가 전북지역에서 마련되어서 전북으로 이주해온 경우도 많이 만날 수 있었음

전주에 있던 친구랑 그냥 차 한 잔 하자고 만났다가 제가 이래서 힘들고 이 일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해에 좀 여름쯤 근데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는 걸 확실하게 됐다는 걸 그 친구가 알고 그러면 여기 일자리 있는데 너 한번 지원해볼래라고 했던 게 (전주)○○○○이었어요. 네 그 친구가 ○○○○에 다니고 있었고 ○○○○가 공간 조성을 하면서 국비와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간 조성 영역도 하고 또 공간 활성화 이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거 근데 제가 건축도 했고 조직 사업을 계속했던 맥락에서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돼서 1년짜리 계약이니까 그냥 한 번 그때만 하고 가는 게 어때라고 해서 저도 그냥 1년만 지낼 생각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또 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전주 달팽이집, 사회주택이자 청년 셰어하우스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 빈자리 있는 덕분에 좀 쉽게 진입할 수 있었죠. 만약에 원룸을 새로 구하고. (그랬으면) 조금 장벽이 됐을 텐데.(심층면접 12)

○ 일자리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도전적인 마음으로 지속 거주보다는 3-4년의 거주를 생각하고 이주했지만, 살면서 점차 이곳의 삶에 익숙해져가고, 조금 더 지속된 삶을 이곳에서 사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미래를 가지게 되기도 함

근데 저는 처음 내려올 때는 평생 여기서 다니겠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3~4년 다니다가 다시 이직을 하거나 학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차도 사고 이제 여기서 생활권을 형성하다 보니까 여기도 나쁘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좀 정착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죠.(심층면접 18)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에서 이제 너무 사람이 많은 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차로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자연 친화적인 것도 좋고 그리고 대구는 가기 힘든데 서울은 또 가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전주는.(심층면접 17)

○ 서울에서 파견으로 전북지역에 내려와 사업을 지속하면서 전북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북에 정착한 경우도 있음

원래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근데 이제 서울살이가 돈은 버는데 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뭔가 이제 그런 가치들을 좀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서울에서는 업사이클링 관련한 일종의 약간 환경단체.. 단체는 아니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택한 게 이제 ○○○○라고 하는 창업 교육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막 제가 입사한 지 3개월 아니다. 제가 언제 입사했지? 2월에 입사하고 3월에 내려왔거든요. 네 이렇게 내려갈 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 당시에 입사도 아니고 그냥 단기 계약직이었고 저는 프로젝트 하나만 하면 끝나는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행사를 하나 마치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전북 ○○에서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 가볼 생각이 있냐 엄청난 제안이어서 따로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냥 그래서 ○○ 내려가면 일을 계속할 수 있겠구나. 사실 구직하는 건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에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말고도 서울에서 같이 내려간 직원분이 같이 계셨고 저랑 또래는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분이 계셨고 저희가 19년도가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저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계속 같이 계셨어요. 저 동네에서 좀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좀 ○○을 내려가겠다고 한 결정이 다들 … 난 두 달만 도와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계속 있게 된 거죠.(심층면접 19)

○ 가족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서 이주한 경우와는 달리 지역이전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 지역 이전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호의적으로 지역을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함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수준이면 뭔가 다른 뭔가가.. 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해본 건 아니니까 …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가족들 이렇게 막 다 이전시켜도 안 가는 것처럼 이게 사람 심리가 연결된 부분이라 뭔가 강제성이라든지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지역에 있었고 이 회사가 와서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 정책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막 강제로 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전혀.. 물론 강제로 몇 명은 내려 보내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 다른 기회 있으면 안 갈까요? 가겠죠.(심층면접 14)

○ 전북으로의 이전에서 수도권에서의 이전과 타 지방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심리적 부담감의 차이를 언급하기도 함

서울에서 지방을 가는 거랑 지방에서 지방을 이동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뭔가 느낌이 이제 인식 자체가 막 서울은 대도시, 중심 도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그쪽으로 갈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거죠. 왜 지방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꼭 지방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떨어져 사는데 괜찮은지 그 친구나 인간관계도 좀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심층면접 18)

▌전북 농촌 정착

○ 전북지역 정착에 있어서 일자리나 지역 정서에 대한 논의는 전주, 군산 등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실제 전북 농촌지역에 정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음

○ 부모님의 농사일에 같이 참여하면서 농업인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거나 농업 관련 사업을 하는 부모님을 따라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고, 농가소득이 좋은 지역의 경우는 다양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청년들이 이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귀농청년이 모든 농촌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닌 귀농청년을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기술적 기반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때 전북 농업지역으로의 정착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청년농으로 정착한 경우는 실제 농업으로 인한 수입 기대가 있고, 농사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차곡차곡 농지를 구매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고,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도시의 삶과는 다른 경제적 자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1년 직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 월급의 두 배가 되니까 1년으로 이렇게 연봉을 받아버리잖아요. 그게 차라리 낫다 아빠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하셔서 어차피 저도 나쁘지 않고 그래가지고.(심층면접 3)

○ 농가 소득에 대한 기대는 다른 지역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요소로 작동했고, 특히 부모님의 농지가 있는 경우, 도시 생활에 지친 자녀들이 돌아오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분들은) ○○(해당지역)분들도 있고 다른 제주도 이런 곳에서도 많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저기 ○○혁신밸리라고. (네 맞아요. 있죠.) 거기 보니까 아는 분이 거기서 계셔서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은.(심층면접 3)

>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시골에 (부모님 자원이 있어서?) 아무도 없고 하면은 안 오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일구어놓은 게 있으니까(심층면접 3)

4) 청년의 지속정주: 노마드(Nomad) 정서

○ 청년들의 기존의 생애주기를 상상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실제 지역의 지속 정주에 대한 계획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경우 조금 더 타지로의 이동에 열려있지만, 전북이 고향인 경우에도 전공이나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서 지역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조건으로 작동함

○ 그 가능성의 실천 여부는 모르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임

○ 귀농귀촌을 선전하는 데 비해, 실제 그들이 정착한 지역 내 공동체에서, 열린 마음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슬로건과 실천 간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음

- 교육 관련 창업이나 농업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들과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

○ 전북이 고향이었지만, 실제로 취업 지원과 결심에 있어 그 고향의 의미는 크지 않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주가 아니라 어디든 상관이 없었어요. (취업은?) 네. 어디든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저의 전공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였고요… 전공을 바꿔서 완전 새로운 일이라기보다는 전공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이제 1순위여서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어디든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 공고를 보게 된 거죠.(심층면접 1)

○ 심지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속 정주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이지 않는 특징을 나타냄

> 저는 어디에 있어도, 아.. 이곳에 정착할 수 있을까?를 좀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좀 낯선 감각이에요. 어딘가에 정착해서 산다는 게 지금까지는 … 물론 지금 제가 정규직 자리를 가지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나?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곳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어서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나는 떠도는 삶을 사는 게 나의 그런 팔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심층면접 1)

○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직에 대한 열린 마음이 전북 출신이거나 혹은 타지 출신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실제 면접에서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음

고향에서도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타지에서 잡아서 더 그게 이제 커진 것 같긴 해요. 요새 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이직을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이긴 하는데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죠. (심층면접 17)

저는 이직을 우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북이) 살기는 너무 좋은데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수도권으로 갈지는)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평화로운 이 생활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서울에 출장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통근 시간도 경험해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심층면접 18)

○ 귀농귀촌을 선전하지만,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고, 슬로건과 실천에서의 괴리를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네 외지인 느낌이 되게 심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귀촌한 사람들을 막는 게 되는 귀향한 사람들이) 크는 거를 막는 거 같아요. 클 수 있는 파이 정도를 막는 … (수도권은 열려 있는데 비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게 느꼈다는 거죠.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취업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생산직 위주로밖에 하기가 어렵고 한데 위쪽에만 가도 연구원으로도 많이들 하고 있고 개발자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기회가 좀 더 다양한 거(심층면접 8)

○ 특히 지역 내에 이미 형성된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음

일단 여기 지역은 네트워킹이 너무 중요하고요. 거주하는 그 기간도 중요하고요.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먹거리 살아갈 수 있는 생계 수단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직접 집을 지을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고 지금 저희 집이 그래도 그럴듯한 어떤 유럽형 통나무집에 살아요. 근데 거기까지 기반을 닦는 데까지 4~5년 걸렸어요.(심층면접 16)

반겨주시고 아껴 주시면서도 ○○은 무인도 같은 곳이다. 지역에 사람이 워낙 적기도 하고 제가 ○○뿐만 아니라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네트워킹이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자생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사실은 저도 아직은 이제 적응 중에 있습니다. (심층면접 16)

나. 지역 간 비교

○ 서울 및 수도권 청년들은 전국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반면, 전북 청년들은 자연 접근성과 지역 축제의 장점을 누리지만 발전과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서울의 삶은 목표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하지만, 청년 정책 접근성이 높아 다양한 지원을 받기 쉬운 반면, 전북은 느린 발전과 제한된 기회로 인해 청년들의 이탈의 원인으로 작동

○ 서울지역의 청년들의 활동은 서울지역 활동이 아닌 전국적인 활동으로 인지되고, 그들의 고민 속에서는 지역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볼 수 있음. 서울의 탈지역성, 서울 중심성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중앙정부와 서울지역의 청년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에서 저기 여가부에서 하는 모니터링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대학생들은 자기 지역사회라는 생각, 인식이 없이 그런 중앙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거예요.(심층면접 1)

○ 서울로의 지역 이주 이유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서울지역의 일자리, 문화, 교통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은 서울의 장점이자 특징으로 보여짐. 특히 그 인프라 이용을 자주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프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도 문화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서울의 장점은 압도적인 인프라인거고 그 인프라가 진짜 교통뿐만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보의 접근성도 정말 높고, 그리고 어디든지 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동도 너무 편리하고, 타지로의 이동도 쉽고, 해외로의 이동도 너무 쉽고, 아니면 서울 안에서의 이동도 제가 차가 없어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거기에 플러스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마음만 먹고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공연이나 뮤지컬, 연극,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전시회 같은 거나 모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는 거의 서울에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권이 너무 넓어요. 이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면 마음만 먹으면 서울권 안에서는 이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심층면접 13)

그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갈 수 없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문화 행사나 이런 걸 자주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언제든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것과 뭔가 한 번 가려면 마음을 진짜 막 돈도 쓰고 마음도 크게 먹어서 가야 하는 것에 부담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게 문화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차가 있어서 그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교통이 진짜 크더라고요. 뭔가 지하철이든 버스든 이용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전주는 버스를 타는 게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기다리면서 버리는 시간은 좀 적은 것 같아요.(심층면접 14)

○ 반면, 서울은 사람들이 많이 번잡스럽고, 주거비용이 비싸고, 서울에서 자란 것이 아닌 경우로 친구가 적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짐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너무 사람 면적당 밀집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좀 생활 반경.. 어쨌든 자취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 집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전세나 월세를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제 또래라면 거의 대부 자취를 한다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사를 할 때마다 그 부담감.. 비용의 부담감과 전세 사기 같은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좀 집 문제로 걱정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단점이고… 친구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보다 친구 수가 적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또 단점은 엄마 아빠가 없다. (심층면접 13)

○ 다양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 대비, 전북지역은 자연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가짐

어렸을 때 그런 데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연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놀러 갈 때도 자연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자연경관이 되게 좋고 주변에 전북 안에서도 그렇고 전남으로 가거나 경상도로 넘어가도 교통 1시간 안에 뭔가 축제하는 것도 되게 많아 가지고.. 축제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러 다녀서 좋은 거 같아요. 지역 축제 같은 거.. 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역 축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북에. 자연 꽃축제 같은 거 시즌별로 매화나 국화나 이런 거… 서울의 그 퍽퍽한 인심과 비교했을 때 인심이 아주 좋아요. 당연히 고향이니까 가면은 당연히 마음이 더 편하고.. 그리고 저는 안 가봤지만 뭔가 전주에 큰 축구장도 있고, 프로리그도 있고, 또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크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전북에..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데서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열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라도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심층면접 13)

○ 전북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더딘 발전과 일자리가 없는 문제를 들고 있음

단점은 발전이 너무 더뎌가지고 전북 젊은 층이 버티기에 너무 힘들어요.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남아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전북에 남아 있는 친구가 두 명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도 한 명은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 그것도 서울에서 물리치료 업무하다가 공무원 간호공무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 한 명은 공공기관.. 그리고 (남아있는 친구가) 없어요. 떠나는 이유가.. 어쨌든 전북은 약간 1차 산업, 2차 산업을 아직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심층면접 13)

○ 서울시의 경우 청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든든한 재정을 바탕으로 폭넓은 정책 지원 대상과 청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울 거주 청년들이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전북지역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사실 전북에서 전북이 더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것도 해보고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전북에 있을 때보다 서울에 있으면서 청년으로서 뭔가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양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굳이 내가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냥 청년이었을 때 좀 보편적인 그러니까 상위층 아닌 이상 좀 중간부터 어느 정도 좀 누릴 수 있게 계속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심층면접 4)

○ 서울의 삶은 목표지향적이고, 더 적극적인 삶으로 보여지기도 함.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직장을 이전하는 모습은 수도권 지역의 경쟁 위주의 삶과 연결되고, 또한 지역 사회의 약간은 느린 이미지와 더 겹쳐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함

그렇게 좀 지역에 계시다가 연구원이나 아니면 학교에 계시다가 결국에 인서울로 옮기시는 분들이 조금 점점 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 계실 때 또 학생들 데리고 뭔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뭔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방대에서 열심히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뭔가를 하려는 분들이 사실은 욕심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욕심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거기에서 계속 뭔가 지역을 위해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커리어나 이런 걸 위해서 결국에는 또 서울로 오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덜한 분들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학생들은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배우거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심층면접 4)

○ 산업 분야의 강한 경쟁 구도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그곳에 속하지 못하는 것, 실패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지역으로의 직장 이전에 대해 강력한 부정으로 나타남

약간 저희는 공기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옮겨 다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특히 IT 쪽은 그냥 서울이 중심이거든요. 무조건 돈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저희가 누리던 거를 그대로 맞춰줄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런 업계 트렌드도 어쨌든 최전선이고 그냥 모든 걸 그러니까 이걸 굳이 지방에서 할 이유가 없는(심층면접 5)

다. 일자리 경험

▌일자리 부족, 좁은 공동체

○ 전북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실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발생

지금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고 싶어도 이제 일자리가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업무를 여기서 일자리를 이제 구할 수 없는 일들이거나 이제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일자리만 있으면 가고 싶은데 없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심층면접 2)

○ 지역에서 취업한 경우에도, 실제 이곳에서의 일의 경험으로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없고, 일자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며, 미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도 들을 수 있었음

IT 쪽 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애초에 그쪽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고 가면은 본인들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냥 가도 할 게 없다는 게 너무 강해요.(심층면접 4)

제가 진짜 성장이 될 만한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뭔가 전공을 하신 게 아니기도 하고 (사장님이?)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리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일을 배울 때 이번에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된 부분인데 사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성장으로 이끌어 줄 만한 내 몸값을 높여줄 만한 사수가 필요한데 저는 여기에 묶여 있으면 내 몸값은 안 높아지고 내 업무량은 많아질 것 같고 약간(심층면접 11)

○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에 있어 하나의 기업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도 볼 수 있었음

이제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굳이 여기에서 여기가 무슨 어떤 선진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그

것도 아니고 초봉 어차피 똑같이도 안 해요. 심지어 거기가 더 낮아도 기왕이면 더 … 선도되는 거를 배우는 게 낫지 누리는 것도 그렇고 젊은 애들이니까 나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대 애들은 말할 것도 없다 … 아마 여기에 기업이 그냥 한 개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 기업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 문화도 그렇고 어쨌든 일자리가 있어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리는 게 다른데 그런 것 같아요.(심층면접 5)

○ 일자리 정책이 산업분야로 집중되면서 오히려 청년들의 창업이나 창직(創職)의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를 언급하기도 함. 실제 이러한 소상공인의 확대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근데 저는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라는 게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역)에 되게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결국엔 정부의 기조도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식으로 강한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좀 더 관심을 좀 더 주면 좋겠는데 아직 ○○은 좀 산업적 부흥을 아직 바라는 것 같아요 … 내가 어떤 직업이 있어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창업보단 창직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앞으로의 트렌드가 아닐까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산업들이 이 사람들이 다 받아줄 수 없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바라는 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1인 기업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규모가 좀 커져서 안정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직원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연결점이 되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은 산업 관련 일자리밖에 없고 아니면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단편적이잖아요. 그것들을 좀 약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심층면접 19)

○ 일자리의 종류도 적고, 일자리 분야의 협소함 역시 지적되었음. 한 분야에 진출했을 때 그 네트워크가 작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직장을 새롭게 이동하고 싶을 때 작은 네트워크는 장애로 작동

- 한 직장에서 그만두면서, 지역 내에 그 분야에서 자신이 이 직장을 그만둔 사실이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아예 이 분야를 떠나야 한다고 결심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음

여기에서 또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이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급여적인 부분이랑 일자리

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택의 폭도 좁은데 급여는 적고 또 만남의 기회도 적거든요. 여기는 만나보면 다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직업군의 그 뭐지 종류도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만났을 때 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타지로 가야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타지 사람이면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은 그때 서울 가서 일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어요. … 네트워크가 있어도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느낌?(심층면접 8)

○ 기업문화가 변화하지 않고 있어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 중시하는 가치에 둔감하고, 서로에게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인구 유동이 많지 않잖아요. 유입되고 빠져나가고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좀.. 기업들이 문제인가?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시대를 빠르게 못 읽는다는 느낌? 뭔가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일하는 기업 친구들이나 이런 문화를 들어보면 애들이 치고 빠지고 이런 거를 자기들이 빨리 분석하고 빨리 알아야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가 취업을 왜 이렇게 하는지 왜 2년만 있다가 그만두고 가는지 얘네 MZ라고 하잖아요. 얘네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공부를 하고 이걸 기업에 적용을 하고 우리가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심층면접 11)

▌일자리: 이주의 핵심, 그러나 편재한 요소

○ 일자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일자리의 보장만으로 청년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전국 어디서나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전북지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더한 청년을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임

일자리가 이곳으로 오게 할 수는 있지만, 일자리가 이곳에 머물게 하는데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곳으로 오게 하는데 일자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면 굳이 이곳에 오지도 않죠. 근데 일자리가 어쨌거나 있었을 때 이곳에 온다고 해도 그 이상의.. 일자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충족이라고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니즈 자체가 없을 테니까. 제공되지 않았을 때 일자리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 같은 느낌. 왜냐하면 일자리는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요.(심층면접 1)

전북에 있는 엔지니어링을 선택할 거면 수도권에 있는 회사가 차라리 나은 게 요즘은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도 다 지방에 있는 일들 수주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제

개인적인 원래 생각은 졸업할 때 내 갈 자리가 어딘가는 있겠지 하고 미리 걱정하지 않고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저는 전북을 가야지라기보다는 그냥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전공이 도시계획 쪽이니까 전국 어디든 자리가 있으면 내 자리 하나는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있기는 한데요.(심층면접 4)

○ 전북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온 청년 중에 정규직이나 매일 출근하는 일자리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도 만날 수 있었음

- 이와 같이 자유로운 방식의 삶을 실험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제가 지금 직장 구하려고 하는데 그냥 일단은 그냥 가볍게 생각 그러니까 좀 책임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용직 같은 거 약간 쿠팡이나 그런 걸 일단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청년활동모임)에서 프로그램 생긴다, 참여하고 싶은 게 있다하면 좀 유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가지고(심층면접 9)

라. 창업 경험

○ 전북지역에서 창업 경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되는데, 우선 창업 분야가 맞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지역 내에 경쟁자가 적은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도 들을 수 있었음

창업 지원금은 그냥 돈을 줘요. 정부 지원금이에요. 그냥 대출은 이제 대출대로 소상공인 신용보 뭐야 신용 그거에서 하는 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중복수혜가) 아이템이 달라서 가능했어요. 전북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심층면접 8)

○ 그러나 전북지역의 창업 지원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지적임 있음

저도 그런 거 지원 사업을 잘 찾아서 지원받고 싶거든요. 근데 그 지원 조건이 약간 언어 치료나 신규 개발, 신규 기술 아니면 뭔가 좀 특정 분야에 치우친 느낌이 있긴 해요. 뭔가 막말로 네일샵 차리는데 창업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뭔가 조금 더 쉬운 허들이 낮은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가 대단하고 거한 걸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심층면접 14)

○ 자영업을 시작한 계기로 지역 내에서 수입을 얻고자 했고, 그에 따라 창업을 한 경우

를 볼 수 있음

창업의 결심의 원인? 돈을 벌고 싶어서. 남편이 혼자 외벌이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시부모님이나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계속. 근데 저희가 생활을 하는 돈에 있어서는 이제 남편 월급이 거의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 윤택한 삶을 위해서.(심층면접 10)

○ 전북지역에서 창업을 하는데 있어, 전북 내의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는 실제 지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요청된다는 지적도 있음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에 좀 아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좀 원래 하고 있는 요즘에는 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선배 창업가분들을 저희가 코치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 네트워크가 더 넓어지기도 했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약간 청년 창업 프로젝트라고 부르지만 청년이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나이제한은 있지 않아서 여기서 진짜 ○○에서 태어나서 그냥 ○○ 출신으로서 오래 해 오신 분들이나 좀 오래 활동하신 예술계 원로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참여를 하셨어서 좀 자연스럽게 그분들 통해서 좀 지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저희가 다 외지인들로만 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계시니까 좀 친구도 빨리 생기고 여쭤볼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거 진짜 막 가서 막 사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런 얘기도 여쭤볼 때도 있고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죠.(심층면접 19)

마. 정주여건: 교통, 주거, 의료, 교육

▌도시지역의 교통

○ 전북지역 교통의 불편함은 버스를 비롯하여 대중교통이 자주 없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로 인해 차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교통은 이제 저는 느끼는 게 차가 있기 전에 대학생 때는 이제 거의 차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버스도 그렇고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은 솔직히 서울은 맞아요 서울은 진짜 정확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다니기에 많이 불편해요 사실 시간대도 그렇고 내리는 역이나 이제 이동을 하는 수단에 있어서 전북은 특히나 전주는 차 없으면 되게 돌아다니기 힘든 동네 같아요. 자가용이 없으면.(심층면접 10)

○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특히 버스의 난폭함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옴[3)]

버스가요. 제가 서울에서 온 외지인 입장으로서 기사님들이 너무 험하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솔직히 무서울 정도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렇게까지 빨리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쌩쌩 급제동 급정거가 너무 심하시고 너무 빨리 달고 턴할 때도 막 휘청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강하게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운전하는 분들이 많았던 곳에서 왔다 보니까 약간 근데 서울에 비교해서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렇게 급제동 급정거하시면 진짜 분명히 1년에 몇 번씩 사고 건데 날 건데… 아마 그런 노동이나 인프라적인 문제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나 시에서 이제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좀 어떻게 해결돼야 되나 저는 솔직히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그거 굉장히 놀랄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세계여행하면서 다른 도시들 대중교통 타고 많이 다녀봤는데 진짜 아프리카나 이런 인도 쪽 아니고 유럽이나 좀 선진국들은 버스 굉장히 천천히 가거든요.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좀 안전에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느껴져요.(심층면접 9)

그러니까 약간 대구도 다 돌거든요. 진짜 거의 타면 1시간 40분 걸려요. 근데도 더 거칠다 여기가 확실히. 조금 무서울 정도로 거친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특히나 혁신도시에 들어올 때, 여기가 진짜 엄청나게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타고 못 타겠다 타면 안 되겠다.(심층면접 17)

○ 이러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동차 구입이 언급되었고, 특히 차를 구입하기 전과 후의 전북에서의 삶의 경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음

- 청년지원정책으로 친환경 차 보급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이제 여기서 주말을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차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차가 생기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교에 여행지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게 환경이 또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하늘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건물 속에 있고 지하철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좀 자연환경을 좀 많이 본다. 많이 가까이 접할 수 있다.(심층면접 18)

○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삶의 태도를 실천하고자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3) 전북노동정책연구원(2024)에서 발행한 “전라북도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차간격, 부족한 휴식시간, 운행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서술

자 하는 경우에도, 도시의 교통환경이 이러한 실천을 막으면서 소박한 삶, 친환경적인 삶을 위해 전북지역으로 이전했지만, 그 실천에서 괴리를 느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이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은 그냥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제가 아직 차가 없는데 버티고 안사고 있는데 이제 정말 사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할 정도로 좀 근처에서 장도 보고 다 하고 싶은데 이게 다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버스는 이제 한 대 떠나면 1시간 뒤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있어야 확실히 편해지긴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차를 가능하면 안 쓰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택배를 다 시키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좀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약간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는 되게 빠른 이슈들이나 혹은 문화나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이나 이런 되게 비건이나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듣고 내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공감대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잘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심층면접 19)

○ 도시의 규모와 버스 등의 불편한 상황을 볼 때,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자전거 도로가 부족하고, 지역자전거 사업이 부재한 것을 지적하기도 함

>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약간 따릉이처럼 공공 자전거 없는 것도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주라는 도시 사이즈가 자전거 타기에 딱 적당하고 좋은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가 있긴 한데 만약에 자전거가 없었더라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자전거 타면 너무나 버스 기다리지도 않아도 되고 너무 딱 가까운 거리인데 그냥 걷기에는 멀고 약간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왜 아직 발달이 안 됐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심층면접 9)

▌농촌지역의 교통

○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대중교통이 더욱 열악하여, 차가 없는 경우는 이동의 불편함이 상존함

> 교통은 아직 차가 없어가지고 불편하긴 해요. 어디 나가려고 하면 이제 (버스 타요?) 네 강의 들으려고 하면 이제 차가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죠, 가려면.(심층면접 3)

> 이제 차가 없으면 좀 많이 힘든 곳이구나. 저도 여기 와서 운전 연수 많이 받고 운전 열심히 했는데요. 운전을 못하면 신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심층면접 16)

○ 심지어 전주지역 외의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면담자도 교통의 불편함을 언급하며, 특히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토로함

저는 서울 대비로 하면 서울에서는 이제 근처에 영화관도 조금만 걸어가면 막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훨씬 편하기는 한데 여기는 여기대로 사람 없고 시골이라서 조용해서 좋아요 … 근데 아쉬운 거는 근처에 한 번 조금 뭔가를 나갈 때 그 스팟이 너무 먼 거? 술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1시간 나가야 되고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부른다고 해도 2만 원, 3만 원 이래 버리니까 그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심층면접 8)

▌전북지역의 주거

○ 전북지역은 주거가 수도권 대비 저렴해서, 지역 거주의 장점으로 작동하여,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임

사실 그거 생각하면은 전북이 좋아요 … 왜냐하면 전북에서는 월 30으로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원룸에 살 수 있잖아요. 서울은 월 30으로 고시원에 살아요. 고시원도 좋지 않은 고시원에 살아야 되니까.(심층면접 4)

(서울 대비) 훨씬 저렴하죠. 진짜 솔직히 만약에 제가 여행 안 가서 돈 모은 돈이랑 계속 일했으면 그냥 집 샀을 것 같더라고요 … 네 계속 그래가지고 일단 매매가도 싸고 전세가도 조금 비교적 저렴하고 월세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근데 제가 싼 집을 운 좋게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보통 원룸으로 구했을 때도 한 70~80만 원 하는 것 같거든요. 한 달에 진짜 좁은데 근데 저는 지금 보증금 천에 30만 원에 방이 3개가 있어요. 아파트 약간 소형 아파트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너무나 쾌적한 환경이잖아요.(심층면접 9)

○ 그에 더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한 달에 20만원 지원을 받고 나니, 지역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자리를 구할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음

제가 이제 전입신고하자마자 그거 청년 월세 지원 신청했거든요. 그거 1년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니까 월세 자체는 이제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무직이니까 사실 돈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아껴 쓰고 이제 그냥 알바라도 서서히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거 지원도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해요.(심층면접 9)

▌전북 의료 여건

○ 전북 의료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청년들인 관계로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 불편함이 적은 편이지만, 큰 병이 있을 때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

○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의 상담을 위해서도 찾아가고자 하는 병원이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본인보다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경우 소아과 병원 등의 수가 적고, 큰 병원 등이 부족한 것이 불만이라는 지적을 들을 수 있었음

○ 구도심에 사는 경우, 인구구조가 노령화됨에 따라 소아과 등의 병원 시설이 부족하여, 돌봄을 위해 부모님 근처에 살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소아과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함

> 이사 올 때 소아과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을 가까이 살자니 이 동네는 소아과가 없어요. 근데 또 부모님 어디 소아과 있는 동네에 가자니 엄마 아빠는 또 왜 거기까지 가냐 내 생각에도 이제 막상 와서 집도 보고 다니고 하니까 내가 여기를 굳이?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심층면접 5)

>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예전 살던 지역에서는 걸어서 그냥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소아과가 여러 개고 내가 그중에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는 걸어서 우선 가기에는 좀 멀고 걸어서 그냥 제가 저번에 (지역 상급병원으로) 차 끌고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 근데 솔직히 그 선택권도 없죠. 저한테 지금(심층면접 5)

○ 전북지역 내의 소아과 부족으로 환자 수가 많아 새벽부터 대기를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의료 면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조금 몸이 약해서 열이 나고 약간 경기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믿고 그냥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 그래도 전북대병원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 소아과를 가보면 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아과가 그니까 이 소아과도 소아과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은 소아과를 이제 가는 이유가 아기가 아픈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소아과를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동네 소아과를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조그마한 피 검사

라도 하든지 아니면 진단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좀 이렇게 의료시설이 갖춰진 데랑 아닌데 이제 작은 소아과랑. 근데 소아과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없어요. … 큰 소아과는 여기서는 효자동에서는 ○○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침 새벽부터 대기를 하고 가야 돼요. 6시 그러니까 7시인가부터 대기를 받아요. 그래도 열 몇 번째 그렇게 되거든요.(심층면접 10)

○ 또한 감기 등의 질병으로 소아과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성장주사나 성조숙증 등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위한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꼭 아픈 병보다도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성장 주사라든지 아니면 요즘 애들 생리가 빨리 오고하는 성조숙증 때문에 주사를 맞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좀 가능한 병원이 전북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병원은 전북대밖에 없어서 그런 것도 대기를 보통 몇 개월씩 해야 돼요. 그런 검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은 진짜 딱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전북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심층면접 10)

○ 전주를 비롯한 시지역 대비 농촌지역으로 가면 의료 상황은 더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실제 전북 내의 종합병원으로의 이동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위급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보임

의료 인프라 별로에요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학병원이 3차 병원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한두 개뿐이잖아요.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정도 … 전주를 한정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 동네는 시골이잖아요? 원래 ○○병원이 있었어요. 큰 응급실이 있는 그래도 큰 병원인데 응급실이 문을 닫는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집에서 응급실을 가려면 전북대병원 아니면 원대병원이거든요. 멀어요. 오밤중에 갑자기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택시도 없거든요.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명절이나 이럴 때.. 그리고 동생이 어렸을 때는 또 자주 아프고 여자니까..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던 그 산부인과도 어느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 다.. 애들 병원은 다 어디로 가라는 거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뭐가 없어져요. 병원이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계속 이제 남은 병원에 몰리고 더 오래 걸리고(심층면접 14)

▌청년 교육 여건

○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위해 서울로 이주하는 경우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 계발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고 있지

만, 여전히 오프라인 수요가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개선 요구

근데 약간 여기에 지금도 저는 이제 아직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이제 다 같은 과니까 근데 제가 서울로 갔었던 이유도 사실 학원 이런 게 잘 안되어 있긴 하거든요. 전주가 근데 지금도 얘기 들어보면 물론 요새는 더 인터넷 강의를 다 많이 하긴 하지만 학원을 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학원 그게 좋지 않다 보니까 다 아직도 서울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좀 초중고 교육하고는 별개지만 어쨌든 이것도 취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학원 또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심층면접 2)

○ 학생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학원의 목표는 합격자수 증대보다는 학원생 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쟁업체 없는 학원에 대한 답답함과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었음

서울에서 학원에 다니면 합격자 수를 많이 배출시키는 게 이제 보통은 목표잖아요. 학원의 목표가.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보면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합격을 빨리 안 시키고 오히려 계속 다니게 하려는(심층면접 2)

바. 소비·문화활동

○ 전북지역이 소비나 문화 영역에 있어 대도시의 경우와는 달리 문화 및 소비 인프라가 적어 공연을 위해 서울이나 광주로 가거나 쇼핑을 위해 대전을 방문하는 등의 일이 일상적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음

○ 전북지역에 전통문화 관련 공연이 존재하는 반면 유명 가수 콘서트, 연주회, 뮤지컬 등의 횟수가 부족하고, 순회공연의 경우도 한번 공연으로 이루어지지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적함

저는 콘서트를 보려고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전보다 … 이제 오는 것 같기는 한데 꼭 제가 가고 싶은 콘서트는 가까워야 광주거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하고 싶은 문화생활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심층면접 2)

문화 활동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하긴 해요. 제가 저는 공연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건 진짜 좀 거의 없더라고요. 공연 전시나 그런 거는 좀 많이 없고. (서울은) 되게 많으니까 서울숲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성수나 이런 것도 다 팝업스토어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런 볼거리가 있고 체험거리가 있잖아요. 대구도 김광석 거리가 있고 어디 남산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큰 그런 게 없고. 카페는 많은데 뭔가 또 약간 골목골목 작은 카페들은 많은데 뭔가 확 떠오르는 시그니처 같은 그런 카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심층면접 17)

○ 서울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공연이나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청년도 볼 수 있음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판은 아무래도 서울과 비교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비교하는 건 조금 어쩔 수 없죠. 인구수도 너무 차이 나고. 근데 공연이랑 행사는 찾아보면 많아요. 전주에 재즈 페스티벌 저번에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아쉬웠고 영화도 국제영화제도 하고 그리고 어떤 가게에서는 계속 DJ 파티를 하고 그래서 전주에 행사는 진짜 많다고 느껴져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행사가 없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선택권이 좀 좁긴 하겠죠. 저도 연극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그때만 볼 수 있어서 기다렸다 놓치는 경우도 많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은 여기 있는데 거기서 더 많이 막 적극적으로 뭔가 공연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지난주에 공연 또 크게 열었거든요 거기서.(심층면접 6)

국제영화제도 있고 그렇지만 전주가 또 서울 카페들처럼 카페가 힙하고 되게 감각적인 공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전주 카페 투어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 전주에 도서관 여행이 전국에서 전주밖에 없잖아요. 도서관 그것도 문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테마별로 서양 예술마을 도서관 너무 좋아하고, 다가 여행자 도서관의 입국 출국 이런 세심한 것도 좋아하고,(심층면접 6)

○ 전북지역에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이 부재하여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최근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팝업스토어 등이 전북지역에서 열리는 경우가 없어 이에 대한 아쉬움을 볼 수 있음

대전 … 그 세 개(아울렛, 코스트코, 백화점)를 다 가요 묶어서 같은 날 아니면 이제 대전에 볼 일이 있으면 대전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코스트코 들렸다올까 약간 이런(심층면접 2)

○ 전북의 소비 및 문화적 강점으로는 맛집을 언급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맛집은 충분하다는 답이 많이 나왔고, 오히려 전북지역의 음식점이 대도시화 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음

맛집은 괜찮아요 … 근데 사실 여기는 어디 들어가도 다 평균 이상은 하니까 다른 지역 가면 오히려 약간 전주에서 그냥 아무 식당가도 다 맛있는데(심층면접 2)

○ 최근 프로 스포츠 구단이 전북지역에서 이전하는 등의 모습은 지역을 위한 정치인이나 지방정부의 노력 부재로 보여지기도 하고, 실제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문화 활동 중에 하나가 사라짐에 대한 아쉬움을 볼 수 있었음

> 제가 농구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지만 근데 KCC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이번에 KCC가 부산 KCC가 돼서 우승을 하는 걸 보면서 짤 보다가 그거 봤거든요. 농구구단도 전주 떠나고 잘 됐는데 청년들이라고 안 떠나겠냐고..(심층면접 4)

○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부재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통의 발달로 원하는 공연이나 콘서트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함

> 이게 그냥 주말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주에서는 비슷하고 그런 게 할 수 있는 게 비슷하고 많지 않고. 근데 저는 그거가 20대 초반에 청년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시설을 늘려야 된다던가 문화 경험이 부족해서 전북을 안 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북에는 서울에 비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 많지만 그런 곳들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서 그 메리트가 없기는 하죠. 근데 당장에 일하고 근데 주말에 이제 가끔 가고 또 요즘에 워낙 교통이 잘 돼 있어서 가려면 전북만이 아니라 충청도도 갈 수 있고 전남도 갈 수 있고 서울도 몇 시간이면 올 수 있어서 그냥 전북에 사는 친구들이 저보다 서울 놀러 더 많이 와요. 저보다 더 서울에서 많이 뭔가 문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북의 문화 이런 게 적어서 거기를 안 산다는 건 아니지 않을까(심층면접 4)

○ 실제 문화를 즐기는 방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서울과의 거리감이 그렇게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대도시 거주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다른 지역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점이 오히려 아쉽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런 인프라를 경험하는 방식이 그래서 여기에 저랑 같이 있는 분들도 이 지역이 연고는 아니고 좀 대구든 아니면 서울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좀 이제 큰 광역시 기반으로 살았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되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가끔 갔다 오지 뭐 다들 차 있으니까 서울 갔다 오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쉬고 하는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남지 않나 저도 봤을 때 서울 사람도 이렇게 잘 걸러내면 다른 지역을 경험해 보면 다른 지역에 살기 좀 더 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노마드여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 같고(심층면접 19)

○ 서울에 거주한다는 것이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지만, 그것을 매일 즐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고 있음

> 솔직히 성수도 30분도 안 걸렸어요. 성수 가는 게 근데 그때도 핫플이긴 했는데 별로 그냥 그것도 성수도 친구들도 만나고 어쩌고 해야지 뭐 친구들 시간도 안 봤는데 나 혼자 갔다 왔다 갔다 하기도 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깝기는 해도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멀리 사는 사람들은 나보고 시내에 산다고 부러워하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그랬어요.(심층면접 5)

사. 청년공동체 활동

○ 청년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는 전주지역과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 전주지역 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발적인 청년 모임과 이러한 모임과 연계되어 활동하는 전주 책방 네트워크의 활동은 지역 지원사업과 청년 활동의 결합된 좋은 예시로 보임

○ 전주지역 내에서는 청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청년인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평가도 있음

> 예를 들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주도적으로 ○○○도 그렇고 ○○○라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북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편지 관련해서 제작하는 데도. 편지를 소재로 편지지도 하고 편지 쓰기도 하고 엽서도 만들고, 네. ○○○이라는 커뮤니티도 그렇고… 오히려 엄청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도권 대비?) 네. 그리고 더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수도권이나 이런 타지역에서 막 배우고 싶어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런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심층면접 11)

▌전주 책방 네트워크

○ 전주지역에는 책방이 많고, 책방 지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주 지역 내 많은 독립서점이 존재하고, 그 독립서점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동네 책방이 또 전북 전국적으로 도 단위로 생각했을 때는 전북이 책방이 많은 곳은 아니래요. 근데 전주는 많은 곳이에요. 이게 저희끼리 어떤 자부심 그리고 뭔가 결속력 그리고 또 주변에 보고 배울 선배들 아까 그 보고 배울 선배들이 저희에게는 책방으로서는 충분하게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전주에서 책방을 열기로 한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그럴 때 뭔가 잘 익은 언어들도 여기서 15분 거리인데 뭔가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너무 제일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에게 어떤 어떤 오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보다는 이쪽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전해주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거 그리고 저는 성장할 때 선배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영역에 있는 경쟁 상대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독려도 되고 엄청난 자극을 주는 힘이 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 책방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 해요.(심층면접 11)

○ 특히 청년들의 환경, 페미니즘, 인권 등의 다양한 활동에 있어 지지대 역할을 해주어 청년 활동의 큰 지원군으로 작동

책방이 20곳 정도 돼요. 그리고 전주 책방 네트워크가 서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책방을 책방의 그 중요성이 사랑방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감수성을 깨워주잖아요. 그 타인의 사는 삶을 좀 알 수 있게 하고 책을 통해서 북토크가 많이 열리고 문화권을 형성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이렇게 책방이 있는 게 저에겐 큰 도움인 거예요. 환경 활동을 할 때도 책방 사장을 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포스터 붙여주는 것만 너무 큰 힘이고 인스타그램에 그냥 올려주는 것도 힘이고(심층면접 6)

▌농촌 작목반, 청년공동체 활동

○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 공유와 일꾼 조정을 통해 농사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목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의 경우는 공동체 활동이 명목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되는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 작목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농업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서는 청년 작목반의 활발한 활동도 보여짐

작목반은 이제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 옛날에 두레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작목반 안에서는 그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거 트랙터를 누구한테 이렇게 누구 걸 이렇게 빌려서 쓸 수

도 있고 … 외부에서 일꾼들 올 때도 이제 작목반 안에서 날짜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이 일꾼들을 여기서 먼저 쓰고 그다음 날은 여기서 쓰고 이런 식으로(심층면접 3)

○ 농사를 같이 협동하여 경작해야하는 경우와 달리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각자도생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함

청년정책협의체라는 데에 소속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활발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긍정적으로 할까? 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열심히 살고 더 절박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여기 ○○은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많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근데 또 그거를 막상 진득하게 플레이를 해줄 청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은 어업과 농업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농촌이거든요. 각자 여기 청년 친구들은 각자도생이에요. 완전히 스스로 그리고 부모님의 기반에라든지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각자 그냥 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다 흩어져 있어요.(심층면접 16)

아. 지역정체성

▌전북의 감수성: 포용과 다양성의 존중

○ 전북지역은 전주를 비롯하여 사회적 비극을 기억하고, 환경파괴에 민감한 감수성을 공유하며, 이러한 정서가 존중받아 개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비에 있어 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책제안과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다양성과 균형이 요청

○ 전주에서 사회적 비극을 기억하는 방식이나, 환경 파괴에 대한 감수성 등은 지역의 문화를 보여주고, 이 속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또 그 정서가 존중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도 함

전주에 또 세월호 광장 이태원 추모광장 있잖아요. 그걸 또 제가 그분들이랑 연결되진 못해도 그 마음으로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저도 고등학교 때 거기서 오래 있었고 근데 지금까지도 이어지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전주 시민들의 감수성인 것 같고 또 이번에 생태하천 그렇게 무너졌을 때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노하고 공중파에 나무 솔직히 천 그루 자른 거 가지고 이렇게 지역 안에서 같이 목소리 내는 지역은 많이 없다고 해요.(심층면접 6)

○ 그러나 소수자로 살아가는 경우는 오히려 부모님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면서, 수도권의 익명성이 소수자의 정체성을 더 보호해줄 수 있다는 기대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함

> 본인의 정체성이 보다 더 마이너해질 경우에, 점점 마이너해질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퀴어인데다가 그 다음에 직장이 없고 예를 들면 프리랜서로만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로만 일을 한다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소수자에 가까워질수록 친구가 더 필요할텐데 근데 더욱이나 친구들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심층면접 1)

○ 전북지역이 보수정당의 정치색보다는 진보적인 정치색을 지니고 있으나, 지역의 정치지형이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고, 지역의 열린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소통이나 새로운 정책 제안을 막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함

- 진보적인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환경이나 노동 등을 주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소수당이 일정정도의 영역을 차지한다면 오히려 지역적 정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음

>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계속 바뀌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는구나 싶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관심 없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저는 어렸을 때는 솔직히 이 지역에서 자란 게 좋았거든요. 그냥 내 성향이 여기가 맞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도 나름 트여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제 생각에 어른들은 나름 민주적인 사람들인 것 같고 나름 진보적인 것 같고 어른들도 되게 젊은 마인드인 것 같고 제가 어릴 때 보는 어른들은 그랬는데 제가 지금 좀 자라고 30대가 되니까 왜 이렇게 그거에 멈춰져서 자기들 우물 속에서만 있는 느낌이 너무 들고 그러니까 보수가 좋다 민주적 진보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견제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요새 좀 들었고 그러니까 그래야 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약간 발전이 이루어지는 텐데 그게 없고 그냥 항상 다 따놓은 거니까 거기 누구 거기서도 제일 못 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데리고 와도 다 되고 그런 식이니까 지역 발전도 딱히 없고 항상 그런(심층면접 5)

▌청년 유인할 수 있는 지역 정체성

○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책과 더불어 이미 다양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매력이 필요함. 심층면접 대상자 중에서는 귀농귀촌의 꿈을 가지고 있으나, 바로 농촌으로 이동하기 전 중간 단계로 전주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

었고, 작은 도시의 매력을 경험한 뒤 이동하고 싶다고 하기도 함. 특히 전주의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원이 다른 작은 도시들 속에서 전주를 선택하는 요소로 작동

사실 궁극적으로 저는 약간 좀 더 귀촌 귀농하고 싶거든요. 근데 바로 가기에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갭이 그래서 일단 작은 도시로 옮겨서 좀 안정적인 직장 없이 요즘 인터넷으로도 먹고 살 방법 다 많이들 찾잖아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고 약간 주변에 이제 다른 산이나 귀농 귀촌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좀 알아보면서 좀 확장돼 갈 수 있지 않을까(심층면접 9)

저한테는 딱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전공이 동양화였다 보니까 예술 쪽에도 관심이 좀 많은데 특히 졸업하고는 공예에 좀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전주 예전에 한옥마을에 온고라는 약간 공예 전시고 제품 파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공예품들도 그렇고 술 빚으면서 이제 근교에 차타고 같이 선생님들이랑 가서 막 항아리 막 그 도자기 빚는 분들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전주도 가면은 그 중간에서 공예 같은 거나 전통 문화 같은 거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겠다. 여행하면서도 또 깨끗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한국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것을 좀 더 지켜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를 기대하고 왔죠. 네 그래서 여기 국립무형유산원이랑 거기 제가 갤러리도 가서 여쭤보고 이런 공예나 이런 걸 취미 활동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심층면접 9)

○ 세계적으로 청년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간주되는 베를린, 킨포크의 도시 포틀랜드와 같이 다양성이 존중받고,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의 실천이 쉬운 지역으로 탈바꿈할 필요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도시가 내세우고자 하는 게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거인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더 밀고 나가서 극단까지 밀고 나가줘야지 그래야 좀 더 힙에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좀 더 평등하게 그리고 좀 더 퀴어 프렌들리하게 그리고 좀 더 문화 자본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특히나 전주가 기본적으로 문화 자본이 좀 풍부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영화제도 그렇고 어떤 관광 자원도 이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하고 더 디벨롭하는 방식으로다가 진짜 했으면 그래서 이곳이 약간 힙도시가 됐으면. 물론 힙도시에 또 단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서 힙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좀 힙하고 친환경적이고 에코 프렌들리하고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힙을 할 때 생각하는 그런 것들.(심층면접 1)

그냥 그 지역 분위기 자체가 전북의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있으면 재미있는 분위기라든가 그냥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뭔가 그래도 메리트가 있네라는 분위기가 되면 그분들한테 따로 뭘 지원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어차피 남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술하는 분들한테 저는 지원해 준다고 할 때 항상 좀 저는 서울에서 느끼는 건데 예술을 우선 활동을 하려면 본인들의 예술을 소비해 주는 청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중이 필요한데 아무리 전북에서 너네 월 얼마 줄게라고 지원을 한들 그거를 소비해 주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다 보면 독자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타깃으로 누군가한테 지원을 하려는 게 좀 그냥 쉽잖아요.(심층면접 4)

○ 그러나 이러한 실험이나 실천을 위해 지역 내에 청년층이 부족한 것은 이곳에서의 삶이 청년에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함

우선은 노년층이 되게 많다.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당근 없이 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기존에 살던) ○○는 어쩔 수 없이 애가 엄청 많고 거기는 하여튼 애가 엄청 많아요. 그냥 거리에 나가면 다 항상 아기가 있고 근데 여기 지역 자체는 ○○시에서도 아기가 없는 동네긴 하죠. 근데 그래도 너무 이제 그런 당근 매물 같은 것만 해도 너무 차이가 있고 그게 되게 저희는 그냥 어쨌든 걸어서 다른 단지 가서 사오거나 팔거나 이렇게 서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우선은 걸어서 반경 걸어서 하는 게 우선 좀 어렵고 항상 이제 저는 걸어서 다 누리다가 몰도 바로 걸어서 지하철도 걸어서 다 그렇게 누리다가 지금은 차 없으면 좀 병원도 소아과 이런 것도 멀고(심층면접 5)

○ 또한, 이미 전북의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통문화의 영역을 강조할 수 있으나, 너무 전통문화 일방향으로 편향되는 것을 경계하여, 전통만이 아닌 다양한 유인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함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자기 재미와 흥미에 맞는 사람들은 딱 맞아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보다 보편적으로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뭔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요소들? 강원도 양양이나 이런 데는 서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 것처럼 뭔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취미가 책이거나 전통 문화이거나 이런 거에 뭔가 꽂혀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뭔가 문화 콘텐츠나 산업 요소에 비해서는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핫한 거 있잖아요. 그런 돈 되는 뭔가가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좋지 않을까요? 문화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서 나 이거 일로 돈 벌고 싶어 하는 게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책은 좋아요. 근데 그걸로 돈 벌기는 힘들어요.(심층면접 14)

▌ 전북지역의 매력: 브랜딩의 부재

○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잘 홍보하지 못해 정체성이 불분명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북 고유의 브랜드 발굴이 필요하고, 이러한 브랜드 발굴 및 활용을 위해서는 각각이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 발굴이 요청

○ 또한 전북 브랜딩을 위한 전담부서나 전문 대행사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브랜딩 위에 청년들의 SNS 연계가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전북지역이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 연결되는 브랜드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전북의 브랜딩을 통한 지역의 매력 홍보가 필요

> 좀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이 지역 자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전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노잼 도시라는 어떤 브랜딩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이런 브랜딩이 전북도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북 하면 어쨌거나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북도도 그게 많이 부족하지 싶은(심층면접 1)

> 그러니까 이게 전주라고 하면 막상 떠오르는 게 한옥마을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놀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이제 전주 놀러 와 이렇게 하는데 전주에 어디가 뭐 하고 놀아 하면 글쎄? 왜냐하면 저 진짜 한옥마을 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한옥마을밖에 없는 느낌. 그래서 놀거리가 많이 없고 만약에 있다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심층면접 17)

○ 로컬 브랜드라고 할 때, 전북은 조금 큰 단위이지만, 14개 시군이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카페가 지역 농장의 우유와 딸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레시피 구성은 조금 더 지역친화적인 물건에 넘어서는 동네의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능

> 저희가 로컬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전북은 좀 되게 큰 단위고요. 전주로 따지면 되게 강하게 한옥마을인 거죠. 그냥 전주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의 거리. 최근에는 영화제가 100회였나 해서 100대 100 포스터 전시도 하고 막 그런 강렬하게 가져가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전주도 전주 나름대로의 약간 세태화 이런 걸 겪겠지만 이제 그런 가치들을 좀 잘 이용하자는 게 좀 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카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카페 아니고 이 음료가 우리가 직접 ○○에서 운영하

는 농장에서 나온 우유고, 딸기 농장도 그랬을 때 좀 우리가 좀 더 특별한 걸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요즘에 사실 이거 다 레시피 나오고 다 사실은 파는 걸로 다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자는 거죠. 그래야 동네가 가진 특징들을 좀 더 잘 강화시키고 할 수 있는(심층면접 19)

○ 전북 브랜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지만, 이러한 홍보를 청년들을 대상으로 SNS 홍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대행사를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비전문적인 청년들에게 기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원할 수 없고, 지원한 청년들의 성과도 보장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다는 것임

제가 브랜드 디자이너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은 너무 브랜딩이 덜 되어있어요 … 예를 들어서 안동은 안동찜닭, 안동간고등어, 안동 뭐뭐뭐 이런 식으로 딱 뭔가 그거를 어필을 하는, 대중한테 어필을 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이 많이 부족한.. 근데 이제 지역에서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그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할까 청년들이 공짜로 해주길 바래요. 그거를 하면 좋죠. 근데 뭔가 처음에 그 역할을 감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투자를 하고 활발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한 번만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SNS를 활용을 했을텐데. 저희 ○○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일하면 한 30만원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30만 원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거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원도 안 했다는거죠) 지원도 안 하고 다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군 지자체, 지자체에서 홍보팀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대행사한테 완전히 맡기던가 아니면 청년들한테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지원을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어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나쁜 청년들은 그래? 그러면 이제 대충 처음에 지원할 때만 열심히 하고 활동할 때 대충하고 어쩔 거야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원점이잖아요 돈만 쓰고(심층면접 16)

자. 정부정책

▌청년 정치 참여 실효성 강화 방안

○ 청년 정치 확대는 실제 청년사업의 기본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혹은 참여하는 청년, 학생들이나 그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증명서로 인증되는 자

기소개서에 필요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여가부에서 하는 활동도 그렇고 국무조정실에서 했던 활동도 그렇고 결국에는 슬로건 그런 거였어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 그리고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정책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 입안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었는데 … 거기에 우선 첫 번째로는 진짜로 이 정책을 내세우고 싶어서 가는 청년들이 몇 없어요. 이거는 여가부랑 국무조정실이라는 어떤 중앙정부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들의 이름이 찍힌 장이 필요한 거예요, 증이. 활동확인증이.(심층면접 1)

○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일회성의 모임이 아닌, 실제 어떤 정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과 지속적인 제안과 첨삭을 통한 정책 제안서 작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기관의 의지가 필요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한 5차례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 다섯 차례 정도의 제출과 첨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첨삭을 하는 부분, 첨삭을 할 때 이제 회원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활동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비슷한 제안을 한 사람을 묶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안전과 관련해서 안심 귀갓길과 비슷한 내용의 어떤 무언가를 얘기를 했다 해서는 저쪽에 사람이랑 비슷하다 했을 때 이 둘을 묶어가지고 그 둘이 묶어서 같이 제안을 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 제안을 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어떤 첨삭하는 과정이 저는 그거가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현실적이고 퀄리티 있는 답변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생각은 해요.(심층면접 1)

▌청년 일자리 정책의 명과 암

○ 청년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만 이루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에 지원사업 기한 동안만 다니면서 실제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

○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직장을 구한 청년의 경험에서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최저임금만 맞추어 지급하는 회사 경험은 오히려 지역 내에 일자리의 질을 약화시키기도 함

지방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중소기업은 더 어렵잖아요. 그 대신에 얘네를 고용하려면 돈이라도 많이 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 돈을 너네가 더 얹어서 임금을 줘라. 근데 사실 최저임금만 맞추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 최저임금만 대부분 이렇게 딱 쓰시는 거죠 … 고용됐을 때는

거기에 없잖아요. 내가 너네 월급 이런 걸로 주겠다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모르고 갔는데) 갔는데 이제 고용되고 나서 이런 거 OT 가야 되고 교육가야 되고 이제 이거 하면서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돈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네트워킹 같은 것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서로 공유하잖아요. 일 환경 어떠세요? 어디서 일하세요? 임금 얼마나 받고 복지 어떻고 근데 제가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취지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쓰여 오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약간 배신감?) 배신감은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사회생활 안 해봤구나.(심층면접11)

○ 청년일자리 경험 중에 내일채움공제의 경험도 있었는데, 내일채움공제의 기한이 2년이다 보니, 맘에 들지 않는 직장임에도 2년은 다닌 것을 볼 수 있음

2년 다녔어요. 근데 2년을 버티게 됐던 게 버틸 수 있었던 역할을 좀 해줬던 게 내일채움공제였어요. 내일채움공제 아세요? 여기가 이제 그래도 중소기업의 5명 그걸로 그걸 해 주신 곳이어서 처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사업을 알게 돼서 제안 드렸고 흔쾌하게 응해주셔서 했는데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저 그전에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심층면접12)

▌청년 거주지원과 창업지원

○ 청년지원금 지급 창업이나 주거 지원에 있어, 실제로는 청년들의 실제적 창업기반 조성이나 주거 안정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동산 소유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작동되는 경험을 들을 수 있었음

원래는 월세가 50만 원인데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니네 지원받는 거 있잖아 라면서 월세가 100으로 올라요. 이런 식의 것들이 소문이 돌면 이제 청년들한테 가는 지원들이 왜 여기만 가냐에 대한 약간의 시기 질투 이게 아마 관광지가 엄청 고르게 발달하지 않고 이제 골목마다도 다르고 이 동네랑 또 조금 건너편에 골목이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의 좀 완력 싸움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비교적 그래도 서울에 비해서는 돈이 좀 적게 드는 편이기는 하고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지속하는 2년 정도 넘었을 때 이제 굉장히 과하게 이제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한 10% 내로만 올리는 게 더 법인데 너랑 나랑만 합의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무대포로 나와서 이제 아예 접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약간의 겁도 나는 거죠. 어쨌든 저분은 동네 유지고 나는 일개 상인이니까 하는데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끼리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결 짓도록 해야 되나(심층면접 19)

○ 전세대출제도의 경우도 그 제도를 기반하여 전세금 상승이 일어났고, 서울에서 발생중인 전세대출 대란의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함. 또한 이러한 전세대출 사기 경험을 주변에서 경험하면서 서울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함

이제 다들 그러니까 보증보험도 들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당한 거를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365일 맨날 등기부등본을 뗄 수 없는 거고 집주인한테 맨날 카톡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만기일이 3월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만기일 날까지 계약을 다시 재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발의가 돼서 그냥 그대로 연장이 돼요. 이 친구가 (계약만기) 한 1개월 전에 연락을 한 거예요. 집주인한테 저 이제 여기 연장하고 지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 지금 전세대출이 위험한 게 뭐냐면 전세대출 제도가 생긴 이후로 전세량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걸 역이용 해가지고 이걸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한 것 같아요. 그 뻥튀기를 시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8천짜리 집이었는데 제가 한 전세대출이 막 시행되고 나서 보러가니까 한 달 뒤에 이게 막 1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 전세대출 받으면 되잖아 얘기하면서 너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갖고 와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전세대출 전세 사기 양이 많아진 것 같아요.(심층면접 16)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 청년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루어졌으며, 지원사업의 서류 작업과 보고서 작성이 과도하여, 청년들의 지원 의지를 약화시키고, 실제 사업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과 감사를 통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청년 지원사업에 있어서 분야별 사업 진행이 아닌 잠자리, 놀자리,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들과의 활동 협업에서 그들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시너지 확대 노력 필요

○ 마지막으로 지원사업의 대상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옴. 특정 직업군이나 분야의 청년 지원만이 아닌 일반적인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을 때, 청년 지원정책의 체감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원사업의 요구 조건이 많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에너지보다 오히려 지원사업 보고서와 서류 만드는데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었음

일부러도 안 받고 받을 생각도.. 받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원 사업을 몇 번 써봤더니 일단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쓰여져요. 그리고 저는 제 일상 제 균형을 잡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원 사업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또 그 기획서를 낸 만큼 그만큼 성과를 또 얻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저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과정을 했다가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양이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다 바닥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게 못할 걸 알아서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에너지의 총량이 (있어서) 네 그리고 뭔가 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들은 또 그럼 또 그냥 여기 지원받으니까 나 그냥 써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기가 어쨌든 돈을 냄으로써 소액이지만 또는 자기가 이걸 교환함으로써 자기 주체성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거를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제 목표를 두고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막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막 적자가 나는 거를 잘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하고 알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심층면접 6)

○ 농촌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실제 자부담이 높은 반면, 증빙서류가 많아서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인증에 대한 지원사업 등으로 인증의 결과물과 지원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은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업에만 동참할 예정이라는 의견도 있음

내가 어떤 내가 만든 농산물을 가지고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통을 시켜가지고 소비자한테 알리겠다고 했을 때 여기 홍보물, 홍보비 지원, 아이템 시제품 지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할 때 자부담이 꼭 있고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30%씩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통 사람들 안 해요. 이게 자본금 뭐라고 해야지 그거 때문에 내 자기 자본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내 돈 시원하게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이거 30% 쓰면서 근데 여기다가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증빙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제한되는 것도 너무 많고. 지금 현재 당장 유통할 수 있는 현금이 중요하지 뭔가 이 지원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막상 굳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법인 아직 저희는 이제 지원 사업비 이거 30%까지 부담하면서 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진짜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저희 지금 사회적 농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회적 농업 인증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또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뭔가 이중 혜택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 아니고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심층면접 16)

○ 청년사업 지원에 있어, 최소한의 예산, 최소한의 감사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

공유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근데 그러려면 예산을 쓰게 할 때 사람들한테 피곤하게 안 해야 돼요. 계속 확인을 받아야 되고 영수증 다 떼야 되고 뭐 하려고 하다가도 그 의지가 꺾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공간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자기 자본금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부담되고. 근데 만약에 도나 시에서 공간을 줘요. 그리고 정말 최소한의 예산 그러니까 최소한의 감사?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만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보고서를 내라 이런 거 없이 하면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이랑 소통이 좀 원활하게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하다가 이제 마는 경우도.(심층면접 6)

○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청년의 잠자리, 일자리, 놀자리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제안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저도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한 건 일단 잠자리 일자리 놀자리 순서가 잠자리 놀자리 일자리로 저는 순서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저의 경험 하에서는 물론 일자리가 있어서 와서 막 이런 게 막 정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잠자리가 먼저 있고 친구들이랑 재밌고 하면 그 안에서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경험들을 저는 계속해서 이게 가능한데 약간 그럴 때 이 잠자리 놀자리에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찾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걸 단순히 그냥 커뮤니티 지원사업.. 근데 그것도 커뮤니티 지원 사업 그런 거 안 해보시겠지만 지금은 근데 그런 걸 계속 해보면 저도 건강한 구조로 그걸 돌리고 싶지만 결국엔 못하게 되는 게 다 말도 안 되는 데에만 돈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거를 문제시했던 그런 문제시되는 상황들을 만들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알기는 하지만 계속 뭔가 뭐에는 안 되고 뭐에는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심층면접 11)

○ 청년들의 활동 지원과 협업에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한 존중이 요청되어 기본적인 존중을 받지 못한 느낌은 상처로 남기도 했음.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과의 협업보다는 조금 더 그들 안의 모임으로 변화하고, 지역과의 시너지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도 함

저희가 (비건 취지의) ○○○○을 하면서도 겪는 어려움인데 이렇게 놀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얘를 일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놀자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무언가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들을 해서 뭔가 저희 ○○○○센터랑도 협업을 해서 장터를 열었고 ○○○○재단과도 협업을 해서 이렇게 열었는데 … 다시는 그런 곳이랑 안 하고

싶다고 …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했던 게 그런 저희에 대한 전혀 이해 없이 그냥 그들의 사업을 알리기 위한 요소로만 저희를 수단으로 쓰는 거 그게 뭐 예를 들어 뭐냐면 행사에 추첨으로 상품을 주시는 게 있었거든요. 행사 마지막에 사람들 끝까지 좀 있으라고 근데 그 상품 류의 리스트를 저희한테 사전에 주셨는데 1등이 한우 세트인 거예요. 저희 비건행사인데(심층면접 11)

○ 청년지원정책 대상이 청년예술가 등의 특정 직종에 한정된 경우의 사업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음

예술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뭔가의 직종이나 연령층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청년들 있잖아요.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사실 그게 뭐 공무원일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냥 이런 청년들이 그래도 되게 그냥 전북이 나쁘지 않아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도권 같은 복잡한 곳이 싫어서 난 전북 정도가 딱이야라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분들에게 진짜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서 뭔가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게 뭘까에 더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심층면접 4)

○ 농촌지역 역시, 농어촌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있는 반면, 특수한 창업의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아 이를 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말해, 너무 핵심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음

그러니까 청년 사업 그러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농어촌청년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은 별로 없고요. 특히 요식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뭔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지원은 있는 지원은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개인이 어떤 거를 하려는 사람한테 나오는 지원은 없고요. 이건 근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 그런 것 같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어요. 그런 사업에 발탁을 받아서 거기에서는 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뭐라고 말할까.. 국가 정책 있잖아요. 정책의 큰 맥락 속에 있는 그런 아이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청년 사업을 하려는 사람한테 그렇게 큰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심층면접 16)

○ 청년 지원 대상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일정정도 정책 지원에 있어 경제적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계층의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때 청년 유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런 진짜 결혼해서 이제 막 결혼을 할 때도 드는 비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게 제일 큰 게 어떻게 보면 주거겠죠. 주거면에서 해결이 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여유는 있

는 것 같아요. 뭔가 결혼을 해봐도 되겠다 둘이 같이 살면. 근데 요즘은 또 집을 꼭 남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반반 생각하고 아니면 정말 그런 대출 제도라도 주거에 있어서. 꼭 진짜 없는 사람만 도와주고 막 그러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지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워낙 시작할 때 저희가 가진 돈이 없이 시작하니까 저도 막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기저귀나 아니면 뭐 그런 분유 뭐 이런 거 아동용품 지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이런 게 있네? 찾아보면 이제 그런 기초수급. 근데 정말 도와드리는 게 맞죠 이런 분들은. 근데 진짜 제가 말한 건 평균적인 저희같이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심층면접 10)

▌농촌지역 청년지원정책

○ 농촌지역의 지원정책의 대부분이 저금리 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3년 동안의 정착기로 청년이 농촌지역에 잘 정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대출에 대한 부담감과 현금 지원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함

○ 농촌지역 청년지원정책은 저금리로 대출을 하고, 5년 뒤 상환이 시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농업에서 실패했을 경우, 큰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함

청년들에게 이제 돈 같은 거를 많이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같은 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들으면 이제 뭐 지원을 더 해주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해봤자 이제 적자 나면은 이제 빚을 다 떠안아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심층면접 3)

○ 청년 후계농 지원에서의 현금지원 사업에 대해, 부채의 부담 없는 지원으로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보임

일단 지원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지원이에요 … (청년 후계농은) 1년 동안은 110만원, 1년 뒤면 2년 차부터는 이제 100만원, 그리고 3년 차부터는 90만원(심층면접 3)

○ 농촌지역의 경우는 청년인구가 적다 보니, 대부분의 시설이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더 적어지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루어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노인들이 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젊은 층이 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 뭔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영화관도 멀티플렉스관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려면 최소 익산이나 전주로 가야 되고. 또 영화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젊은 층들이면 데이트도 해야 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 그런 게 자꾸 없다 보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심층면접 13)

▌교육기반 마련 및 홍보 강화

○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나 직장이 있는 청년의 역량 강화 교육 기회 확대

이제 직장 생활해도 학원 수강할 수 있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 그거 이용해가지고 컴퓨터 학원 다녔던 적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몇 회 제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제한이 좀 줄고 이랬으면 좋겠긴 해요. 왜냐면 그게 막 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못하고 막 이런 게 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이제 이직하거나 이럴 때도 도움을 받을 수 그리고 좀 약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되는데 되는 거긴 한데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좀 다양한 루트로 접하면 이제 몰랐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알게 되고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랑 이제 자주 접하게 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알 기회가 많아지면 이제 좀 더 이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심층면접 2)

○ 청년지원정책이나 사업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 홍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옴. 특히 청년들은 정책이나 사업의 유무를 알지 못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옴

사기업이랑 약간 콜라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광고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 소모임이라는 어플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홍보가 있었으니까 저도 한 번씩 보고 왜 막 문토 같은 것도, 트레바리 같은 것도 광고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그런 데랑 콜라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그들도 할 건 하잖아요. 지역사회도.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할 건 하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몰라요.(심층면접 13)

○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청년정책들에 대한 소개를 홍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고,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업 홍보가 요청됨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준다는 것도 그냥 제가 인터넷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건지 좀 많이 다뤄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책들이 제가 그래도 좀 보려고 하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 제가 전북에 있을 때 그렇다고 청년 정책을 안 찾아본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도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더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전북에 있을 때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진짜 정말 귀농 귀촌이었던가 예술인이었던가 아니면 창업하는 사람.. 청년이 제가 아닌 이상 전북에서 저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청년수당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 건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청년들 몇 개 단계별로 해가지고 무슨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아무튼 좀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서 그런 차이가 있구나(심층면접 4)

▌전북지역 체험 프로그램 확대

○ 행안부의 청년 마을 프로그램처럼, 청년들이 지역을 체험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전북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전북에서 생활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는 기대

좀 가장 재밌는 방식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 전국의 청년 마을들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하는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역을 경험하게 하는 이게 꼭 내가 창업을 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 오면 내가 뭘 경험할 수 있고 이 동네가 뭐가 있고 이런 경험들 그리고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아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의 좀 경험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5도2촌이라는 말도 많고 이제 서울과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하면 뭐 하고 최근에 전북연구원에서 나온 거 읽은 거였나 뭔가 주소지를 2개 이상 2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주소지 같은 얘기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자꾸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런 식의 것들이 청년 마을이나 아니면 시골 언니 프로젝트 그런 식의 것들이 좀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들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왔을 때 저도 만나고 이 지역에 다른 팀들 만나고 이 동네가 이런 게 있어라고 좀 아직은 좀 설명을 해줘야 이 동네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역 관광도 막 설명해 드리고 나면 너무 재밌다는데 이거 말 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거에요. 그럼 어쨌든 그런 창구들이 좀 열려 있으면 좀 내가 잠깐의 단기라도 좀 살아보겠다 혹은 내가 창업이 아니더라도 살아보면서 일자리를 좀 구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좀 머무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알바하면서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찾아서 글도 쓰시고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좀 생기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고 있기는(심층면접 19)

3. 요약 및 시사점

○ 전북지역에 거주 경험이 있는 20~40대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으로, 조사대상은 전북에서 출생해 타지역 경험이 있는 여성, 전북에 정착한 타지역 출신 여성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으며, 전북지역에 정착한 이유, 지역 간 장단점 비교, 정주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설문 진행

▌지역 이동의 경험

○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전북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수도권 대학 진학이 지역 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함

○ 또한, 일자리와 산업 분야의 다양성 부족, 낮은 성장 가능성은 청년들의 수도권 이전을 높이고, 전북으로의 귀환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 전북지역에 일자리를 통해 정착한 경우, 전북 지역의 삶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처음 예상보다 정주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볼 수 있음

○ 전북에 정착한 이들 중에서는 프리랜서나 재택근무를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매력을 발굴할 필요

○ 농촌지역에 정착하는 귀농귀촌 청년의 경우, 지역의 농가소득이 안정적이고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타지에서 많은 청년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청년인구는 평생직장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의 평생 거주를 상상하지 않는 특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1년 살기, 3년 살기, 5년 살기를 상상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 필요

▌일자리와 창업 경험

○ 전북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경쟁력 저하가 청년들의 정착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남

○ 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정책 집중 대신에 청년들의 창업이나 창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군의 정책 설계가 변화될 필요가 있고, 일자리는 청년들을 유입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의 존재 이상의 유인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

○ 청년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의 분야 확대와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결망 구축이 요청

▌정주여건과 청년공동체

○ 전북지역의 정주여건은 교통, 의료, 교육, 소비 및 문화 영역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대비 부족하고,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주거 부문에 있어서는 수도권 대비 저렴하게 질 좋은 주거 공간 마련이 가능

○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 의료, 교통, 소비, 문화생활 등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요청

○ 청년공동체 활동은 지역으로 청년들을 이끌고, 직장을 바꾸는 시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물면서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다층적인 관계망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함

▌지역정체성

○ 전북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브랜딩 전략이 필요함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전북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함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

○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

제 5 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 방안

1. 비전과 목표
2. 전략과 실행방안

제 5 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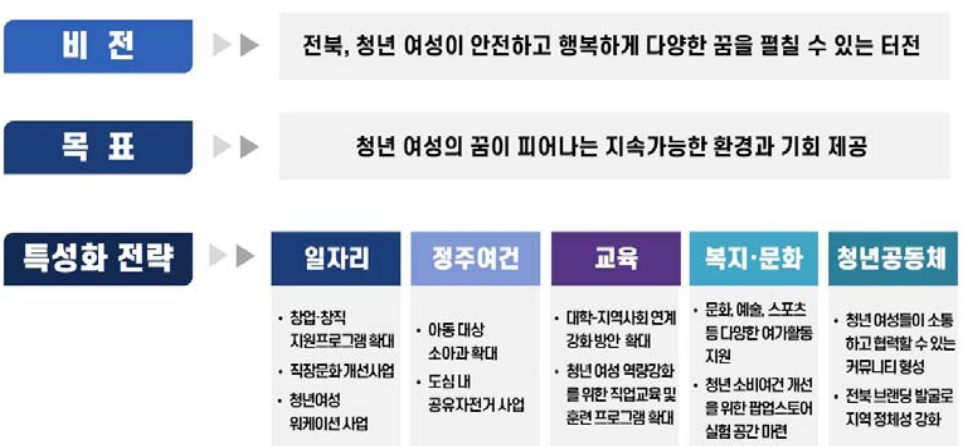
1. 비전과 목표

▌ 전북 청년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를 위한 비전 및 목표

○ 청년 여성들이 전북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기 위한 비전으로 **"전북, 청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으로 제안

- 청년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과 경험에 대해 방어막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으로 전북이 인식될 때, 전북에 연고 유무를 떠나 전북에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이러한 비전에 부응하여, 전북 청년여성 유입과 정주확대를 위한 목표는 **"청년 여성의 꿈이 피어나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회 제공"**으로 설정함



자료: 저자작성

[그림 5-1] 전북 청년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를 위한 비전, 목표 및 특성화 전략

○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분야는 '청년기본계획'의 구성을 고려하고, 전북 지역 현황

에 맞게 '일자리', '정주여건', '교육', '복지·문화', '청년공동체'로 구분하였음

- 주거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과는 달리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주거를 중점으로 하기보다 오히려 심층면접 과정에서 나타난 교통이나 의료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어 정주여건으로 변경하여 제안
-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안에 있어서, 그 참여 확대방안으로 지역 내 청년공동체 활동에 주목하여 분야 설정

○ **(일자리 분야)**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청년여성 인구의 즉각적인 유입을 의미하지 않음. 일자리에 더하여 다른 가치 실현이나, 직장 내에서의 관계와 소통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전북의 특성화 전략으로 • **창업·창직 지원프로그램 확대**, • **직장문화 개선 사업**, • **청년여성 워케이션 사업**을 제안함

○ **(정주여건 분야)**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주거지원 사업이나 전북지역 내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전북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즐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 **도심 내 공유자전거 사업**과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 **아동대상 소아과 확대 사업**을 제안함

○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으로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의 유출이 이루어지고, 이후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 다시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확대**를 제안함. 이를 통해 대학시절동안 지역 내 기업이나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통해 지역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정착을 지원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임

○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취업 상태에서 혹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선택지가 적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 **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사업**을 제안함

○ **(복지·문화 분야)**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공연·스포츠·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요청되어 •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 제안하고, 청년 여성들이 지역 내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소비 영

역 확대를 위해 • **청년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팝업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사업**을 제안함

○ **(청년공동체 분야)** 청년공동체 분야에서는 전주의 지향집 사례에서 보듯이 공동체 커뮤니티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지역 내 창업과 연결하고, 주변 거리의 상점 풍경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 • **청년 여성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을 제안함

○ 또한 이런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전북 이미지 발굴이 요청되어, • **전북 브랜딩 발굴로 지역 정체성 강화 전략**을 제안함

2. 전략과 실행방안

가. 일자리 분야

▌ 창업·창직(創職)지원 프로그램 확대

○ 지역 내의 일자리 확대 사업에서 특정 산업 육성 외에도 실제 청년들이 창업 및 창직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창업을 촉진할 수 있음

○ 전북 군산 지역의 “로컬라이즈 군산” 사업은 지역 혁신 사업가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돕고,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며, 지역을 축제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혁신 거점 공간을 구축하여 거주를 지원함

○ 군산은 대기업의 제조공장이 폐쇄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고, 동시에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기반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SK E&S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사회적 기업 언더독스가 협업하여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를 수행

○ 2019년부터 2021년에 이르는 기간, 로컬라이즈 타운 총 방문자수(오프라인 기준)는 17,774명이며, 사업으로 인한 고용인원은 127명, 3년간의 총 매출은 99.5억으로 큰 성공을 거둠

○ 23개의 창업팀을 선발했고, 3년간 이 사업체는 지속되었으며, 이 중 타지 출신 군산 이주비율은 33%에 달함

○ 로컬라이즈 타운 벤치마킹 방문자 수는 554명에 달하고, 창업팀의 지역 협력 건수는 3년간 500건에 이르러, 지역 창업이 창업자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줌

[표 5-1] 로컬라이즈 군산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목표	- (교육) 지역혁신 사업가를 모집, 교육하여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아이템 발굴 및 확장 - (놀이·축제) 로컬라이즈 군산 지역을 축제의 공간으로 변화 - (주거) 지역 혁신 거점 공간 구축 및 거주 지원
주요 행위자	- 지역기반 에너지 사업 대기업 SK E&S - 혁신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사회적 기업 언더독스 - 사업에 참여한 혁신 창업가, 지역 내 공동체 등
성과	- (2019년~2021년) 로컬라이즈 타운 총 방문자수(오프라인 기준): 17,774명 - 사업으로 인한 고용인원: 127명 - 3년간의 총 매출: 99.5억 원 - 23개의 창업팀 선발, 3년간 100% 지속, 타지 출신 군산 이주비율: 33% - 로컬라이즈 타운 벤치마킹 방문자수: 554명 - 창업팀의 지역 협력: 500건 (3년간)
의미	- 지역창업이 창업자의 프로젝트를 넘어 지역으로 확산되는 성공적 실험

자료: 로컬라이즈 군산 아카이브 2019-2021

[표 5-2] 로컬라이즈 군산 3년간 사업

	2019	2020	2021
계획	로컬 창업팀 육성 및 초기지원	로컬 창업팀 제품/서비스 역량 강화	로컬 창업팀 비즈니스 안정화 및 자립 기반 마련
군산 프로젝트	군산 정착과 창업 및 지역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 19 대응하며 성장의 발판 마련	네트워크 확대로 지역 재생 효과 창출
LEARN	- 23개 로컬 창업팀 선발·정규교육	- 로컬 창업팀 성장지원 프로젝트 - 3개 신규 로컬 스타트업 선발 교육	- 비즈니스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 투자유치를 위한 실무교육
PLAY	- 로컬라이즈 업 페스티발	- 로컬라이즈 온·오프라인 페스티벌 - 창업팀 소모임 정규화	- 로컬라이즈 군산 위크
WORK	- 로컬 창업팀 아이템 사업화 - 지역 네트워크 모색	- 파트너사 프로젝트 - 로컬시티 展 / 로컬라이즈 라이브 2020	- 로컬라이즈 군산 크라우드 펀딩 기획전 - 항구시리즈 로컬맥주전 - 로컬 창어팀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STAY	- 로컬라이즈 군산 타운 거점 공간 조성 - 참여자의 전용 숙소 지원	- 로컬라이즈 군산 거점 공간 활성화 - 참여자 장단기 거주 지원	- 로컬라이즈 군산 리얼 타운 형성 - 타지역 참여자 거주지 이주

자료: 로컬라이즈 군산 아카이브 2019-2021

자료: 로컬라이즈 군산 아카이브 2019-2021

[그림 5-2] 로컬라이즈 군산 공간들

○ 로컬라이즈 군산 사업의 경우는 혁신창업가를 위한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의 협동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북지역의 다른 공간에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실험이 가능

○ 특히, 전북 브랜딩 발굴과 연결되어 전북이 추구하는 가치와 창업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을 연계하는 스토리텔링의 발굴로 혁신 실험의 가치를 부여하고, 청년들의 상상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매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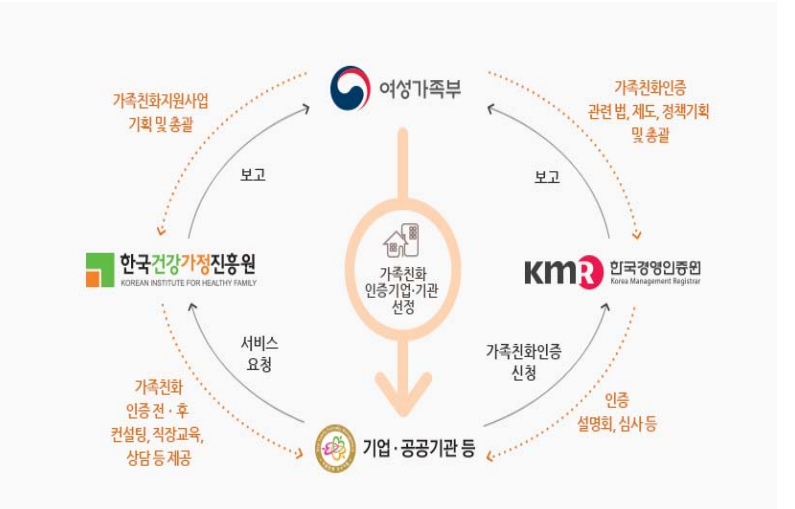
▌ 직장문화 개선 사업

○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로 진단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법정 제도를 넘어선 출산·육아 지원과 생애주기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우수 기업에게 고용노동부는 정부 표창을 수여함(고용노동부 24.5.28 보도자료)

- 부모 육아휴직 등 맞돌봄 지원,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 운영
- 채용과정 중에서의 공정성 강화
- 여성관리자 육성 등 성별 불균형 완화 노력

○ 저출생이 심각해지면서 유연한 근무제 도입이나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일·생활 균형을,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가족친화사업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여성가족부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자료: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ffsb.kr/ffm/ffmCertBusiGuide.do?menuSeq=1146)

[그림 5-3]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

○ 유사하게 안양시, 세종시, 충청북도 음성군,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기금 사용에 있어, 여성친화기업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성평등 교육 지원이나 여성취업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에서의 가점 등을 추가하여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을 수여함

[표 5-3] 세종시 2024년 여성친화인증 기업

구분	주요내용
정의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사업예산	- 4,000만원(시비 100%) - 지원규모: 2개 기업체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지원내용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개소당 2,000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지원 -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취업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가점 부여

자료: 세종시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bbs/R0071/view.do?nttId=B000000113593Uw1sH4x

○ 전북자치도 역시 가족친화인증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 기업환경개선 사업 역시 시행 중이므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여 전북형 여성친화기업인증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및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성평등 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근로자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청년 여성 워케이션 사업

○ 청년 여성의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전북지역의 매력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이후의 인생의 여정에서 전북지역과의 연맺기가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디지털 노마드 문화 확산을 위해 디지털 노마드 지원사업*을 수행 중임

*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과 업무에 필요한 각종 기기, 작업 공간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유목민을 일컬음

[표 5-4] 제주 2023년 디지털노마드 지원사업

구분	주요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디지털 노마드 문화 확산
사업예산	- 10개사 내외 (기업당 6백만원 이내), 최대 6,000만원
신청대상	-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 등록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화상회의: 기업 내외부간 회의 등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 - 협업 Tool: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가상화솔루션: 데스크톱 가상화, 메타버스 오피스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 환경 및 상호 작용이 가능한 교류, 소통 환경 제공 서비스 (단순 가상공간은 미해당) - 보안솔루션: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공유오피스: 제주지역 내 공유오피스 이용 요금(기업당 최대 2백만원 지원)

자료: 제주테크노파크. 2023년 디지털노마드 지원사업 모집공고

○ 제주자치도의 디지털노마드 지원사업 등과 같이 전북 기업 근무환경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현재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이나 농식품부의 '농촌 빈집 정비·이용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워케이션 공간 제공이 가능

○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5대 주요 과제를 선정, 전국단위로 확산하고자 하였음

- 근로자가 직장과 떨어져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을 즐기면서 일도 수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 조성 지원 사업

[표 5-5]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으로 경제활력 제고
총사업비	- 총 200억 원, (특교세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사업내용	- 지자체 旣 추진사업 중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5대 과제를 선정, 공모를 통해 전국단위 확산
주요 내용	- (두 지역 살이) 도시거주자가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지원 - (로컬벤처) 지역 정착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자리와 주거지로, 주거공간과 구직 활동을 동시 지원 - (로컬유학) 도시거주 초·중학생이 로컬학교에서 일정기간 전학하여 생태학습 등 교육을 체험토록 가족 체류 공간 지원 - (워케이션)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업 연계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 지원 - (은퇴자마을) 은퇴자에게 전원생활 등 단기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자료: 행정안전부. 2024.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통해 살아 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보도자료

○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고향올래(GO鄕All來)' 워케이션 사업에 지원하여, 전북의 매력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

[표 5-6]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鄕All來)' 지원 계획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연친화적이고 목가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직장에 근무하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전북지역에서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총사업비	- 총 20억원, (특교세 10억원,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사업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시행 등 자치도 내 관광지구와 연계하여 워케이션 센터 조성하여, 근로자의 자연친화적 노동환경 제공
사업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구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시군 중 지원을 받아 진행

자료: 저자작성

나. 정주여건 분야

▌ 유·아동대상 소아과 확대

○ 전북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어려움, 특히 소아과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불만은 아동들이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할 수 있어, 모든 아동이 균등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개선할 필요

○ 특히, 소아과 질환은 급작스러운 증상 변화가 자주 일어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의료 대응이 요청되어, 지역 내의 소아과 병원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긴급상황에서의 대응 시간을 단축하여 효과적임

○ 가까운 거리에 소아과 병원이 위치하는 것이 이동시간과 비용 절검을 돕고,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어, 아이를 가진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

○ 청년인구의 유입 증진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이후 유·아동 관련 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여, 이러한 기반 확장 노력이 요청

○ 즉각적인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은 어렵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의 전북지역 확대나, 혹은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 및 유지가 실제 의료기관에게 부담이 된다면, '달빛 어린이 병원'의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 소아과 병원을 지원해 주는 방식도 도입 가능

○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주시에 3곳, 부안군, 김제시에 1곳씩 위치하여 5개 기관이 운영중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에 더하여 도와 시군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시스템 확대 고려 필요

[표 5-7] 보건복지부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사업

<table>
<tr><th>구분</th><th>주요내용</th></tr>
<tr><td>목적 및 방향</td><td>-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td></tr>
<tr><td>사업비자원</td><td>❶ (전일 운영) 주 7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산정(운영시간이 길수록 인상분 증가)
〈 (전일 운영)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식* 〉
<table>
<tr><td>야간/휴일 진료시간</td><td>41시간 이상 46시간 미만</td><td>46시간 이상 51시간 미만</td><td>51시간 이상 56시간 미만</td><td>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td><td>60시간 이상</td></tr>
<tr><td>보조금 (백만원)</td><td>160</td><td>180</td><td>220</td><td>280</td><td>360</td></tr>
</table>
* 단,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국가포털통계 시·군·구(행정구 구분) 인구통계상 만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각 보조금의 1.2배 지원
❷ (활성화 특례) 일부 요일 운영하지만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에 소재한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산정
〈 (활성화 특례)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식 〉
<table>
<tr><td>야간/휴일 진료시간</td><td>15시간 이상 21시간 미만</td><td>21시간 이상 26시간 미만</td><td>26시간 이상 31시간 미만</td><td>31시간 이상 36시간 미만</td><td>36시간 이상 41시간 미만</td></tr>
<tr><td>보조금 (백만원)</td><td>60</td><td>80</td><td>100</td><td>130</td><td>160</td></tr>
</table>
❸ (토·일 야간 운영) ①전일 운영이 아니면서 ②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달빛어린이병원 중 토·일 10시 이전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토·일 각각 3,000만원 지원</td></tr>
<tr><td>참여형태</td><td>❶ (일반 운영) 진료의사가 2인 이상인 단일 병의원이 책임 운영, 주 7일운영
❷ (일부요일 운영) 단일 병의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 요일만 운영
❸ (연합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당번제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td></tr>
</table>

자료: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표 5-8] 전북자치도 반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안)

□ 필요성(추진 배경 및 목적)

○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진행 중
- 전주시 3곳, 부안군, 김제시 1곳씩 위치, 총 5개 기관 운영
○ 보건복지부의 지원에 더하여 도와 시군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시스템 확대 고려 필요

□ 사업개요

○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일부 요일 운영이나 연합운영방식에 추가지원을 도입하여,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거나, 전북자치도 특화 (반)달빛 어린이병원 진행 가능
○ 연합운영과 일부요일 운영을 통합해서, 소아과 진료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확대

□ 사업목표

현재		목표
‣ 전북자치도 내 달빛어린이병원 5곳 운영	➜	‣ 달빛어린이병원 및 반달빛어린이병원 확대로 소아과 병원 접근성 확대

□ 추진계획

○ 권역별 (반)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가능성 검토
○ 도비와 시군비의 재정지원을 통한 (반)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자료: 저자작성

○ 다른 방안으로는 ICT 기반 원격 의료 서비스 체계를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함. 유·아동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의사표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실시간 상담보다는 원격 협진 기반의 홈케어 서비스가 가능

- 원격 협진 홈케어 서비스는 어린이가 야간, 휴일 등 취약 시간에 아픈 경우, (가칭) 어린이 케어 센터로 연락하면 방문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기로 생체 징후를 측정하고, 이를 중앙 센터에

상주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공유하는 협진 방식의 의료행위(KBS 뉴스 23. 10.19)

○ 이 사업은 소아청소년 의원이 시지역에 집중된 경북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전북지역에 도입 가능

[표 5-9] ICT 기반 원격 협진 기반 소아 의료 서비스 사업(안)

□ 필요성(추진 배경 및 목적)

○ ICT 기반 원격 의료 서비스 체계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 가능

○ 유·아동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의사표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실시간 상담보다는 원격 협진 기반의 홈케어 서비스 요청

- 원격 협진 홈케어 서비스는 어린이가 야간, 휴일 등 취약 시간에 아픈 경우, (가칭) 어린이 케어 센터로 연락하면 방문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기로 생체 징후를 측정하고, 이를 중앙 센터에 상주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공유하는 협진 방식의 의료행위(KBS 뉴스 23.10.19)
- 유사 사업이 소아청소년 의원이 시군에 집중된 경북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전북지역에 도입 가능

□ 사업개요

○ 어린이 케어센터를 통해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하여, 중앙센터와 연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공유하여 협진

○ 소아청소년 의원이 부족한 군지역의 아동 의료 상황 개선 가능

□ 사업목표

현재		목표
‣ 시행되는 사업 없음	➜	‣ 어린이 케어 센터를 통한 ICT 소아 의료 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섬 지역 어업인 원격진료 서비스와 같은 ICT 기반 원격 의료 서비스 확대 사업 연계하여,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자료: 저자작성

▌도심 내 공유자전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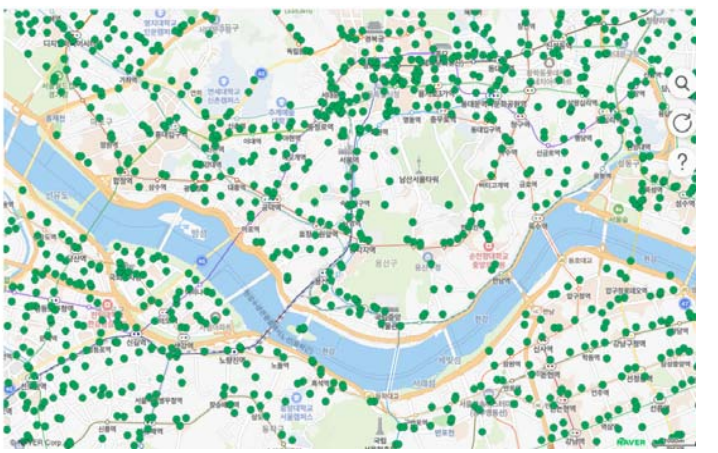
○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전북지역의 교통에 관련된 의견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구매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도출됨

○ 이에 대안적으로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공유 자전거 사업 확대나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 등이 가능

○ 공유자전거의 경우, 전주지역에서는 꽃싱이 자전거, 군산시, 남원시 등에서도 자전거 대여가 특정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지역의 따릉이와 같이 각 시군 곳곳에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님

○ 전북지역 내 가칭 삼천리길 사업과 연계하여, 산책로와 연계되는 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주차시설 마련,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영자전거 혹은 민간운영 공유자전거 사업의 도입 가능

○ 특히, 자전거의 적극적인 이용은 전북의 지역 이미지 발굴에 있어 친환경적으로 도시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음



자료: 따릉이 홈페이지

[그림 5-4] 서울지역 따릉이 대여소 현황

○ 세종시의 수요응답형 버스인 '이응버스'는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동선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승·경유하는 방식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중간 경유지 없이 도달하는 택시와 정해진 노선의 모든 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중간 성격을 지님

○ 특히, 세종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버스와 환승 연계가 가능하여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세종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어,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전북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다. 교육 분야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확대

○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학 시절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연계하여 활동을 한 경우, 지역 내의 벤처팀에 참가하거나 혹은 종교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대학이 인구 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 종종 목격됨

○ 이에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사업 중 교육분야는 "교육의 힘으로 살리는 지역"을 비전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 글로컬대학·RISE사업이 수행 중임

○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정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대학, 기업으로 연결되는 지역 특화형 교육을 실현. 대학의 전공분야 선택으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미래 설계가 가능하도록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지역의 인재가 일자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기보다는 지역 내의 정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혁신 중점 분야에서의 산학협력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분야에 있어 지역 특화산업 중심 접근에 더하여, 청년 여성 일자리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

○ 특히 교육부의 선정 결과로 교육발전특구나 RISE계획의 사업 수행이 가능해지는데, 지역 인구 확대를 위해 일·가정 양립 분야의 돌봄·보육분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화산업 취업 분야에서 청년 여성 방안을 마련하여 경로를 제안하는 것이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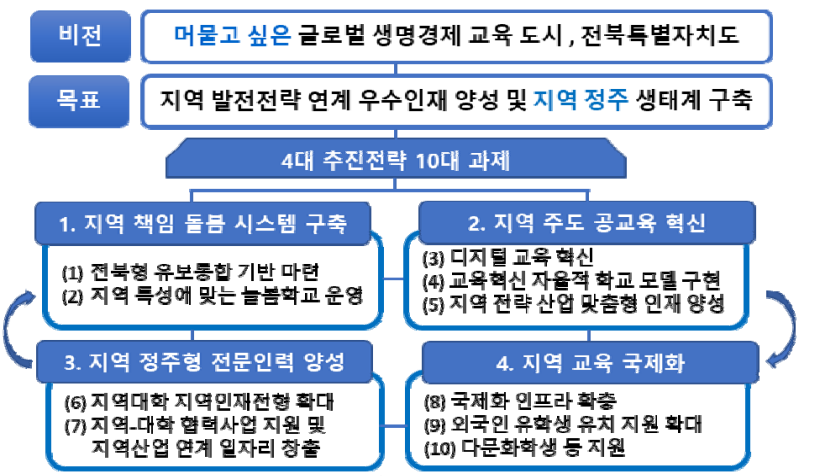
주기별 청년 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에 기여 가능

- 산단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와 연계하는 경우 늦은 밤에도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운영이나, 여성 전용 택시 서비스,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보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

[표 5-10]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

구분	주요내용
목표	-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개념	-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정책방향	-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핵심전략	- (지역주도)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공교육 혁신)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 방안 도출 및 시행 - (유기적 연계) 유아-초중등-고등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교육청-지역산업 간 긴밀한 연계 하에 정책 시행 - (지역 책무성)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되 명확한 성과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성 확보
기본방향	-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 지자체 지원 확대 - 공교육 경쟁력 강화 - 규제 합리화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320&s=moe&page=72789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발전특구 교육 특구 비전·목표 및 전략

[그림 5-5]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특구 비전·목표 및 전략

[표 5-11] 교육발전특구 내 여성 교육·취업·정주 경로 발굴 제언(안)

□ 필요성(추진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의 중점 사업인 지방시대 사업 중 교육분야에서 "교육의 힘으로 살리는 지역"을 비전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이나 글로컬대학·RISE사업이 수행 중임

○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기역 공공기관 협력하여, 지역인재 양성하고, 이들의 정주를 지원하는 방식

- 고등학교, 대학, 기업으로 연결되는 지역 특화형 교육 실현으로 대학의 전공분야 선택으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미래 설계 가능
- 지역의 인재가 일자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기보다는 지역 내의 정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분야에 있어 지역 특화산업 중심 접근에 더해,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 기반 계획 수립 필요

- 지역 인구 확대를 위해 일·가정 양립 분야의 돌봄·보육분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화산업 취업 분야에서 청년 여성 방안을 마련하여 경로를 제안하는 것이 생애주기별 청년여성 유입 및 정주확대 기여

□ 사업목표

현재		목표
‣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RISE 사업 등을 수행 중	➜	‣ 교육발전특구 내의 생애주기별 청년 여성 유입 및 정주확대 방안 발굴

□ 추진계획

○ 산단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와 연계하는 경우 늦은 밤에도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운영이나, 여성 전용 택시 서비스,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보 등의 사업 추진 가능

자료: 저자작성

▌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 전북 지역 내 학원의 다양성과 수의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을 위한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대안과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인터넷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강좌가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 지리적 한계 없이 다양한 직업교육과 훈련이 가능하지만, 지역 특성의 반영이 부족하고, 수업의 강제성이나 상호 소통이 어려워, 지역 내의 오프라인 직무교육 역시 강화할 필요

○ 지역 내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여성 맞춤형 교육을 제공

○ 또한, 청년 여성들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직업 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해 청년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

자료: 황태규. 2024. 지방시대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 제안,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정책포럼 발표문

[그림 5-6] 고등평생교육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인적자원 개발 방향

라. 복지·문화 분야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

○ 청년 여성의 유입과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은 필수적이고, 심층 면접 대상자 중 주말마다 이루어진 석 달간의 '전주의 술 만들기' 수업 참가 이후, 전주로의 이주를 고려했다는 점은 지역 경험을 피상적인 관광만이 아닌 적극적인 소통이 되는 경험을 보여줌

- 전북지역 시·군의 다양한 전통 술에 대한 소개와 경험은 전북을 전주 한옥마을만이 아닌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인식하고, 전북에 대한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자기 귀촌의 목표를 수립

○ 특히, 전북의 풍부한 전통 문화를 활용한 연계 사업들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으나, 청년들이 많이 알지 못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

회차	일자	강사	강의명	강의내용
제1강	5.25	박소영 (전주전통술박물관 관장)	전통주 문화론 및 시음 *오리엔테이션	우리 술의 문화와 역사, 전통 가양주의 우수성과 역사성에 대한 인문학 강의 / 시음
제2강	6.1	유송이 (전주전통술박물관 실장)	개미알이 동동 – 단양주, 부의주 빚기	한 번 빚는 단양주, 부의주 빚기 술 빚는 순서 익히기
제3강	6.8	김유녀(수작 공동대표)	누룩의 이해 – 이화곡 빚기	발효제 누룩의 이해 쌀가루누룩 빚기 실습
제4강	6.15	유송이 (전주전통술박물관 실장)	이양주, 죽으로 빚는 밑술	두 번 빚는 술, 이양주의 원리 알기 죽으로 빚는 밑술 실습 밑술의 발효 관리
제5강	6.22	유송이 (전주전통술박물관 실장)	석탄주와 이양주 덧술의 이해	석탄주 덧술의 원리 이해 고두밥 찌기 복습 술독관리, 온도관리의 중요성 알기
제6강	6.29	김유녀(수작 공동대표)	이화곡으로 빚는 이화주	떠먹는 술, 이화주 이해 구멍떡으로 술 빚기
제7강	7.6	유송이 (전주전통술박물관 실장)	전주의 향토음식, 모주(母酒) / 수료식	모주의 역사와 문화적 기원 이해 술지게미의 활용과 모주 끓이기실제

자료: 전주전통술박물관 홈페이지 (http://urisul.net)

[그림 5-7] 전주 전통술박물관 홈술빚기 클래스

○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은 청년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가능

-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스포츠 이벤트 참여 등으로 지역민과의 사회적 유대감 강화와 지역에 대한 정체성 향상

- 전북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연계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청년 여성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부여

○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 내 이전 공공기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역과 조금 더 연계되어, 지역을 단순히 직장이 위치한 베드타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장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통문화 기관들과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수업 개설이나 특강 등의 기획 사업 수행이 필요

-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내 활동으로 전통문화 관련 재단이나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서 강의하거나 혹은 공공기관 내 동호회 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설 등이 가능

[표 5-12]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전통문화 기관 연계 사업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 이전 기관의 근무자들의 전북지역 이해를 확대시키고, 전북 지역 내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확산 - 전통문화기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수행을 통해 관련자들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 후계자 육성 도움
총사업비	- 2,000만원 (커뮤니티별 활동 지원금 팀 당 최대 200만원 지급)
사업내용	- (업무협약 체결) 공공기관의 지역 내 활동으로 전통문화관련 재단이나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 (특화 프로그램 강의) 특화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서 강의 - (동호회 활동 연계) 공공기관 내 동호회 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설
기대효과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커뮤니티 연계 강화 - 지역 내 문화기관들의 교육 활동 활성화

자료: 저자작성

자료: 전주전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dongheon.or.kr)

[그림 5-8] 전주전통문화연수원 2024년 교육 프로그램

▌청년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팝업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 심층면접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아쉬움은 청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이었음

○ 대형마트, 아울렛, 쇼핑몰 등의 부족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벤처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청년 창업자들의 신제품 팝업과 대기업 팝업을 같이 운영하는 방안 필요

○ 청년 창업자들이 신제품을 테스트하고,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의 장인 팝업의 효과와 요즘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기업 팝업의 공동 운영은 대기업이 확보한 고객 유입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제품과 브랜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또한, 청년 창업 아이템과 대기업의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 구축으로 사업 확장의 가능성 높이는 것이 가능

[표 5-13] 팝업 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사업 계획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 청년 창업자들에게 신제품을 테스트하고,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기업 팝업과 함께 운영하여 청년 창업자들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 전북지역의 소비문화가 활성화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에서 청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사업내용	- (창업벤처 공간 조성) 지역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벤처 공간 마련하거나 혹은 기 조성된 창업벤처 공간 옆에 유휴 부지 확보 - (공동 팝업 스토어 운영) 일정기간동안 공동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청년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대기업에는 저렴한 공간 제공 및 시설 지원을 통해 판매 실험 지원 - (마켓팅 및 홍보 강화) 공동 팝업스토어의 마케팅 및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소비자 유치
기대효과	- 지역 청년 창업 아이템 홍보 및 인지도 확산 - 지역 내 청년 소비문화 확대 기대 부응

자료: 저자작성

마. 청년공동체

▌청년 여성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지원

○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공동체 과업수행비 및 멘토링 지원,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팀당 1천만원씩 총 15개 팀에 지원 중임

[표 5-1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구분	주요내용
추진목표	- 청년공동체를 발굴·확산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청년공동체 과업수행비 및 멘토링 지원, 네트워크 교류·협력(팀당 10백만원 지원)
사업대상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기업
사업비	- 총 사업비 150백만원(15팀, 도비)
사업운영	- 전북청년허브센터
기대효과	- 지역 내 청년공동체 활성화 및 멘토링을 통한 지역과의 연대감 상승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2024.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이러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실제 전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인 '지향집'의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주 지역에 위치한 '지향집'은 지향하는 가치를 모아(zip) 지향이가 살았던 집(home)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제로웨이스트 숙소 및 커뮤니티 공간임

- 청년들의 친환경적인 지향 실험을 실천해보는 장소이자, 지향집의 공간을 내어준 청년 어머니의 성함을 따서, 어머니가 살던 집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2022년부터 지향집 실험이 진행 중

○ 지향집은 열린 공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문이 개방되어 있으며, 누구나 집 안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돈을 내거나, 자신의 재능을 나누거나 혹은 자신의 노동을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 나누고 싶은 음식을 지향집 부엌에 위치한 냉장고나 팬트리로 가져다 두기도 하고, 자원순환 옷장에 본인에게는 지금 쓰임이 없으나,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물건들을 나눌 수도 있음

○ 전주에 방문했으나, 잠자리가 없는 경우 지향집 침실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초이록이라는 비건 식료품점에는 비건 식품들과 수공예품을 파는 작은 상점도 마련되어 있음

자료: 직접 촬영 및 지향집 인스타그램

[그림 5-9] 전주 지향집의 배치도와 내부 사진

○ 지향집 안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는데, 고정된 멤버의 결성이라기보다는 지향집이라는 공간 근처에서 위치한 사람들의 느슨한 모임으로, 각자 참여하고 싶은 모임을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식

[표 5-15] 전주 지향집 활동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고정 프로그램	- 지향집밥 : 늘 열린 같이 밥을 먹는 프로그램으로 3,000원에 제공 - 일상의 비결 : 우리의 일상이 뭔지 한 사람당 조명하는 것. 그 사람이 일상의 비결을 가져오면 모임 진행 - 아로마그림테라피, 시쓰기모임, 영화보기 등이 진행 - 요가 : 2팀. 화요일 오전, 화요일 저녁에 각자 다른 선생님들이 진행 - 찬찬찬 : 매우 일요일 저녁 7시~9시에 진행. 1명당 한 달에 3만원을 내고 반찬을 다 같이 만들어서 일주일 먹을 끼니를 챙겨가는 프로그램. 비건식으로 준비되고, 조리과정은 지향집 부엌에서 이루어짐 - 읽기와 잇기 : 한 달에 한 번, 타인의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제로 논의되는 독서모임 - 퀴어이론 공부 모임 :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퀴어이론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 - 지향집 카페 : 격주에 2번씩 바리스타 일정에 맞춰서 진행 - VJ특공대(제로불모지) : 한 달에 한 번 밥 먹고 영화보고 다큐보는 모임
일회성 모임들	- 지향글방 : 3개월 단위로 2번 정도 진행. 글을 같이 쓰고, 글 쓰는 법을 서로 알려주기는 모임 - 북토크 : 책에 대한 토론 모임 - 오미자 : 오늘 일을 미루지 말자. 작년에 지향집 코어 커뮤니티로 참여.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안부를 묻고 탄탄히 관계를 만듦. 현재는 결속력을 위해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음 - 운동클럽 :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운동을 인증 - 아침모임 : 밴드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인증 - 희안한 영화모임 : 반년 정도 진행. 매달 한 가지 주제로 영화보기 - 간헐적 모임들: 누군가 지향집에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재능을 함께 나눔. (예: 대구에서 오신 탐조하시는 분과의 모임, 난개발 이슈의 연극, 지리산 난개발 워크샵, 데이터 정리 모임 등이 진행) - 팝업 : 제철 채소로 피클 만들기. 옷 교환파티 - 못나니 농산물의 거점공간 - 재능나눔 모임: 뜨개질, 바느질 방법 나눔, 비건쿠키 만들기 등
전시 공간	- 지향집 공간을 이용한 공연이나 전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

자료: 지향집 사례조사 인터뷰

○ 이 외에도 지향집 대표의 이전 활동 볼모지장이나 환경운동을 통한 다른 활동들과도 연대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불모지장은 '불편한 모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터'로 환경 불모지를 비옥지로 만들겠다는 목표의 폴리마켓. 1년에 두 번씩 열리고, 현재 4년째 지속 중임

○ 이러한 지향집 커뮤니티의 존재는 사람들이 지향집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면서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전주 내에 창업 공간을 소개받아 카페나 식당, 책방을 여는 경우로 연결되기도 하고, 지향집의 존재로 전주에 내려와서 살 집을 찾다가 전주로 이주한 경우도 만날 수 있었음

○ 이들의 활동은 지향집 주변 서서학동 내의 카페이나 식당에서 비건 메뉴를 추가하고, 비건샵이 들어서고, 주변 책방에서 지향집의 활동을 선전하고, 지향집은 주변 커뮤니티를 선전하는 등 서로 돕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청년 커뮤니티 활동의 성공사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막상 지향집의 경우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을 받지 않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작성 등의 시간이 많이 드는 점,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 참여자들의 우리 안의 협력 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점이 그 이유임. 따라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을 커뮤니티 활동 지원금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사업 협업 등의 다양한 지원 방식 발굴이 요청됨

▌전북 브랜딩 발굴로 지역정체성 강화

○ 청년 여성들이 전북 지역을 매력적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딩 전략이 필요함

○ 친환경(Eco-friendly): 최근의 기후위기와 세계적인 전염병의 경험은 청년 여성들에게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과 환경 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도록 함

- 전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으며, 친환경 카페, 식당, 마켓 등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음

○ 다양성 존중(Respect for Diversity):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는, 청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험하고 추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북을 인식하게 할 수 있음

○ 전통(Tradition): 전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유산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해볼 수 있는 전통 음식, 건축, 예술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청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예를 들어, 전주비빔밥 쿠킹 클래스, 한지 공예 워크숍, 판소리 공연,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패션 및 뷰티 제품 등을 생산하고 소개할 수 있음

○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전북,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다양성과 안전의 땅"의 이미지 발굴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청년 여성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유튜브 채널 운영, 인스타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전북의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REFERENCE

관계부처 합동. (2022). **윤석렬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1~`25]**

관계부처 합동. (2024).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권수빈. (2020). **청년세대 연구에 지역이라는 교차로 놓기: '지방대학생/지방청년'에 관한 학술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7권 제4호

김민석·강민규. (2023). **개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수도권 청년유출 영향 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36집 제2호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제24권 제1호

김수아. (2021). **청년정책과 청년담론: 젠더 관점의 고찰**.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김유현. (2021).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55권 제2호

김혜정·구혜경. (2022). **청년 여성은 왜 울산을 떠나는가?**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동남지방통계청. (2023).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문영만·류장수. (2020).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청년의 유출입 특성 및 유출 결정요인**. 지역사회연구 제28권 3호

박지영 외 3인. (2022). **경남 청년여성 인구 유출 대응 방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서울신문. (2023. 11. 2).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못 멈추면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 700만명 줄어든다**.

여수연. (2022). **꼭 떠나야 하나요?: 지방 여성청년의 생애기획과 정체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대응. (2023). **지방의 청년세대 인구구조와 이동에 관한 실태 분석 및 정책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5권 1호

이상호. (2024).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지역산업과 고용 vol. 12. 한

국고용정보원, (사)한국지역고용학회
이순미. (2018). **지방중소도시 청년들의 다차원적 빈곤과 행복의 역설**. 한국사회학. 제52집 제4호
이영석·송선혜. (2020).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이찬영·문제철. (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6호
전북연구원. (2022).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11
전북특별자치도. (2024).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성조. (2019).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19년 가을호 (통권 제123호)
조용화·강문식. (2024). **전라북도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최종렬. (2018). **복학왕의 사회학**. 오월의 봄
황경란·정의솔. (2023). **충북 청년여성의 유출현황 및 정책과제**. 충북여성재단

SUMMARY

Strategies to Increase the Youth Population in Jeonbuk State: Focusing on Young Women

Heejin Jun · Juyeon Lee · Ahram Jeon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s

○ Faced with a shrinking and aging population, Jeonbuk State must devise ways to effectively navigate the potential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in its eastern, western, and provincial border areas, primarily driven by low fertility rates and the exodus of the young population.

○ Thus, we propose measures to minimize the outflow and encourage the inflow of the female population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opinions of the region's women about the exodus of female youth.

○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population and youth policies, performed statistical analyses of related datasets, and examined population and youth policies and projects at home and abroad.

○ Leveraging the analysis of how to prevent the exodus of young women and motivate them to become the resident population,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and surveys targeting you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from Jeonbuk State to identify relevant policy and project opportunities.

○ For in-depth interviews, 19 female interviewee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ose born in Jeonbuk, left Jeonbuk, and then returned to Jeonbuk; those who had continuously lived in Jeonbuk since birth; those born in other regions but settled in Jeonbuk; and those born in Jeonbuk but settled in other regions. We examined the moving experience, the reasons for their relocation, their assessment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region, and their decision to become residents by analyzing the cases of rural areas and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We established the vision "Jeonbuk, a place where young women can pursue their various dreams in a safe and positive manner" and the mission statement "Jeonbuk exists to provide young women with ample opportunities in a sustainable environment, facilitating their pursuit of life goals" to assist young women in settling down in Jeonbuk and leading decent lives.

○ As part of sector-specific strategies, we propose the following measures:

- ✓ Revitalizing the job market: expanding startup and job creation support programs, developing corporate culture improvement systems, and promoting workcation projects for young women.
- ✓ Increasing the resident population: expanding urban bicycle-sharing programs and pediatric services.
- ✓ Reinforcing education and training: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and expanding competence-building vocational programs for young women.
- ✓ Improving welfare and culture: developing support programs for various

leisure activities across culture, art, and sports and creating experimental spaces such as pop-up stores to attract a younger consumer base.

- ✓ Promoting youth communities: forming communities that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young women and strengthening regional identity through Jeonbuk brand discovery.

Key Words Population Decline, Aging Population, Low Fertility Rates, Youth Exodus, Female Outmigration, Regional Depopulation

정책연구 2024-10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발 행 인 | 이 남 호
발 행 일 | 2024년 7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31-9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4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방향 기초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방안 연구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연구
「태조 이성계」 지역 대표 자산화 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육성 전략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전북자치도 디지털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 전략 연구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제 관리 모델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 특화 관광자원개발 연구
전북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전략수립 연구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 방안

현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새만금 산단 전력인프라 구축 대응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활동 현황조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해외도시간 협력관계 구축 방안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방향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95330
9 788966 125319
ISBN 978-89-6612-531-9 (PDF)